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30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신 동 춘

요즘 자주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린다. 찾다가 못 찾으면 사람을 의심한다. 마구 잡이로 의심한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얼마쯤 있다가 예기치 않았던 자리에서 불쑥 나타난다. 못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문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얼씬거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 가히 가공할 일이다. 그 증세가 조금씩 더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한다. 찾기도 전에 의심부터 앞서는 이 끔찍한 증세.

원인은 "내것"이라는 것의 절대적 의미, 그러니까 "내것"에 대한 집착에 있다. 그리고 집착은 탐심의 발로가 아닌가. 내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생각.

내것 움켜쥐는 고집 '남 의심'

그리고 이 깜박 증세가 늙어감을 알리고 있다는 자각. 이런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사사무애(事事無碍)는 커녕 덜컥덜컥 겁에 질리는 처량한 내 모습을 본다. 불치의 병에서 살아난게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고 무엇이나 고마워하던 엄마전의 상태와는 사뭇 다르다.

3년전 폐암수술을 받은 후 병석에서 나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이치에 몰입하여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했다. 암(癌)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은 흔히 오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며 기대와 공포와 조바심으로 병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결코 모범적인 불자는 못되었지만 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게 우리 중생의 피할 길 없는 궤도라는 가르침만은 제대로 익혔던지 '차사고가 아니면 병사를 해야하는 마당에 병은 또 무슨 병인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정도에서 득습과의 마지막 층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암에 걸렸으면 죽는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살아난다면 이타행 좀 하다 가야할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그것도 강렬한 기도발원의 형태가 아니라 미종처럼 미미하게 스쳐간 생각의 편린이다.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회사의 기쁨, 비우는 마음은 어쩌고 물욕으로 꽉 찬, 어찌 보면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않은 "움켜쥠"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한양대 명예교수 · 영문학〉

"자비 나눔 바람분다"

종단·사찰단위 복지법인 설립 잇따라 추진

교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천태종 진각종 김제 금산사 광주 향림사가 연내 사회복지법인 설립방침을 확정하고 있으며 (재)태고원과 진안 탑사가 법인설립을 준비중이다.

〈관련기사 3면〉

97년을 사회복지불사에 역점을 두는 해로 정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부산과 충청도에 양로원과 증평의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계기로 복지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10월까지 복지법인을 설립한다. 현재 자료조사를 마친 상태로 대구 진각회관과 수도원 기로원 운영에 이어 다각적인 시설위탁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2월 장애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을 착공한데 이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 금산사는 법인설립을 계기로 시설 수탁은 물론 보호시설 운영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신청한 향림사(조실 천운)는 어린이 · 청소년양육시설, 중 · 고생 장학사업, 양로 정신장애 치매시설등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는 진안읍에 노후 아동 장애인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확정하고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탑사는 기존의 탑사장학회를 장학재단으로 개편하고 납골당 묘원건립등 사회복지사업에 다각도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한국불교 태고원(이사장 이규범)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태고원은 법인설립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나 구마다 1개소씩 복지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고, 연내 2천6백개의 어린이 집을 세울 예정이다. 특히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에 우선 수탁하고 있어 불교복지법인 설립은 시급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불교복지법인은 노인관련 7개 아동관련 5개 부랑인관련 3개소 등이다.

〈김원우 기자〉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제25회 세계환경의날 행사가 5일 서울에서 열렸다. 7천여 국내외 인사들은 기념식을 갖고 채택한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윤리로 환경보존의 새 지평을 열었다.〈관련기사 7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부석사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국보 18호)입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번씩 보고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의 연봉(連峯)을 바라보면 우리 산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을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과 장대한 희방폭포로 유명한 희방사도 참배합니다.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6월 테마여행 - 부석사 · 희방사

■ 참가 안내

◇출 발: 6월 29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안 내: 이강근 교수(경주대)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북돕기 적극 후원하자"

종단협이사회 바미얀대불 훼손반대 결의

한국불교종단종단협의회(회장 월주 · 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31일 이사회를 갖고 종단별 북녘돕기 운동 추진과 바미얀 대불 훼불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18개종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북녘동포돕기와 관련, 각 종단별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쳐 북녘동포돕기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의 방문단(60명) 및 세부일정 등을 최종확정했으며 훼불위기에 처해있는 '바미얀 대불' 파괴를 반대하는 5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바미얀대불 파괴행위 즉각 중단 △바미얀 대불 훼손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으로 종단협은 6월 2일 바미얀대불 훼불반대 결의문을 청와대, 문화체육부, 외무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갑사 5천여평 공원수용 위기

공주 계룡산 갑사(주지 정영) 토지 5천3백여평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관리공단은 87년 6월 갑사 경외지를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시설지로 지정, 고시했다. 관리공단은 그동안 재정상의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10일 갑사측에 손실보상협의요청(15억8백30만원)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로인해 갑사측이 지난해 10월16일 조계종에 사찰재산처분승인요청을 냈으나 총무원은 "사찰의 풍치와 존엄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지이므로 대규모 야영장을 개발할 경우 사찰의 문화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토지처분승인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갑사측은 5월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앙토지처분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내는 등 매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토지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외불교단체 北 국수공장 건립

민족돕기 LA본부 · 미주 평불협 · WFB 등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LA본부와 평불협 미주본부, WFB(세계불교도우의회) 등 해외불교단체들을 통한 북한주민돕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도안스님(美 LA관음사 주지)은 "지난달 23일 북한식량지원을 위해 재미종교인 4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련 서기장과 별도로 만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조선불교도연맹측에서 이에 대한 합의문을 보내오는 대로 해외 불교단체들과 연대한 북한주민돕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안스님은 또 "이번 북한주민돕기 운동이 전개될 경우 구호물자 및 자금뿐만 아니라 북한내에 국수공장 건립을 위한 시설지원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은 조불련 심서기장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불교측의 대북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구체화된 것이다.

한편 심서기장은 한국불교측의 대북지원이 기독교나 천주교와 비교할 때 다소 미약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해외불교단체나 한국불교측이 지원할 경우 조선불교도연맹으로 창구를 통일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도안스님은 전했다.

불교소재 광고 왜 뜨나 9면
'法華文句' 첫 완역 15면
불교 청소년쉼터 휴관위기 1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지난 35년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을 알려 온 기업 - 효성중공업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뼈대산업.
피부로 느낄순 없지만 꼭 있어야 할 중추산업.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난 35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목묵히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과 기술창조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실현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알고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기전사업부


자동화사업부


건설사업부

사 설

경주지키기 청사진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논쟁은 우리나라가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일어나기 시작한 오랜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개발하면 있던 기존의 환경을 송두리째 없애 버리고 번듯한(?) 새로운 모습의 건물을 짓는다거나 새로운 모습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게끔 되었다.

개발이란 개척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를 높여 산업을 일으킨다는 표현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개발논리를 앞세우게하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개발에 대한 의식수준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그 오해를 수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산업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사업이 그 나라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뒤늦었지만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싯점이다. 로마가 공장산업이 번창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남긴 방대한 유적과 역사를 전세계인의 것으로 가꾸었기 때문에 로마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된 것이다.

이제 지엽적이고 왜곡된 개발논쟁을 불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담담하게 고도 경주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동안 경주고속전철의 통과 라인과 경주역사 문제로 공방되었던 문화유적의 보존과 개발논쟁이 일단락됨으로써 자칫 새로운 개발논리가 고개를 들 것 같은 의구심에서 몇가지 정리를 해본다.

첫째 경주의 진정한 개발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통합적인 고도경주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물론 경주의 산발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젝트이지 경주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타플랜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런 총체적인 마스타플랜이 없으면 지엽적인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치 기형적인 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뚜렷한 목표 즉 경주는 천년고도로서의 역사와 유적을 보전 개발하는 목표를 전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이런 마스타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경주의 문화유산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공감하는 정서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는 이 마스타플랜의 공감이 형성되고 실현단계에 들어가자면 법제도의 정비와 튼튼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튼튼한 밑그림이 없이 시작한 실천이 얼마나 위험하고 낭비인가 하는 것은 경주고속전철의 건설을 지켜보며 깨달았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의 힘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경주로 개발되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할까, 무엇을 근본으로, 또 무엇을 단초로 삼을까 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왜곡된 개발논리에 밀려 경주는 한날 뒤쳐진 공업도시로 전락해 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감돈다. 때마침 지역지식인 일각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일들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다. 경주지역의 교수 236명이 경주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선 행동은 퍽 시기가 적절하고 용기있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선언이라 격려를 보낸다. 이제 선언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의 힘과 정서를 합해 실천으로 옮겨 보자.

열 린 마 당

한글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부-국립국어연구원의 한글-로마자 표기법 개정시안을 놓고 영어·국어·불교학계가 이의를 제기해 8월경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 연말로 미뤄졌다. 지금까지는 문교부 표기법이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전사법(轉寫法)인데 반해 '개정시안'은 한글 철자법을 따른 전자법(轉字法)을 택하고 있기 때문. 〈본지 126호 15면 참조〉

최근 동대 한영불교사전편찬위는 "현행 표기법대로 영역예규를 정할 것"이라는 최종 입장을 밝혀 불교용어의 영역에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찬반론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새 표기법이 확정되면 '도로표지판' '문화재 이름' 등 고유명사를 새로 표기해야 한다.

반달표·어깻점 삭제…뜻구별 쉽게

김세중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메퀸-라이샤워 표기법을 일부 수정한 표기법으로 1984년에 고시되었는데, 외국인이 국어 발음과 비교적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기법이다. 그런데 '어'와 '으'를 나타내는 ŏ, ŭ는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여서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으며 'ㅋ, ㅌ, ㅍ, ㅊ'을 나타내는 k', p', t', ch'도 외국어에 없는 글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외국어에서도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ŏ, ŭ를 o, u로 적고 마는 것이 보통이고 k', p', t', ch'도 어깻점(')을 생략해서 k, t, p, ch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을 때 '어' '으'를 ŏ, ŭ로 적지 않음은 물론이고 o, u로 적는 사람도 드물고 '어'는 u, '으'는 eu 따위로 표기법과 전혀 달리 적는 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문화된 표기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국내외에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표기법을 만들어서 그 표기법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된 표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반달표와 어깻점이 필요없게 만들었다. 또한 외국인의 발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뜻의 구별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만 보면 어떤 말을 적었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특수 기호와 발음 중심이 특징인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고수하는 것은 표기의 혼란만을 가져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애초 잘못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비록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 보완 외국인 혼란 최소화

조의연 〈동국대 교수, 영어영문학〉



한글-로마자 표기법 개정시안에 쏟아지는 찬·반 여론을 지켜보면 '로마자 표기법은 단순한 규약'이라는 생각이 절실하다. 특히 표기법을 통일시키고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시안은 재정·행정적 노력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을 것 같다.

언어학에는 '다이크리틱'(diacritic)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반각기호, 어깨점 등과 같이, 특정 음성을 그대로 옮겨내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지칭하며 외국어를 연구할 때 편리하다. 언어란 바로 '소리체계'이며 이 체계가 동일한 언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의 철자는 어두(語頭) 어미(語尾)에 따라 다른 음가(소리)를 나타난다. 'g'는 [그] [쥐] 'c'는 [스] [크] 등으로 각기 달리 소리난다.

'개정시안'에 따른다면 'g'는 [그]로만 발음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스님'(sunim)을 '쎈님' '김'(Gim)을 '짐'으로 읽고 '속리산'(soglisan)은 '소그리산'로 발음할 것이다. '개정시안'이 언어를 너무 경직된 체계로 묶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자연스럽고 원음에 오해를 자아내기 십상이다.

개정 작업은 문자생활의 불편을 보완하는데 머물면 된다.

어깨점 대신 [h]를 쓴다든지, 반달표를 없애는 대신 '으'를 [u]로 하고 '우'를 [wu]로 하며 '오'는 [ow]나 [oh]로 표기해 보는 다각적인 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역이 빈번한 번역서에는 '음역 표기법'을 설명하는 도표를 말미에 첨부하는 등 음역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기법 비교

구 분	문체부·국립국어硏 개정안(2안)	동국대 편찬위
원효	Wenhyo(Weonhyo)	Wŏnhyo
아미타불	amitabwul	amit'abul
관세음보살	gwanseumbosal(gwanseumbosal)	kwanseumbosal
약사여래	yagsayerai(yagsayeorai)	yaksayŏrae
보살	bosal	posal
대웅전	daiwungjen(daiwungjeon)	taeungjŏn
대중방	daijwungbang	taejungbang
요사채	yosachai	yosach'ae
사리	sari	sarira
비구니	bigwuni	piguni
유점사	ywujemsa(ywujeomsa)	Yujŏmsa
스님	sunim	sulim
석굴암	seggwuram(seoggwuram)	sŏkkuram
다보탑	dabotab	tabot'ap
극락전	guglagjen(guglagjeon)	kŭngnakchŏn
무량수전	mwuryangswujen(mwuryangjeon)	muryangsujŏn
응진전	wungjinjen(wungjinjeon)	ungjinjŏn
명부전	myengbwujen(myeongbwujen)	myŏngbujŏn
서울	seowul(sewul)	seoul

동국대 입장 기존 표기법 용어영역화 강행

동국대 한영불교사전편찬위(이하 '편찬위')는 외국 학계에서 널리 유통되는 메퀸-라이샤워 표기법을 한영불교사전 등 영역화 작업에 계속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마련한 개정시안은 불교계와 표기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표기법은 특히 'ㄱ·ㄷ·ㅂ·ㅈ'의 자음과 'ㅓ·ㅜ·ㅡ'의 모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메퀸-라이샤워 표기법이 일반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글의 음가와 연음현상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학계에서 선호하고 있어 새로운 표기법이 국내·외 학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편찬위의 경우 '한영불교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쏟은 지난 2년간 작업을 수정해야 하는 시간·재정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한국불교학회 등 여러 유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학계에서 어떤 표기를 공용하고 있는지 세밀히 파악해 새로운 표기법을 제정해주길 바란다.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발음을 음역해 그 단어의 의미와 철자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언어학적 모순일 것이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논쟁은 그 체계가 완전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체계가 더 만족스럽고 적절하냐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한불교사전' 편찬과 '원효저술' 번역 사업은 불교계 뿐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 불사이다. 두 사업을 통해 이룩할 한국불교의 진보(進步)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교용어의 영역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오종욱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제도가 너무 짜요

고심사 영탑원

동남향의 아늑한 보금자리
영가여, 불보살과 함께 평안하소서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영가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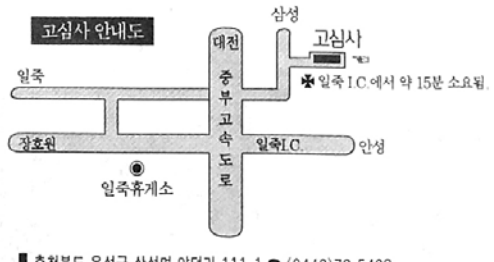
■ 영탑의 크기 : 높이 2.6m, 넓이 1.1m×1.1m ■ 봉안납골 : 가족유골 16구 봉안



영탑원이 해드리는 일

-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와 화장 및 운구 의식 집전
- 영탑 봉안 및 49재 등 장례 후의 의식 봉행
- 상주와 조문객을 위한 정갈한 공양 제공
- 매일 조석기도 봉행
- 기제사와 백중·추석 등 주요 절기에 합동 추모기도 봉행
- 매장을 모셨으나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파묘, 화장, 운구, 영탑 봉안 등 제반 의식 집전

고심사 안내도



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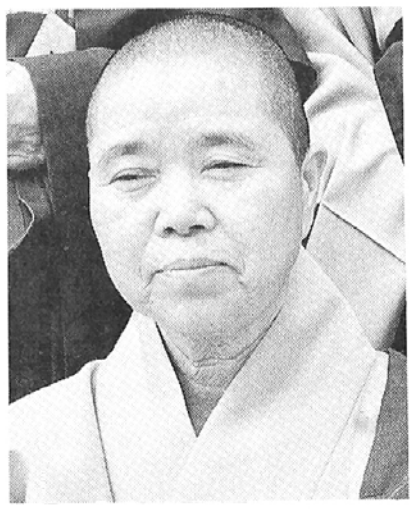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앙덕리 111-1 ☎ (0446)78-5408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국 2층 다원산업
☎ (02)701-6456~7 (02)701-5374~5 FAX:(02)3272-1389

"스승배출 도량답게 내실 만전"

수요 인터뷰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사 양성교육기관이 출범했다. 5월 27일 조계종 교육원의 정식 인가를 받아 이달내 현판식을 가질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명성스님(운문사 주지·운문승가대학 학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운문 비구니승가대학원 초대원장 **명 성 스님**



연구실·장서각 2백여평 완공단계

교과목 내전·외전 폭넓게
보조국사 저서 등 교재 검토
6학기 전문과정 개설 예정

- 비구니승가대학원 개원의 의미에 대해 들려 주십시오.

▲비구니대학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발원해 온 교육사업입니다. 승가구성에 있어 비구니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강원중심의 교육체계를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크셨을텐데요.

▲체제가 완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시행착오도 예상됩니다. 건물을 급하게 지으면 부실시공이 되기 쉬우므로 차근차근 골격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형식과 모양갖추기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시는 거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비구니 대학원으로는 처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불사의 첫단추를 여민다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선뜻 협조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실제 설립은 언제하셨습니까.

▲교육과정상 필요에 의해 2월 27일 개강한 후 대원 은광스님등 6명의 학인이 재학중입니다. 5월 27일자로 교육원의 정식인가를 받았으며 이달말 현판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채경당외에 연구실과 장서각등이 들어가는 2백여평 규모의 한식 목구조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 교과과정이 궁금합니다.

▲교육의 알맹이는 곧 교과목으로 이뤄지므로 이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지요. 현재 승가대학(강원)의 교과목 체제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우선 승가대학에서 배운것을 교육자의 입장에서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내전과 외전을 폭넓게 섭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문사 승가대학만 하더라도 3개 외국어를 비롯 컴퓨터 선무도 피아노 등의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교육원 및 여러 대덕스님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치문이나 서장의 분량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나라 보조국사나 서산대사의 저서를 교재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사서 노장사상 등도 교과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 학제와 입학자격은 어떻게 짜여집니까.

▲1학기는 1월20일 개강하여 7월19일 종강하며 2학기는 7월20일 개강하여 다음해 1월 19일 종강합니다. 수학기간은 수의과정 4학기를 기본으로 하여 6개 학기의 전문과정(박사과정 해당)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의과정은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생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전문과정 입학은 수의과정 이수자로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교육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승가대학원에는 태연 선혜스님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6명의 교수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비구니 승가대학원의 운영방침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에 마음껏 몰두 할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운문승가대학원은 수행자들의 참다운 사표가 될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하는 곳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 교육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유통교해(流通敎海)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청도 운문사=이윤호 기자

복지법인 설립 어떻게

1곳 지자체·2곳이상 복지부에 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찰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장학금 연구비 장려비 등 장학목적이나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불행 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사업으로 나뉘며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등 유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운영비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과 절차는 먼저 1개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2개기관 이상과 각지역에 시설이 분포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설립시 기본재산은 기부및 무상취득재산 잉여금 적립금등으로 복지법인의 경우 2~3억 지원재단법인은 5억이상이 필요하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재산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설립신청이 접수되면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자산요건을 갖추고 목적사업이 구현되고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일 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결재관계로 설립신청이후 허가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설립허가가 나면 사업계획및 예산이 기입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및 부속명세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사항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인감사증명서및 부속명세서를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원우 기자

목어

한총련의 업

"사람을 패 죽여 가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당신들의 형이나 동생이 무참히 맞아 죽었다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숨진 젊은이가 설사 프락치였다 하더라도 숨질때까지 때린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선량한 시민 李石(23·선반기능공)씨가 4일 한총련 시위학생들에게 경찰 프락치로 몰려 집단폭행당해 숨졌다. 柳志雄(22)수경이 2일 한총련의 한양대 시위를 진압하다 가스차에 깔려 숨진데 이어 발생한 이 사건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총련의 빗나간 시위에 적개심까지 표시하고 있다.

언론도 일제히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총련 깃발 내려야', '한총련 끝내야 한다', '한총련 해체하라', '시민죽인 한총련 폭력', '한총련은 환상서 깨어나라'

일간지들은 이런 사설을 통해 한총련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적군을 포로로 잡아도 그렇게는 못한다. 이쯤되면 한총련은 학생집단이라기 보다 폭력 살인집단이다.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입으로는 통일과 민족을 말하는 학생단체가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남은 일은 학업에 전념하면서 학생운동의 방향을 봉사활동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가에 힘을 기울이는 것 뿐이다."

이석씨에게 폭력을 가한 한총련학생 2명이 5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진압봉으로 이석씨를 때리며 조사했다고 진술했다.

시신부검 결과 이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차별 구타를 당해 숨졌다. 피부 아래 지방이 으깨지고 전체 피의 절반을 흘려 "2명에 폭행당한 채 숨진 것일까"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람을 개패듯 때렸다는 얘기다. 아무리 무자비한 한총련이라도 통곡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 잘못을 통감할 것이다. 한총련 가담자는 모두 살인을 저지른 공업(共業) 대중이다. 망자와 그의 부모·형제 그리고 국민 앞에 깊이 참회하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때 이석씨와 유지응수경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삼보정재 유실막자"

조계종 종토세 비과세 대응지침

과세공람(6월 1~15일)·이의신청(16~25일)

각 사찰은 15일까지 해당과세관청에 종합토지세 부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종합토지세 부과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와 관련 사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은 미리 해당과세관청에 수익성이 강한 토지(상가 호텔부지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를 경내지로 등록하는 것이다. 해당 관청 부과계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면 과세를 관철 시킬 수 있다.

간혹 사찰이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찰의 법적이해가 중요하다. 그동안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94년 7억2천여만원(82개 사찰), 95년 8억6천여만원(3백9개 사찰)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던 것이 96년에는 약 60%가 감소된 2억3천여만원(1백28개 사찰)이 과세됐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이 있었으나 교계의 법적대응책 마련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이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사찰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부당하게 유실되는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다. 현재 종합토지세는 전통사찰의 경우 수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일반사찰의 경우 종교고유목적 용도(수행 전법 교화에 사용되는 토지와 스님 주거토지) 이외의 경우에만 과세된다. 그러나 해당관청과 경내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종합토지세의 부과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법적근거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종합토지세 관련 법적일정은 다음과 같다. 과세공람기간 1일~15일, 이의신청기간 16일~25일, 자료보충및 적절성 판단기간 7월~8월, 종합토지세부과기간 10월1일~15일, 종토세납부기간 10월16일~31일, 이의신청기간(종합토지세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10월~12월이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2일 종합토지세 비과세 법적대응 근거 및 지침을 마련, 전국 각 본말사에 시달했다.

김중근 기자

피해사찰 공동대처 모색 '첫발'

20일 환경분쟁사찰 연석회의 '의의'

최근 사찰 환경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관광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익성 개발정책으로 수행공간 침해는 물론 휴식처까지 빼앗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능관)가 20일 '환경분쟁 사찰연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교계는 환경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찰환경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포괄적이여서 근원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장기화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반대운동이 대표적. 교계는 무조건 반대입장이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교계의 미온적인 대응방법으로 인해 장성 백양사, 부산 범어사, 남양주 봉녕사 등 20여개 사찰이 분쟁중에 있다.

이번 연석회의의 특징은 환경분쟁 사찰의 실무담당자들이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찰환경문제를 사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문제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는 예방적인 측면도 강하다.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할 때 사찰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즉 사찰환경파괴 발생이

개발행정 미온태도 반성
사회문제로 여론환기

후 대책보다 사전에 개발정책에 따른 정보교환으로 환경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환경분쟁연석회의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분쟁사찰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환경분쟁 사찰의 대응방법(연대사업)'등 자구책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스님들의 수행과 신도들의 신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찰환경파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온누리에 자비광명을 주시옵소서

奉 一鵬尊者猊下涅槃 1週忌追慕大法會 및 萬燈佛事 行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 경 보)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복덕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우리 중생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 일붕존자예하의 열반 일주기를 맞아 추모대법회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실줄 사료되오나 부디 동참하시어 존자의 유업을 기리고 일주기 추모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되길 기원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13일 (음 5월 9일) 오후 1시
⊙ 장 소 : 법왕청 대법당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세검정)
⊙ 등보시금 : 한등당 10,000원 (1인 1등에 한함)
⊙ 접 수 처 : 본 봉행위원회 ☎ (02)395-0162~3/379-3511~2, FAX 379-3513
⊙ 기타사항 : 1) 중식공양은 지하식당에서 행함
2) 문의사항은 봉행위원회에 연락바람

일붕존자예하열반 일주기추모대법회 봉행위원회

대 법 주 송 서 암
법 주 현 붕 해
회 주 김 무 찰
봉행위원장 홍 학 암 합 장

대 둔 사 참 선 수 련 회
Zen Retreat

여기 속박과 혼돈을 떠난 한 세상이 있도다.
한국 선가의 귀감인 서산대사의 화두선풍에 뜨거운 번뇌를 식히옵시라.

일 정 표

찾 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7일(월)~11일(금)	39명(남:19명, 여:20명)	19세~50세
2차	7월14일(월)~18일(금)	39명(남:19명, 여:20명)	19세~50세
3차	7월21일(월)~25일(금)	39명(남:19명, 여:20명)	19세~50세
자원봉사자	수련경험자로 매 찾수마다 4명		

신 청 서 양 식

대둔사 참선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법명 성별 남여
주소 ㅁㅁㅁㅁㅁ
주민등록번호
전화 및 팩스
직업 (구체적으로) 종교
참방차수 : 제 차
(월 일부터 일 까지)
수련회 경험 유무
無( ) 有( ) 年 년도 제 차
참가소견(자세하게):
년 월 일
신 청 인

모 집 요 강

- A4용지에 좌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 참가신청서는 본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가족 및 친지는 참가 찻수를 달리해야 합니다.
-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 신청마감일은 우체국 소인6월21일분까지 입니다.
- 6월27일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금은 7만원입니다(자원봉사자는 면제).
- 보낼곳 :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 수련원
- 문의처 : 종무소 ☎(0634)34-5502, 5503 팩스 (0634)35-5357
- Foreigners may join. An opportunity to sit a Korean style Koan Zen Retreat to be held at Daehungsa Buddhist Monastery. Send enquires and applications to: Retreat Centre, Daehungsa, Gurimni Samsanmyon, Haenamgun Chonnam 536-810

불기 2541년 5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 둔 사 (대흥사) 주 지 천 운 수련원장 지 수 합 장

"학문에 나이가 문제되나요"

知天命에 승가대 입학 경 훈 스님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51세의 나이에 운문사승가대학에 입학, 만학의 길을 걷고있는 경훈스님. 스님은 학문의 길에서는 서두르지도 말고 늦추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대중들과 함께 공부하는 공덕이 한량없다는 스님은 23세에 입산,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학구파다. 그러나 강원을 나오지 않고는 대중포교에 한계를 느껴 운문사로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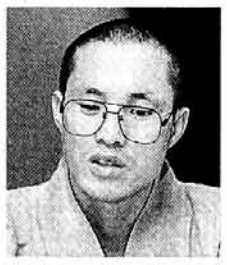
어른스님 말씀 하나하나가 경책으로 다가온다는 스님은 강원스님들이 번갈아가며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 차례법문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부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의 주름보다 마음의 주름이 문제지요." 스님은 늦게 배운만큼 남들보다 두배 더살아서 포교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머잖아 출가자도 나올겁니다"

헝가리 포교위해 출국 진 오 스님



직지사 상임포교사로 구미교사불자회 구성의 산파역할을 해오며 구미지역 포교의 새장을 열었던 진오스님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교외의 한국사찰 파라미타사(주지 법전) 상임포교사 소임수행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에 한국불교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주지스님의 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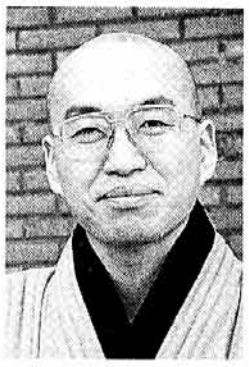
헝가리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뿌리내려 훗날 출가자가 나오고 교단이 성립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라미타사는 헝가리 최초의 유일한 한국사찰로 95년 건립됐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에는 경내에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석탑을 세워 현지 TV에 소개되는 등 현지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헝가리의 종교분포는 가톨릭 60%, 개신교 20% 등 기독교계통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긴급제안

민족돕기 불교집행위장 법륜스님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북한동포들이 이번 장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긴급지원하지 않으면 예년 수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5일 열린 북녘동포돕기운동 제단체 연석회의에서 '북한식량지원에 관한 긴급제안서'를 발표하고 7월 장마철을 대비할 수 있는 긴급지원이 절실함을 주장했다.

"7월 장마대비 北 식량지원 절실"

"지정기탁제 생색내기 경계해야"

스님은 "굶주림에 지쳐있는 북한주민들이 이번 장마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단체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월 26일 남북접촉에서 합의된 지정기탁제에 대해 법륜스님은 "각 단체별로 생색내기 모금을 할 위험이 있다"며 "지정기탁으로 보낼 수 있는 제한물량(1억3천만원 이상)을 마련하려다 보면 모금운동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이미 모금한 돈마저 중간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지역이나 단체에 지원량이 몰려 전달통로와 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지정기탁제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모금된 액수만이라도 모두 장마철 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정보를 통해 긴급지원 지역과 분배량을 확정, 지정기탁 지역을 결정한다 △모금액이 적은 단체는 서로 연합한다 등을 제시했다.

〈정〉



Focus 禪과 예술 어우러진 동포애

선화의 달마상 조각, 선(禪)무용 그리고 명상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또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자리. 이 종합 선 예술공연은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자비의 동포애로 회향됐다.

'북한동포돕기 빔주스님 선묵초대전' 이 개막된 1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범주스님이 달마화 등 선화를 그려 나가는 가운데 김영동씨(시립국악관현악단장)의 명상음악과 이광수씨(민족음악원 원장)가 이끄는 사물패의 연주가 진행되고, 한국선무용의 창시자 이선옥씨(뉴욕대학 교수)의 춤사위, 목공예인 간문화재 박찬수씨(목아불교박물관장)의 달마상 조각이 동시에 펼쳐졌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낸 이 특별공연은 지켜보던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한편 범주스님〈사진〉은 이번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북한동포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김정은 기자

간첩 깐수교수 부인 불교귀의 안정찾아

지난해 7월 남파간첩으로 판명돼 충격을 주었던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 교수(62)의 부인이 최근 불교에 귀의해 화제가 되고있다. 깐수교수의 부인 윤순임씨(46·前 을지병원 수간호사)는 현재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심리불안과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던 윤씨는 주위의 도움으로 불교에 귀의, 현재 안정을 되찾고 불교수행에 열심이라고.

가수 김흥국 구치소서 108참회

"출소후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 펼것"

가수 김흥국씨(불자가수회 회장)가 구치소에서도 수행과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의 근황은 '2002월드컵' 유치 1주년인 2일 가진 송춘희법사(백련장학회 회장)와의 면담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현재 같은 방에 수감된 9명 재소자들과 매일 108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재소자들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 2002배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몸으로 답해주면서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절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김씨는 출소후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스티커보급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불서와 단주를 전해준 송춘희법사는 "참선하고 불서를 읽으라는 인연을 얻게된 것으로 알라"고 당부했다.

위영란 기자

교차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봉사마당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스님은 8일 학생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혜명양로원에서 '할머니·할아버지 모시기 '97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을 개최했다.

노인 2백명 명락사 초청법회



도원 명락사 주지스님은 6일 경내에서 관악구 지역노인 2백여명을 초청 법회를 가진데 이어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또 신도회와 함께 마련한 일용품 등의 선물을 전달하고 노인들을 위로했다.

생명나눔 후원의밤 행사



범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스님은 12일 오후6시30분 강남 뉴월드 호텔에서 생명나눔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장애인 초청 야유회



범산 부산 개금사회복지관 관장 스님은 10일 개금 3동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주 보문단지에서 장애인 야유회를 개최했다.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철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회장스님은 1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소외이웃 위한 독창회

시명 불교성악회 지도법사는 10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독창회'를 가졌다.

탑사·애향 장학금 전달

왕선 마이산 탑사주지는 5월 30일 진안군민회관 강당에서 진안군 관내 극빈학생과 불자학생 32명에게 탑사·애향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동국전법대 학장 추대

승공 약천사 주지는 3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교육기관이며 스리랑카국립승가대학교 학문교류 결연대학인 동국불교전법대학 제2대 학장으로 추대됐다.

금강선원 이사장 취임

한정섭 前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은 15일 오후2시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덴마크 목각심포지엄 참가



박찬갑 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조각가)은 7~15일 덴마크 호여시에서 개최되는 제5회 국제목각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3일 덴마크로 떠났다.

독한법률학 세미나서 발표

연기영교수(동국대·교수불자연합회 사무총장)는 독한법률학회 학술세미나에서 '한국불교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 발표와 9월중 독일서 열리는 '한국불교문화예술제'에 대해 주정부 관계자와 협의차 5일 출국했다.

만해불교대학 수료식

이건국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4일 신도회관에서 제2기 만해불교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39명의 졸업생이 수료장을 받았다.

加 세계여성회의 참석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은 1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ICW(세계여성협의회)회의 참석차 12일 출국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우리는 선우 6,000,000원 △안성 도안사 3,800,000원 △한마음선원 부산청년회 2,044,300원 △보문사 1,611,720원 △이타회 1,200,000원 △하이텔 불교동호인회 1,161,000원 △미국 마이애미 보현사 1,034,563원 △죽림정사 외 7개단체 6,300,670원 △박수일 1,000,000원 △윤효남 1,000,000원 △세관 500,000원 △문순홍 외 4,577,404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2,044,390원 △한 끼 굶기 운동 3,798,650원

〈4일 현재 총 507,618,300원〉

·후원금 접수(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게시판

♣ 강좌

성훈따주기=수효사(주지 무구)는 제23기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2시며 개강은 17일. (02)313-3060

선체조=조계사(주지 현근)는 선체조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강의는 월·수요일 오전10시30분과 오후7시 두차례. 수강료 7만원. (02)720-1390

♣ 모집

효도관광 후원물품=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12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75명을 초청, 여주 신륵사 두산음료 등에서 효도관광을 실시한다. 후원은 차량, 물품, 현금(1구좌 1만원) 등이다. (042)633-1141

한글교육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40세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지도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사회복지사=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21일 접수마감. (032)325-2161

♣ 알림

인도배낭여행 설명회=혜초여행사(사장 심상돈)는 14일 인도배낭여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슬라이드 상영도 있을 예정.

장소는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이며 오후3시. (02)733-3900

결 산 공 고

대구불교방송을 아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불자님들께…

대구불교방송은 조계종 교구본사인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고운사, 태고종, 진각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등 소속 600여 사찰이 동참하여 지난해 11월 11일 개국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지역 보다 늦은 출발이지만 200만 대구·경북 불자들의 긍지와 자존심으로 방송포교의 첫 도량석을 울렸습니다.

개국이후, 대구·경북지역 불법홍포를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흑자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서울중앙국과의 관계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곧, 타방송사처럼 독립운영을 하여 경쟁력과 비젼을 갖춘 우리지역 불교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시대가 요구하는 절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최첨단 포교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나아가 불교의 지역사회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역 불교계에 더욱 새롭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것이며 살아 숨쉬는 방송, 깊이 있는 방송, 정론을 펴는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다가 설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 불교방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질책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불교방송의 주인은 바로 대구·경북, 우리지역 불자들입니다.

대구불교방송 설립 및 개국 결산

(199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구분	세목	금액	비고
자금의원천	설립성금		
	추진위출자금	1,568,400,000	
	운영위출자금	80,000,000	
	운영경상비성금	99,530,000	
	일반후원성금	17,173,000	
	지로후원성금	15,454,000	
	후원법회성금	129,470,000	
	사리친견법회성금	22,286,900	
	전시회성금	75,000,000	
	개국행사협찬성금	17,900,000	
	이자수입	16,818,163	
	소계	2,042,032,063	
	수입		
	광고수입	40,814,300	한국방송광고공사권광고
	협찬수입	34,547,270	
	수입이자	728,546	
	소계	76,090,116	
	부채		
	미지급금	16,159,000	
	부가세예수금	7,531,430	
	예수금	1,445,120	직원 소득세, 주민세외
	소계	25,135,550	
	합계	2,143,257,729	

(재)대구불교방송

구분	세목	금액	비고
자금의운용	방송시설		
	방송장비외	1,167,490,910	
	임차보증금	300,000,000	
	송신소시설	95,691,250	
	집기비품	77,648,481	
	차량운반구	35,159,330	
	전신전화가입권	5,070,000	
	예치보증금	1,775,000	
	공구와기구	1,192,273	
	소계	1,684,027,244	
	운영비		
	일반관리비	290,477,529	
	방송제작비	62,082,339	
	소계	352,559,868	
	기타		
	국민연금전환금	890,400	
	미수금	38,195,344	
	부가세대급금	17,813,355	
	운영위자금적립	9,400,000	
	소계	66,299,099	
	가용자금		
	현금	2,767,780	
	예금	37,603,738	
		40,371,518	
	합계	2,143,257,729	

※ 비고:팔공산송신소 부지확보 및 철탑관련비용은 제외 되었습니다.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장 이 설 조

대구불교방송 사 장 신 법 타



◇지난 1일 속리산에서 봉행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법회.

'산행불심' 청정국토 가꾼다

전국불교산악인聯 출범…회장 손현수씨

'산행과 수행은 하나'라는 명제아래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이 모인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 대현그룹회장)가 정식 출범됐다.

전국 10개 지역 16개 불교산악회 회원 1천여명은 지난 1일 속리산 법주사 녹지공원에 모여 창립법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손현수 서울동부불교산악회 회장을 선출했다.

헌화 및 헌향, 삼귀의례,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와 창립취문 발표, 법어(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축사(법주사 주지 혜광스님), 임시의장 선출, 행동강령 제창 순으로 진행된 법회는 속리산 법주사를 참배하러 온 일반 불자들과 관광객 3백여명도 함께 참여해 축하했다.

손현수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불자라면 누구나 산악인이라는 생각 아래 산행을 통해 신행을 증진시키고, 종파 및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산하를 만들어 이땅에서 청정불국토를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산림법회 △자연 생태계 보호 △청정국토 가꾸기 △한 산악회 한 산 지키기 △사회복지·장학사업 △회원 친목 및 국내외 산행과 관련된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속리산=김재경 기자

◇불교산악인련 가입단체

지 역	단 체 명	회장	전화번호
서 울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서울금강메아리 서울불이산우법회	손현수 김대원 조인행	(02)232-6948~9 (02)508-5863 (02)434-7300
부 산	부산불교산악회	이순득	(051)464-2020
대 구	대구불교산악회	김장근	(053)743-2554
광 주	광주불교산악회	이재삼	(062)676-4334
대 전	대전불교산악회	지우하	(042)627-9199
강 원	속초불교산악회	최상길	(0392)33-7740
경 기	성남불교산악회	임선교	(0342)46-3871
경 남	양산불교산악회 마산불교산악회 고성불교산악회	한계수 최용환 박충웅	(0523)387-2366 (0551)24-0523 (0556)72-0100
경 북	영주불교산악회	김원호	(0572)33-1533
충 북	청주불교산악회	김정길	(0431)53-6941
중앙 직할	연심회 전국장애인불자연합회	유재근 나경선	(02)556-0678 (02)952-4025

개화승 이동인 동상 세운다

봉원사에 서울시 공무원불자회 추진

개화승으로 유명한 이동인스님(?~1881)의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의 신행모임인 심월회 조정봉회장(시청 민원조사담당관)은 3일 이동인스님 동상건립을 위한 계획을 진행중이며 내달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회장은 "동상건립에 참여할 단체나 불자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동인스님의 동상은 서울 봉원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봉원사 경내에 세워질 예정. 이로써 봉원사에는 봉원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인스님 비(碑)'와 동상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탐방 | 경향신문불자회

"마음의 펜으로 지상포교 앞장"

회원 81명 언론계 불교위상 높여
배달소년 도와…연등축제땐 정진상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간지 직원불자회인 경향신문불자회(회장 강신철 논설위원). 경향불자회는 불법을 통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삶의 빛깔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모임이다. 81명의 회원들은 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와 이웃에게 이로움을 전하려는 마음을 담아 조간신문을 만든다.

그래서인지 경향신문은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신문', '불교냄새가 물씬 풍기는 신문'이란 평을 듣고 있다. 불교를 소재로한 익살스런 시사만평으로 친근한 경향신문의 간판스타 김상택화백이 불자회 회원임은 물론 비회원인 안신배사장도 불자다.

경향불자회는 지난 95년 4월16일 북한산 노적사에서 신문사 직원과 가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초대회장 김병락 비상계획부장).

당시 5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동회는 자체 신행활동은 물론 언론계에서의 불교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다.

매달 한번 정기법회를 봉행해온 불자회는 신문사의 근무 여건상 자주 순례법회나 봉사활동을 펼치진 못하지만 회원 각자의 업무에서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들의 펜이 사회를 이끌고 불교를 외호하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포교한다'는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고있는 경향불자회는 지난해 6월5일부터 1주일간 비번날을 이용 서울·경기 전역의 지국을 방문해 배달소년들에게 티셔츠를 전달하고 삽지작업을 돕기도 했다. 5월26일 조계종봉축위원회로부터 연등축제 정진상을 받기도 한 불자회는 북한동포 및 백혈병어린이 돕기 등의 보시행도 펼칠 예정.

강신철회장(48)은 "앞으로 교리공부와 참선정진을 통해 선정의 힘을 키운뒤 다른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지난달 11일 경향신문불자회가 두번째로 참여한 제등행렬 장면.

우리 모임에선

서울 구도회 임시총회

서울구도회(회장 김신배)는 회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21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법당에서 개최한다. 8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 열정적인 학구열로 구도회를 이끌어 온 현 김신배회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회장소임을 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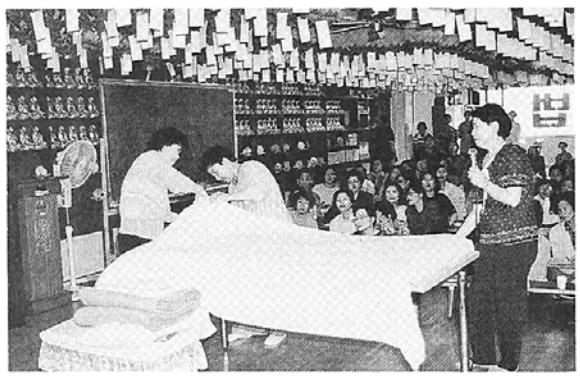
충청교정인련 회보발간

전국 교도관들의 모임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는 최근 오는 25일 창립 2주년에 앞서 회보 〈불심〉을 창간. 4·6배판 크기 70여쪽 분량의 〈불심〉은 스님들의 법문, 기초교리, 사찰순례, 신행단체장들의 글, 불자교정인과 가족들의 글과 시로 꾸며져 있다.

붓다클럽 양로원 위문

붓다제주증앙클럽(총회장 문인종) 부녀회(회장 김순애) 회원 30여명은 5일 제주시 제주양로원을 위로 방문, 청소 및 점심공양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녀회는 매 분기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

제주양로원 원장 김부자씨는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0일 붓다대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던 사회봉사자.



정부위탁 제1기 간병인교육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5월26~30일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1백여명의 수강생들에게 정부위탁 제1기 주부 및 준고령자 간병인 교육을 실시했다.

금불련 봉정암 순례법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6~8일 2박3일간 설악산 적멸보궁 봉정암에서 합동순례법회를 봉행했다. 40여명의 회원이 철야참선·108배정진과 설악산 산행 및 청소를 실시.

보좌진법우회 청평사 모임

국회보좌진법우회(회장 정병국)는 5월25일 경기 청평사에서 창립후 첫 순례법회를 봉행. 회원 30여명은 저녁예불후 시인인 주지 청화스님의 다담(茶談)과 새벽예불 등을 통해 참회와 정진의 발심을 얻었다.

유니텔동호회 보육원 봉사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김회정)는 15일 경기 시흥에 있는 보육원 송암동산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이날 회원들은 40여명의 원생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보시하고, 학용품 옷 등을 선물하며 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수리할 예정.



교계 중진스님 청와대 불상 친견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는 5월 31일 교계 중진스님들을 초청, 청와대 불상(석조여래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31명이 참석했다. 또한 청불회측에서는 박세일 수석, 배재욱 사정비서관을 비롯 50여명이 동참했다.



석남사 인홍스님 49재 봉행

조계종 원로 비구니 인홍스님(석남사 조실) 49재가 1일 석남사 누각에서 스님 1천여명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영가법문을 통해 인홍스님을 추모하고 수행력과 유지를 기리며 계승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비구니회 고문 혜춘스님, 광우스님(비구니회장)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대행스님이 분향하고 있다.



키르기즈共 대통령에 名博학위 수여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3일 중강당에서 키르기즈 공화국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녹원(동국대 이사장) 김인홍(동국대 대학원장) 등 학교관계자와 황수영(前 동국대 총장) 서돈각(불교방송 사장) 황명수(동국대 총동문회장) 이연숙(여성단체총연합회장) 동국대 학생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대불련 수행결사 선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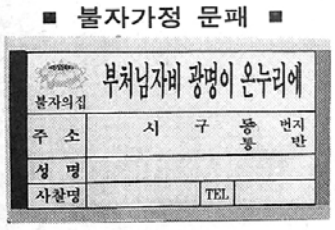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 제2차 수행결사선우모임이 5월31일~6월1일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임은 지난 2월14일 30여명의 회원들이 1백일 수행을 결사한 이래 서로의 수행담을 나누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결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결같이 "108배, 염송 등을 통해 수련하는 동안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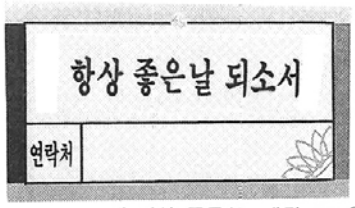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불교 상품을 직접 제작해온 삼보기업에서 불자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불자가정 문패와 불자 차량 안내판을 제작하였습니다.

■ 불자가정 문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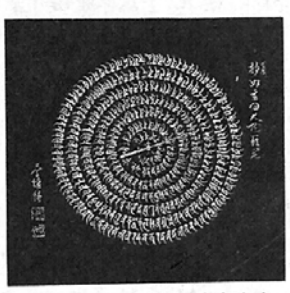
■ 불자 차량 안내판 ■



● 재 질 : 연질 포맥스 (씰크인쇄) ● 크 기 : 19cm × 11cm ● 150매 이상 주문시 1개당 1,500원

스님들께서 신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삼보기업의 기획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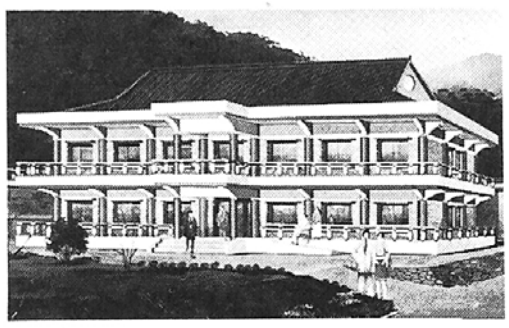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삼보기업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 B/D 4층 T)279-2715 F)275-3739

● 법륜사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 수행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연법에 닫는 불자 및 년로하신 분과 고시 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불경,좌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옵고 삶에 지치고 사랑,믿음,좌절,배신,분노 얼키고 썰킨 인간사의 병든 마음과 육근을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수려한 만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대의 설계로서 욕탕, 휴게실, 독서실 및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가족이 함께 심신을 맑게 하시도록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다함께 지혜와 마음 거울을 닦아 성불합시다!

법륜사 대중처소 내용별 구분 안내란				
남·녀 총인원	65명	※ 자격 및 년령 제한 없습니다!		
방 1실 인원	1명	※ 小실	※ 일생 수양하실분 가능함 ※ 년령이 많으신분 우선	※ 小,中,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심시오.
방 1실 인원	2명	※ 中실		
방 1실 인원	3명	※ 大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선착순위		
문 의 처	본사) 합 천 법륜사 : (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 : (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입양 접수일 : 1997년 5월 15 ~ 6월 31까지 (선착순 마감)

주 지 : 김 운 봉, 총무스님 : 손 자 혜

고 문 : 이 기 우
회 장 : 이 경 자 합 장
회 주 : 최 복 남

법회안내

부천 석왕사(032)663-7771
초하루 신장 기도 및 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3일 기도 및 법회 매월3~10일(음) 오전9시30분

◇주지 영담스님
인등기도 및 포살법회 매월15일(음) 오전9시30분
지장재일 불공 및 지장경 독송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불공 및 지장경 독송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불공 및 보문품 독송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3천배 철야용맹정진기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10시
학생회법회(중·고등부)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법륜회법회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2시

광주 증심사(062)226-0107
초삼일법회 매월3일(음) 오전10시30분
초이레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영조스님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천증사(02)914-3558
초하루 발원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지장기도 및 가족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각명사(02)387-3510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정기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광주 금륜회관(062)224-0175
중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6시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광주 원효사포교원
(0416)55-2551
어른이 성불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햇님이 불교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울림 불교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환경 흙과 물 다 나의 옛몸이니…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죽음의 재' 다이옥신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5일 세계환경의 날 세계 각국에서 환경·생태계 보존 및 복구에 지구촌 가족이 한목소리를 낸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다만 환경부가 16일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나 배출농도가 높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더욱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으로 강조하는 불교의 환경사상을 경전과 조사어록에서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화향품〉

▨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마경〉

▨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방편을 구호하여 그 고난을 풀어주며,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갖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범망경〉

▨ 수행자는 옷입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옷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밑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타경〉

▨ 저 불국토에는 목욕할 수 있는 호수가 수없이 있다. 그 호수에는 여덟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철철 넘치고 맑은 향기가 풍겨 마치 감로수와 같은 느낌이다. 호숫가에는 전단나무가 서 있는데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잎과 꽃이 드리워져 있다. 호수 속에는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흰 연꽃이 눈부시게 피어 물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흰희에 넘쳐 마음의 때가 맑끔히 씻긴다. 〈무량수경〉

▨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뼈·상아·뿔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눈앞의 꽃이로구나, 산도 물도 이 땅도. 다 그런거지, 보이고 들리는 것들. 맑고 맑구나 보고 듣는 이것이여. 세계마다 티끌마다 오, 아미타불, 오, 법왕(부처님의 다른 이름)의 몸이여. 〈나옹화상어록〉

▨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어지게 하라. 또 모든 곳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거웁게 울리게 하라. 모든 생류들에게 새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쉴사이 없이 들리게 하라. 〈보리행경〉


◇조계사는 12일부터 1년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불화그리기 강좌를 개설한다. 사진은 동방불교대 불교미술과 학생들이 단청실습을 하는 장면.

서암스님 초청 대법회

"도(道)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깨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쳤다면 생활 속의 언행이 흐트러짐 없이 고요해야 한다."
前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 청법대법회가 13일에서 15일까지(3일간) 불교중흥회관에서 개최된다. (02)744-0315

청주불방 고승초청 법회

청주불교방송(지사장 각현스님)은 16일에서 19일까지 4일간 저녁7시 불교방송 10층 문화센터에서 개국기념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16일 혜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17일 암도(前 조계종 포교원장), 18일 도문(대각사 주지), 19일 무진장(前 조계종 포교원장)스님 등이 초청돼 법문할 예정. 혼탁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생활속에서 불법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감로(甘露)법문으로 기대된다. (0431)211-2090

스님 장학금위한 연주회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아래 피어나는 도움의 손길. 중앙승가대학 비구니 수행관 후원회인 화엄장학회는 14일 오후5시 충정로 문화일보홀에서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다. 이 공연에서 얻는 수익금은 전액 중앙승가대학 비구니수행관에서 수도 정진하는 스님들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주회는 불자 바이올린 연주자 강형진씨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2)545-2078

살풀이 배우며 포교도

불교도 배우고 춤도 익힌다면 얼마나 멋질까.
춤을 통한 전법을 펼치고 있는 우바이무용단(단장 심산)이 1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민속무용의 하나인 '살풀이' 강습회를 연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법당 뒤에 마련된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전통무용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열린다.
우리의 한을 승화시킨 몸짓인 살풀이를 배우며 전통속에 녹아든 우리의 진정한 마음새까지 배우고 이어갈 수 있는 강습회에 동참을 원하는 불자들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에 신청하면 된다. (051)816-2241

장엄불화 그리기 강좌

불교하면 떠올리는 불보살들의 원색찬란한 장엄불화를 떠올린다. 법당이나 법회에서 의식을 장엄하는 불화를 직접 그려보자.〈사진〉
불교미술을 배우면서 불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조계사(주지 현근)는 불화그리기 강좌를 법성거사(단청문화재 수리기술자 146호)의 강의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조계사 제6강의실에서 마련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7만원.
(02)720-1390

대왕암·기림사 문화기행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경주지역 문화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소년 문화유적답사가 15일 열린다.
다양한 답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계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문무왕의 넋이 깃들어 있는 감은사지, 대왕암을 비롯 기림사, 경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을 찾아 신라인의 호국정신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과 학부모, 일선 교사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비는 무료. (0561)771-1950

백두산·만주일대 답사

(사)한국제이티에스(JTS·이사장 법륜스님)는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제4차 역사기행을 떠난다.
이번 역사기행은 민족의 성산(聖山) 백두산과 광개토대왕비 등 고구려·발해 유적지를 답사한다.
대상은 일반인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 대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이다. 동참비는 1백50만원이며 접수마감은 6월20일까지. (051)525-7264

신행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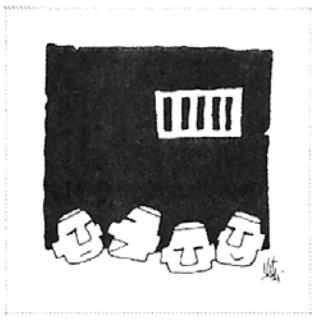
나의 수행일기


김 기 옥

"재소자들의 '짐' 나누자" 발원

전국 교도소 직원 불심회 결성 '산파역'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아량으로 대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금은 더 부드럽고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화두 아닌 화두를 안고 한때 자기 마음관리를 잘못한 결과로 법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인간 수련도량, 구치소에서 많은 부처님(재소자)들과 지내온 30여년의 세월이 어쩌면 내 인생에 정해진 길을 걸어온 것도 같고 이곳이 바로 내 신행의 수행도량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두렵고 경계심이 앞서던 그 많은 재소자들이 차츰 알고보니 저마다 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모습들에 모두다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듯이 이들이 불행중에 또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별수없이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었던 일, 늘 상담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사형수들을 어느날 감자기 사형장에서 영영 작별을 하고나서 또 그 가족들의 절규를 보며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며칠씩 속앓이를 하던 일. 환경의 탓에, 업보의 끈에 끌려 원하지 않은 이곳에 온 많은 이들과 그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을 보며 이들에게 내 생이 아닌 바로 현생에서 지옥과 극락을 보고 이들에게 불연을 맺여주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이곳에 관세음보살님상과 지장보살님상을 모시고 같이 기도하며 신행의 길을 밝히려고 도반들을 찾았다.
재소자신앙지도, 교화를 위해서 직원불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닦자는 뜻에서 86년 서대문구치소에서 직원불심회를 창립하여 좋은 반응으로 이 모임의 뜻을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에 권장하고 알리어 현재 전국 어디에나 직원불자모임이 결성되었고 연합모임까지 결성된 것도 작은 보람의 하나다. 거기에 교정시설 경비를 위해 배치된 현역경비교도대원들이 복무하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에도 지난 89년 불자대원들로 '구도회'라는 신행모임을 만들어 매주 여는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많은 불자들과 함께 신심을 키워왔음을 부족하게나마 신행의 큰힘으로 느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곳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때를 만날 때마다 별 수없이 부처님께 매달린다. 85년 집에 모신 부처님전에 끓어앉아, "부처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금 마음의 길잡이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 특히 나이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도록 해야 하나요?" 간절히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활짝 웃으시며 답을 주셨다. '네 스스로 찾아라' 하시는 것이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지표를 삼을만한 좋은 글을 만들어야 겠다고 결심했다.



1년여에 걸쳐 다듬고 다듬어 만든 것이 팔정도에 맞추어 만든 여덟마디의 글 '나를 다스리는 지혜'였다. 86년 여름에 만들어진 이 글은 법무부에서 재소자교화자료로 채택,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거실에 8절크기로 부착되어 많은 재소자들이 마음의 경구로 삼게하였다.
심청정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의 부처님 사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밝은마음 밝은사회'를 주제로 모든 이들의 가슴가슴에 절실하게 전하는 힘이 되고자 이 무거운 육신도량부터 청정하고 밝게 가꾸려 오늘도 부처님전에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간다.

〈사단법인 법시사 이사장〉

학인모집안내

21세기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7월 1일 ~ 8월 15일(후기)
2.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3. 전공과목 : ① 무량의경 ② 묘법연화경 ③ 관, 보현 보살 행법경 ④ 기타, 교양특강
4. 보집구분 : ① 출 강 반 (부산) : 수·금요일 등교 ② 통 신 반 (전국) : 넷째 일요일 등교
5. 교육기간 : 2년 (4학기) 출강, 통신반 동일
6.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오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교양대(강원) 개원시 지원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우)701-600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문의전화 대구강의실 : (053)952-8711
부산강의실 : (053)633-6224
교 수 직 통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보내드립니다.

公 告

歸依三寶 하옵고,
大韓佛教曹溪宗 初代 宗正이신 薛石友 大宗師의 忌日 追慕祭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門設諸立와 四部大衆 여러분께서는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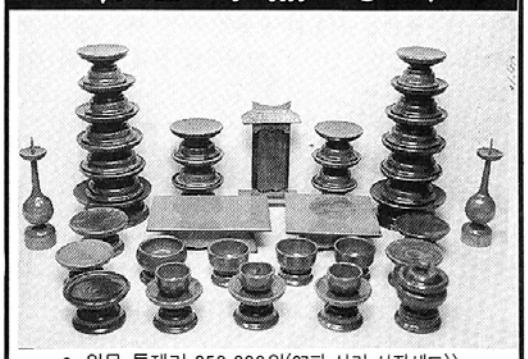
● 다 음 ●

⊙ 日 時 : 2541年 6月 15日 (陰 5月 11日) 10時
⊙ 場 所 : 八公山 桐華寺 鳳棲樓
※ 문의 및 연락처 : (053) 982-0101~2(동화사 종무소)

佛紀 2541年 6月 日

石 友 門徒會 門丈 林眞際
八公山 桐華寺 住持 金無空 合掌

정성과 얼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품위있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목기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 표 임 동 주 합장

"자연-인간 온생명체계 구축하자"

환경윤리 서울선언 '온누리 생명위하여' 실천강령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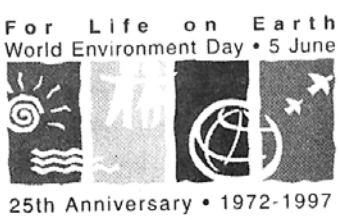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온 누리의 생명을 위하여(For Life on Earth)'를 주제로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삼대통령과 강영훈 한국 유엔환경계획(UNEP)총재, 엘리자비스 다우즈웰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을 비롯 60개국 대표, 10여개 국제환경단체 대표 등 7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과학기술이 환경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왜곡된 가치관과 허구적 믿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에 대한 온생명체계(Whole-life system)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전문과 △물질만능주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등 4개 원칙과 각 부문의 27개 실천강령으로 짜여져 있다. 실천강령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 환경과 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은 온생명체계의 온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환경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부족을 이유로 예방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환경 개발 정보를 일반에게 조기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시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정부정책의 공평성과 균형성이 제고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보다 큰 지구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종교단체 종교계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교지도자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기여해야 한다.



환경단체 각계각층 대상의 교육과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온생명체계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을 평가하고, 환경행정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환경 보전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과 기업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을 개발·이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금융계는 환경친화적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기구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를 비롯한 지구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국가간 환경문제의 실상을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시행을 촉진한다. 환경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앞장서고, 환경정책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환경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

학계및 연구기관 환경기술 개발은 물론 오염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기초연구에 더욱 힘쓴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신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뿐만아니라 인문사회분야와의 학제적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언론과 뉴미디어 환경관심사와 환경보전 성공사례를 호소력있게 다룸으로써 일반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몸소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환경정보의 교류와 환경논의를 활성화하고, 환경살리기의 실천강령을 널리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성운 기자

서울선언 전문 요지 환경파괴 삶의 질도 악화

현대 산업문명은 경이로운 물질적 풍요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에게 일찍이 유례없는 문명의 혜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심각한 지구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의 악화를 염려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물질주의의 추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수용능력 안에서 지구환경을 이용하고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보다 큰 '온생명체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온생명체계의 생태론적 관점에 두어야 한다.

불교의 눈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사무국장은 "선언문에서 '온생명체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실천강령을 생태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아함 근본법문경〉에서는 인간과 만물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고 소유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땅 물 불 바람을 생명현상으로 여기고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화엄경〉에서도 "일체의 국토가 하나의 국토에 들어가고 하나의 국토가 일체의 국토에 들어간다"며 만물의 유기적 관계를 설하고 있다.

지계 금주 파계

정부, 북 농업지원 계획수립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국제컨소시엄 결성 등을 골자로 한 '북한농업 재건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계획에는 △식량과 농자재 현물지원 △농지기반 기설 복구 △북한 5대강 유역 종합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동포사랑 자유통장' 개설

●…동화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잔액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부담으로 통일기금으로 출연하는 '동포사랑 자유통장'을 개발,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동화은행은 독립기념관이 추진하는 '통일염원의 탑' 주변에 조성하는 '참여의 장'에 예금자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주영씨 북성금 5억 기탁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일 그룹창설 50돌 행사 비용을 절감해 마련한 2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북한동포 식량 보내기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또 15억원을 50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4일 북동포돕기 성금 18억원을 한적에 기탁했다.

시민들이 은행강도 붙잡아

●…3일 서울 동선동5가 제일은행 출장소에 복면강도가 침입해 현금 1천5백9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출장소옆에서 표구사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시민 3명은 범인이 아리랑고개쪽으로 달아나자 4백여m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던 범인을 붙잡았다.

암 억제·노화 유전자 발견

●…생명공학연구소 신득룡박사팀은 p53유전자가 암세포증식을 완전히 억제하고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새로운 사실을 세계최초로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총련 시위 전경·시민 사망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와 관련, 2일 경남경찰청 유지웅상경 사망에 이어 4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경찰프락치로 오인받은 이석씨가 학생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한총련 시위로 숨진 유지웅·이석씨의 어머니(사진 왼쪽)가 울부짖고 있다.

불법과외 유명학원장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는 3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종로학원 한샘학원 등 유명입시학원장 7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입시학원으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고교교사 2천여명의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10대 고용 유흥업소 주인구속

●…경찰청은 1일 전국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한 단란주점 주인 등 376명을 적발, 이들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던 가출청소년 1천8백여명을 찾아내 보호자와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냉동피자에 세균 우글우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일 피자 가공새우 등이 식품규격을 위반해 제조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명식품의 냉동 '팜팜피자'와 경기물산의 '싱싱새우후라이'는 g당 세균이 기준치를 8.8배 초과했다.

요양원장이 장애인 폭행치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4일 장애인 요양원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뒤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시체를 화장시킨 은혜요양원장 유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시론

딸 가진 부모 마음



공 세 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예의범절을 가풍(家風)으로 삼으며,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유별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딸들이 집을 뛰쳐나가 매춘부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흥업소에는 미혼여성이 성시를 이루고, 매음을 위해 이곳을 찾는 남자들이 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여학생 가출 날로 늘어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예의범절이 투철했다. 그런데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인간의 성행위는 어느 사회나 윤리적 통제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형태가 결혼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수록 인간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성, 임신 및 출산이라는 재생산 고리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결과 낙태, 키울 수 없는 자녀의 유기, 부부갈등에 의한 이혼 그리고 미혼모, 편부모 내지 양부모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 파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을까? 여기서 가출행위는 가정이나 학교라는 특정 사회제도에서 일종의 일탈현상(逸脫現象)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긴장(strain)이 배척요인(pushingfactors)으로, 사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유혹은 흡입요인(pullingfactors)이 된 상호작용의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개인특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가정환경은 핵가족화와 함께 부모역할의 다양화로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가족붕괴로 편부모가족 내지 부모가 없는 양육가족에서 의존할 대상이 없을 경우, 그리고 부모들이 성적위주의 지나친 간섭으로 긴장이 누적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적의 부진으로 인한 열등의식과 동료간의 갈등관계에 따른 도피심리, 사회유혹에 대한 선호심리 등이 그것이다.

또 개인특성은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내성적이고 치밀하며, 배타적 특성을 소유하는 학생의 경우에서 일탈의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 가출은 의도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나 강제적인 인신매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하다가 윤락에 이르는 등 동기와 과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가출은 단순히 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어떻든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주의 의식이 소녀들을 제물로 삼고 있는 이상 그 책임은 기성인은 물론 사회구조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채임지려는 사람은 없다. 기성인들은 술집에서 나이 어린 소녀를 찾고, 이들과 어울리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철면피적 심리가 자신들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리교육은 청소년들에 앞서 기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분별한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인간의 가치관을 어떻게 변모시켰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개인역할의 다양화로 개인주의 의식이 고취되면서 자녀규모의 축소, 분거형태의 보편화의 부작용은 그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개인주의 의식과 평등관계의 추구는 서로간 간섭을 배제하면서 부부간은 물론 부모자식도 소원한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서로를 고립시키고, 서로가 고립되는 가운데 의존과 신뢰의 벽은 무너져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존해야 할지는 신통한 대답을 구하기 어렵다.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소외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이익의 이율배반이다.

기성세대에 윤리교육

사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더불어 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면서 자신을 인내하는 방안을 터득해야 한다. 중고교 여학생들의 가출도 그들이 남의 자식이 아닌 내 딸들로 생각하며 끌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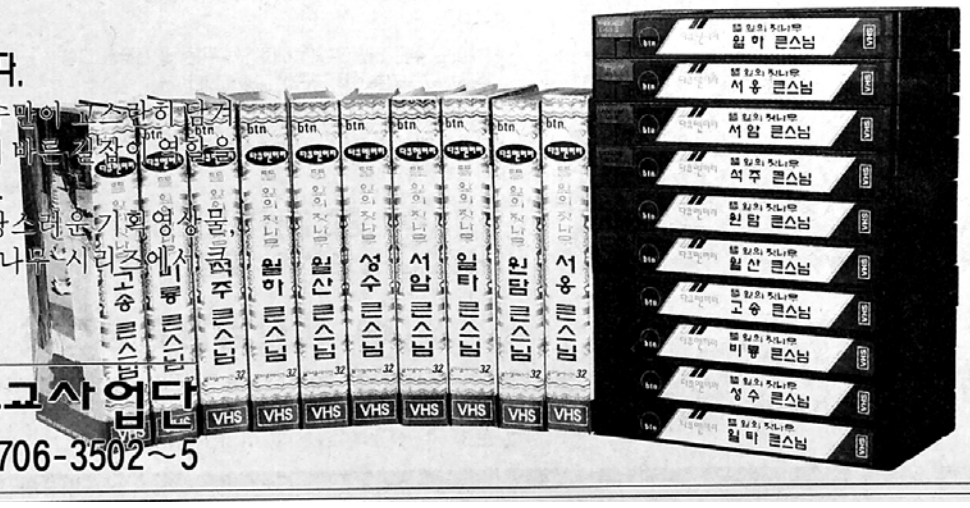
학생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부모나 선생님께 의논하며,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깊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 그리고 협력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개인과 가정, 학교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판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련지를 전함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⑨

세존의 꽃

世尊昔在, 靈山會上, 拈花示衆. 是時衆皆默然, 惟迦葉尊者, 破顔微笑. 世尊云, 吾有正法眼藏, 涅槃妙心, 微妙法門, 不立文字, 敎外別傳, 咐囑摩訶迦葉. 無門曰, 黃面瞿曇, 傍若無人, 賣良爲賤, 懸羊頭賣狗肉. 將謂多少奇特, 只如當時大衆都笑, 正法眼藏作麼生傳, 設使迦葉不笑, 正法眼藏又作麼生傳. 若道正法眼藏有傳授, 黃面老子誑謼閭閻, 若道正法眼藏無傳授, 爲甚麼獨許迦葉. 頌曰, 拈起花來, 尾巴已露, 迦葉破顔, 人天罔措.

*세존(世尊)께서 영산(靈山)의 법상에 오르시어 꽃잎 하나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다들 의아하게 좌우를 둘러보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섭(迦葉)존자만이 조용히 미소지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미묘법문(微妙法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하노라."



*나 혜개가 말한다. 황금빛 얼굴의 고타마는 안하무인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거창하게 내걸더니 겨우 꽃 한송이. 기특이야 하지. 그러나 그때 대중 모두가 웃기라도 했으면 정법안장을 어찌 전했을 것이며, 또 혹 가섭이 웃지 않았더라면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했을까. 정법안장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얼굴 누런 늙은이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 것이 되고, 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유독 가섭에게만 허여했는가.

*송하여 가로되, 꽃을 들어 올렸을 때, 이미 꼬리는 드러난 것. 가섭이 미소짓고 인천(人天)은 어쩔 줄 몰라.

그동안 세존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다. 최초의 법륜에서부터 소승, 대승, 밀교, 정토교까지. 그런데 선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진짜 세존의 가르침은 그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회상(會上)에서 무언(無言)으로 전해졌다." 이 공안은 선의 법문이 불교의 정통권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변호, 혹은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 말씀 아닌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섭(迦葉)이었다. 지혜(智慧)가 뛰어나다는 사리불(舍利佛), 신통이 남달랐다는 목건련(目犍連)을 제치고 두타제일(頭陀第一)의 가섭이 세존의 정법안(正法眼)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정은 선이 논리적 번증이나 초세간적 기적에 대해 냉담한 한편, 수행의 규율을 일상의 삶에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세존이 전한 것의 내용이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고 했다. 이 구절들은 동일한 실재를 여러 각도에서 소묘하고 있다.

1) 정법안장: 세존의 말씀, 그 팔만사천 장광설의 곳간을 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해 선은 삼장에는 없는, 그러나 '진정한 진정한 지혜의 눈'이 담긴 곳간(正法眼藏)이다.

2) 열반묘심: 생사를 떠난 자리, 모든 이분법적 분열이 사라진 자리가 열반이다. 이 말은 욕망의 타는 불이 꺼졌다는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에서 왔다. 그렇다고 이곳을 의지도 정서도 없는 막막한 정신의 풍경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는데, 돌에 피는 꽃처럼, 그렇게 욕망이 차단된 자리에 절대의 움직임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진정한 신비(妙)가 그곳에 있다.

3) 실상무상: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바대로의 표상(相)이 진정한 실재가 아님을 통찰한다면 그때 여래(如來)를 볼 것이다." 여래가 바로 실상(實相)이다. 그것은 지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 보는 일이다. 우리네 일반적 인식은 욕망과 집착에 오염되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같은 징표가 없다. 그래서 무상(無相)이다.

4) 미묘법문: 진리가 미묘하고 신비적이다. 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포착하기 어렵다. 상대적 인식의 표징을 결여하고 있는 소식을 알려주기는 또 얼마나 어렵겠는가. 미묘한 법을 설하는 - 아니 설할 때 이미 상대적 인식의 표징으로 떨어지므로, 설 아닌 설의 - 방편은 당연히 미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미묘법문이다.

5) 불립문자: "꽃 한송이를 들었다." 이 소식을 알겠는가. 선의 법문은 언어를 통하지 않은 단순하고 직절적인 행동이 주조이다. 마지 못해 언어를 통한다 해도 역설과 반의, 모순과 미로 등을 통해 일상적 인식을 두드리는 충격요법을 통해 그 너머의 진실을 알린다.

6) 교외별전: 정법안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교(敎)란 삼장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 가르침 밖에 따로이 전한 그 소식이 바로 교외별전이다. 불립문자와 함께 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일러주는 말이다.

열반의 묘심은 일상적 인식의 징표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니 전할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는 물건이다. 그런데 웬 양두구육,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시다니." 무문은 말한다. 꽃 한송이도 일상적 징표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다. 거창하게 내걸더니 고작 꽃 한송이를 내미시냐. 그 어색한 꽃 한송이는 대자비(大慈悲)의 기특한 일이지만 궁극은 그런 기특한 방편을 넘어서 있다. 고마움과 어긋장의 복합, 무문의 절묘한 억양을 여기서 읽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가섭, 말씀아닌 말씀 들었네"

꽃 한송이 소식 '정법안장 교외별전'

그동안 세존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다. 최초의 법륜에서부터 소승, 대승, 밀교, 정토교까지. 그런데 선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진짜 세존의 가르침은 그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회상(會上)에서 무언(無言)으로 전해졌다." 이 공안은 선의 법문이 불교의 정통권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변호, 혹은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 말씀 아닌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섭(迦葉)이었다. 지혜(智慧)가 뛰어나다는 사리불(舍利佛), 신통이 남달랐다는 목건련(目犍連)을 제치고 두타제일(頭陀第一)의 가섭이 세존의 정법안(正法眼)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정은 선이 논리적 번증이나 초세간적 기적에 대해 냉담한 한편, 수행의 규율을 일상의 삶에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세존이 전한 것의 내용이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고 했다. 이 구절들은 동일한 실재를 여러 각도에서 소묘하고 있다.

1) 정법안장: 세존의 말씀, 그 팔만사천 장광설의 곳간을 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해 선은 삼장에는 없는, 그러나 '진정한 진정한 지혜의 눈'이 담긴 곳간(正法眼藏)이다.

2) 열반묘심: 생사를 떠난 자리, 모든 이분법적 분열이 사라진 자리가 열반이다. 이 말은 욕망의 타는 불이 꺼졌다는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에서 왔다. 그렇다고 이곳을 의지도 정서도 없는 막막한 정신의 풍경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는데, 돌에 피는 꽃처럼, 그렇게 욕망이 차단된 자리에 절대의 움직임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진정한 신비(妙)가 그곳에 있다.

3) 실상무상: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바대로의 표상(相)이 진정한 실재가 아님을 통찰한다면 그때 여래(如來)를 볼 것이다." 여래가 바로 실상(實相)이다. 그것은 지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 보는 일이다. 우리네 일반적 인식은 욕망과 집착에 오염되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같은 징표가 없다. 그래서 무상(無相)이다.

4) 미묘법문: 진리가 미묘하고 신비적이다. 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포착하기 어렵다. 상대적 인식의 표징을 결여하고 있는 소식을 알려주기는 또 얼마나 어렵겠는가. 미묘한 법을 설하는 - 아니 설할 때 이미 상대적 인식의 표징으로 떨어지므로, 설 아닌 설의 - 방편은 당연히 미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미묘법문이다.

5) 불립문자: "꽃 한송이를 들었다." 이 소식을 알겠는가. 선의 법문은 언어를 통하지 않은 단순하고 직절적인 행동이 주조이다. 마지 못해 언어를 통한다 해도 역설과 반의, 모순과 미로 등을 통해 일상적 인식을 두드리는 충격요법을 통해 그 너머의 진실을 알린다.

6) 교외별전: 정법안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교(敎)란 삼장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 가르침 밖에 따로이 전한 그 소식이 바로 교외별전이다. 불립문자와 함께 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일러주는 말이다.

열반의 묘심은 일상적 인식의 징표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니 전할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는 물건이다. 그런데 웬 양두구육,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시다니." 무문은 말한다. 꽃 한송이도 일상적 징표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다. 거창하게 내걸더니 고작 꽃 한송이를 내미시냐. 그 어색한 꽃 한송이는 대자비(大慈悲)의 기특한 일이지만 궁극은 그런 기특한 방편을 넘어서 있다. 고마움과 어긋장의 복합, 무문의 절묘한 억양을 여기서 읽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19〉

부처님 열반이 지닌 네가지 덕

마음으로 깨닫고 이루는 세계

어느 음식점엘 들렀었다. 주인은 오십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였다. 앉아 있는 입구의 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목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인이 분명했다.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예사스럽게 여기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 벽에 족자 한 폭이 문득 눈에 띄었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쓴 불경 구절이었다.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주인을 불러 물었다. 입구의 글귀를 보아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경 구절을 다 걸어놓았냐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그게 불경 말씀이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자기는 너무 뜻이 좋아서 누가 주기에 걸어 놓았을 뿐, 그 내용이 불경에 나오는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래서 주인에게 "'상락아정'은 〈열반경〉이라는 불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으로 불교의 이상세계인 열반이 지닌 네 가지 큰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상덕'은 부처님이 누리시는 열반의 경지는 항상하다 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으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중생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열반의 부처님 세계는 나고 죽음을 벗어나 영원 그 자체입니다. 무상이 아니라 항상이며 유한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둘째로 '락덕'은 열반의 경지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온갖 고통으로 꽉차 있습니다. 생로병사에 따른 고통, 사랑과 미움에서 오는 고통,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는 고통 등 중생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반면 열반은 일체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끊었으므로 고통을 찾아보려해야 찾아볼 수 없고 즐거움만이 가득합니다. 그 즐거움은 육체나 물질 또는 인연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순수 무잡한 참마음, 즉 불성을 활짝 드러내어 얻은 진실의 기쁨입니다.

셋째로 '아덕'은 열반의 경지야말로 참나가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한 점의 거품처럼 있는 것 같지만 허깨비 같습니다. 마치 꾸어다 쓴 물건과도 같아서 이 몸은 언젠가는 땅과 물과 불과 바람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이러한 망념된 몸에 진실한 자기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열반의 몸은 이런 환상과 같은 육체적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열반에 의해 얻어진 참나는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자유자재한 몸으로 형상을 벗어나 온 우주에 충만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넷째로 '정덕'은 열반의 경지는 맑고 깨끗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중생계는 온갖 죄업과 악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투쟁이 있고 증오가 있고 한서림이 있습니다. 아집과 욕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열반의 세계는 참으로 담연하고 청정한지라 안온과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랑스러워서 대립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구름한점 없는 하늘처럼, 투명하고 뚜렷한 곳, 그 곳이 바로 부처님의 열반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감탄하는 말로 아멘 하고 소리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머님이 믿으시는 천국의 상락아정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죽은 후의 저 세상의 것이지만 불교의 상락아정은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허무하고 더러운 중생세상과 영원하고 청정한 부처님 세상이 어떤 장소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에 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고 대답해 주었다.

구원의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평범한 음식점 주인은 불교에 이처럼 자신들 종교 못지 않은 가르침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매우 고마워 하였다. 그때의 저녁공양이 아주 맛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사덕(四德)

常德-영원 그 자체

樂德-즐거움과 기쁨

我德-걸림없는 참나

淨德-맑고 깨끗함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⑰

불교와 수학

⑫

불교와 무한 ①

김 용 운

유한과 무한은 같다… '一卽多 多卽一'

순간은 영원 내포… 복제인간도 한 예

석가모니는 B·C. 566년에서 486년까지 생존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중생에게 헤아릴 수 없는 먼 전생의 인연을 깨닫게 하고 오늘날의 나의 깨달음이 먼 미래에까지 세계가 불국토(불교적인 좋은 세상)가 되도록 하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법화경〉의 전생불, 미래불의 사상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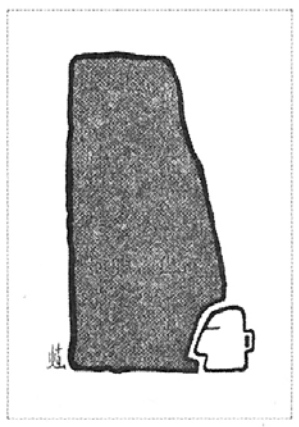
인간의 수명은 유한이다. 그러나 전생과 후생의 인연의 얽힘 속에 무한을 산다. 불교의 대오(大悟), 유교의 안심입명(安心立命),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은 한결같이 유한의 인간이 무한의 생명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됨을 말한다.

아무리 미세한 곤충도 무한의 생명 연쇄 속에 하나의 고리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한을 의식하지 못한 채 순간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산다'는 것은 의식하는 일이다. 인간은 무한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의식하므로써 무한을 산다.

〈화엄경〉에서는 대담하게 '인간은 태아의 입자이다'라고 선언한다. 인간은 태양(생명의 원천)빛의 입자와 같이 생명의 씨를 안고, 저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성(佛性)을 지닌다.

불성이란 무한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의 생명을 무한 세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지혜이다. 그러기에 악인은 없으며 중생(민중) 모두가 정진을 거듭하므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 자성을 갖춘 인간은 직관적으로 무한을 엿볼 수 있다.

영국의 18세기 신비주의 시인인 브레이크(W. Blake)도 그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꽃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의 무한은
일각에서부터 영겁(永劫)의 시간을 파악한다.

아무리 작은 한 알의 모래알도 세계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다.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한 요인이다. 한 송이의 꽃을 피게 하는 인연의 고리를 다들어 무거운 생명 의지를 느낀다. 공간적으로 손바닥이 무한 세계에 대응하고 일순간에 영겁의 시간이 대응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화엄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로 나타내고 있다.

'일회(一會)에 세계가 충만하다'
'일(一)에 무량(無量)의 세계가 있다'
'일모공(一毛孔)에 대세계가 있다'
'일중생(一衆生)에 광대한 여래(如來)의 지혜가 있다'
'한순간에 영원이 내포된다'
'일(一)에 세계해(世界海)가 들어 있다'

극미의 세계와 대우주, 한 순간과 영겁의 시간이 대응한다.

불교에는 이와 같이 얼핏 상식의 세계에서는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이 많다. 유한과 무한의 같음은 분명히 상식에 벗어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분명히 현대 수학의 무한 논리와 일치하고 있다.

현대 수학은 '무한의 과학'이라고도 한다. 현대 수학의 부분과 전체의 같음을 말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이 사실을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로 표시한다.

불교가 마음의 무한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이 주제를 갖고 여러모로 씨름해 왔다면 현대 수학은 19세기 말 무한의 특성이 전체와 부분이 같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실제로 한 가지씩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내고 있다.

클로닝(cloining, 복제 인간)도 그 한 예이다. 인간의 피부 세포 하나만 있으면, 나뭇가지를 심어 새 나무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돌아켜보면 복제 인간의 가능성도 이미 '무한과 유한'의 일체성에서 감지되어 왔던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최고의 신비로운 영약

長腦山蔘

보은의 선물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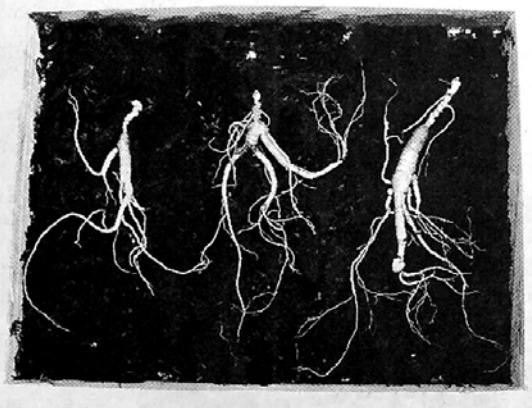
홍천임업협동조합원으로 부터 공급받아 10~30年根 수량제한 한정판매!!

장 뇌 산 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參입니다.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예로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전해 내려온 산삼은 원기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므로 고혈압, 당뇨, 간, 심장병, 암등 성인병에 좋습니다."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관심은 있으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원 생산품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건강과 성불을 발원하옵고 가내 화평하시길 빕니다. 힘들고 지친심신을 최상품 산삼으로 기력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뇌산삼사업부

☎ (02)207-8387
(0346)591-3989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임업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터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원빌딩3층
전화 : (02)733-3900

불교소재 광고 왜 뜨나



◇(주)옥시의 노란옥시 세제광고. 걸레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중광스님을 등장시켜 타회사 제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바구니스님의 두통을 모티브로 삼은 한국로슈의 사리돈 광고.

삶의 메시지 엿볼수 있다

구도 엿보기 '흥미 유발'… 편견 조장 우려도

걸레스님-세제 '신선'… 스님-진통제 '거부감'

누더누더 기운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중광스님. 일필휘지 내갈기는 붓놀림 끝에 그림을 완성한 후 "나는 걸레다"며 참선에 몰두한다. 진지하게 참선에 들어간 스님 옆으로 '걸레 중광'이란 자막이 커다랗게 떠 오른다. 그 뒷켠에서는 동자승이 걸레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다. 힘들게 일하는 동자승을 보다 못한 스님은 "이 세상 지저분한 걸레는 노란 것으로 빠는 거다"라고 충고를 하며 직접 걸레를 들고 신나게 바닥을 닦는다. 청소를 마친 중광스님은 "이래도 내가 걸레냐"며 화두아닌 화두를 시청자들에게 던진다.

중광스님 특유의 개성이 발휘된 이 광고는 5월 초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주)옥시의 '노란 옥시크린' 세제선전. 중광스님을 등장시킨 이 광고로 제작사측은 일단 같은 류의 타사제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셈이다. "걸레라는 별칭이 걸레전용세척제라는 상품성과 잘 맞아 중광스님을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는 것이 제작사 대홍기획의 제작의도.

불교 소재의 광고는 단순한 상품광고 수준에서 한차원 뛰어넘는다. 우리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평범한 진리와 삶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면이 다른 광고와의 차별을 가져 온다. '노란 옥시크린' 광고에서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옛 조사들이 평범한 일상사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장면을 연상한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때까지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된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광고. 광고는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상품과 이미지를 사고 파는 메신저역할을 한다. 브랜드의 강한 인지는 그대로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광고계의 혈투는 신성한 종교의 벽도 허물고 있다. 불교소재의 광고 뿐만 아니라 가톨릭 등의 성직자가 나오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종교를 컨셉으로 잡은 광고는 그 이미지의 파격이나 신선함으로 대중에게 어필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업체 베네통은 흑인 수녀와 백인신부를 등장시킨 파격적인 광고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성의류 '비-아트'는 태국의 이색적인 풍경과 어린 수행승들을 배경으로 해 비-아트 의류의 고혹적인 멋을 한층 돋구었다.

한국 로슈의 두통약 '사리돈'광고에는 비구니스님이 등장한다. 가부좌를 틀고 참선중인 비구니스님에게도 두통이 찾아오고 사리돈이 스님의 두통을 해결한다는 아이러니컬하면서도 흥미있는 내용이 포인트다. 실제 스님이 출연한 것은 아니지만 파르라니 삭발한 모델의 모습이 단연 눈길을 끈다.

이전에 방송됐던 광고 중에도 불교적인 소재와 사상을 내포했던 광고들이 종종 있었다. 티벳스님을 모델로 히말라야 오지에까지 정보통신세계를 구축한다는 IBM 컴퓨터 광고. 가구를 만드는 장인정신은 팔만대장경 장인혼을 이어받은 것임을 강조한 노송가구. 단아하고 고요한 산사의 모습을 통해 소음없는 청소기의 기능을 부각시켰던 대우 청소기 등은 불교적 이미지를 자사의 제품이미지와 연결시켜 제작된 광고들이다.

이밖에 노스님과 같이 참선중인 동자승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몰래 과자를 먹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오리온 다이제스티브 광고나 참선하는 대중스님들과 핸드폰에 얽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핸드폰 시티맨 광고는 독특한 유머까지 가미해 호평을 얻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끌었던 광고는 단연 핸드폰 시티맨 광고. 참선하는 한 스님이 수마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자 노스님이 죽비로 내리친다. 그 때 정적을 깨트리며 울리는 노스님의 핸드폰. 당황하는 노스님을 도우려고 동자승이 재치있고 순발력 넘치게 목탁을 친다. 이같은 상황연출을 통해 스님에게도 핸드폰은 필수품임을 넌지시 암시해 준다. 금강기획이 제작한 이 광고는 95년말 런던 필름페스티발과 뉴욕필름페스티발 등 국제광고제에서 본선까지 오르는 등 수준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불교 소재 광고가 제작사측의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업성에만 치우쳐 불교계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의 '잠잠' 청소기 광고. 수행자가 염주알로 파리를 잡는 장면설정 때문에 불교계의 항의를 받아 공중과 방영이 좌절됐다. 또 동부화재의 일간지광고 속의 알몸 여인도 삭발한 여인이라는 점이 비구니스님을 연상시켜 물의를 빚고 중도 하차했다.

불교 소재 광고가 늘어나는 것은 불교가 그만큼 대중과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불교는 흔들리지 않는 구도자의 모습을 높이 산다. 그러나 광고에서 구도자가 두통을 약으로 해결한다던가 시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염주알로 살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불교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종교소재 광고에 대해 유창조 교수(동국대 광고학과)는 "일반 광고에 종교인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광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불자들은 광고에 스님이 나오면 한번이라도 더 유심히 볼 것이다. 반면 남의 종교인이 나오는 광고는 무조건 거부감을 일으키는 성향도 무시 못할 것이다. 특정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점이 종교색을 띤 광고의 약점이기도 하다.

불교 소재가 담긴 광고를 보는 불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한참 시선을 모으고 있는 중광스님의 세제광고는 불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광스님의 코믹스러운 모습이 경소 스님의 기행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리돈 광고에 대해선 "스님이 두통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다니…"하는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종교를 소재로 한 광고의 장점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제품이미지와 연관지어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면면히 흐르내려온 우리 정서 속에 녹아 있는 불교적인 성향으로 인해 불교 소재 광고는 개발 여하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불교가 광고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화, 흡수, 표현되느냐가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강지연 기자



◇핸드폰 시티맨 광고는 좌선중인 스님을 배경으로 독특한 유머를 가미해 각종 국제광고대회 본선까지 진출했다.



◇대사 한마디 없이도 이미지 전달에 성공한 오리온 다이제스티브 광고의 한 장면.



◇삼성전자의 잠잠 청소기 광고. 소음이 없다는 제품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염주알로 파리를 잡는 무리한 장면 설정을 했다. 불교에 대한 인식부족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방영을 못하고 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 · 티 · 에프 포서대학교 포서전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直) 02)737-8881(代)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쌍요품(雙要品) ②

不好責彼 불호책피
務自省身 무자성신
如有知此 여유지차
永滅無患 영멸무환

남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힘써 제 몸을 살펴라
이것을 잘 알기만 하면
영원히 번뇌사라져 근심 없으리라

行見身淨 행견신정
不攝諸根 불섭제근
飮食不節 음식부절
慢墮怯弱 만타겁약
爲邪所制위사소제
如風靡草여풍미초

이 몸을 깨끗한 것으로 보아
육근을 제대로 다잡지 않으며
먹고 마심에 절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삿됨에 억눌리게 된다
바람에 풀이 휩쓸리듯이

觀身不淨 관신부정
能攝諸根 능섭제근
食知節度 식지절도
常樂精進 상락정진

계율의 뜻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마음을 항복 받아 스스로 조절하면
이는 법의 입기에 알맞는다

以眞爲僞 이진위위
以僞爲眞 이위위진
是爲邪計 시위사계
不得眞利 부득진리

참인 것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참이라 하면
이는 삿된 계교이라
끝내 참이익을 얻지 못한다

知眞爲眞 지진위진
見僞知僞 견위지위
是爲正計 시위정계
必得眞利 필득진리

참을 알아 참으로 삼고
거짓을 보고 거짓인줄 알면
이는 바른 견해이라
반드시 참이익을 얻으리라

蓋屋不密 개옥불밀
天雨則漏 천우즉루
意不惟行 의불유행
淫泆爲穿 음일워천

지붕잇기를 성글게 하면

지붕 촘촘히 이으면 비 새지 않듯
마음 다잡으면 탐욕 넘치지 않네

不爲邪動 불위사동
如風大山 여풍대산

사람의 몸을 부정하다고 보아
능히 육근을 잘 조섭하여
먹고 마심에 절제할 줄 알고
항상 쉼없는 공부를 즐기면
삿됨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바람 앞에 큰 산이 막아선듯이

不吐毒態 불토독태
慾心颰騁 욕심치빙
未能自調 미능자조
不應法衣 불응법의

마음의 독한 태도 내뱉지 않고
욕심따라 뒤좇아 치달으면서
스스로를 잘 조섭하지 못하면
법의에 맞지 않는 것이다

能吐毒態 능토독태
戒意安靜 계의안정
降心已調 항심기조
此應法衣 차응법의

마음의 독을 능히 토해내고

비가올때 곧 새게된다
마음 씀씀이를 조심스레 하지 않으면
탐욕이 넘쳐 구멍이 뚫린다

蓋屋善密 개옥선밀
雨則不漏 우즉불루
攝意惟行 섭의유행
淫泆不生 음일불생

지붕 잇기를 촘촘히 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다
마음을 다잡아 생각하고 행하면
탐욕은 넘쳐 나질 않는다

鄙夫染人 비부염인
如近臭物 여근취물
漸迷習非 점미습비
不覺成惡 부각성악

마음이 비루한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내는 물건을 가까이 한 것같아
점차로 미혹하여 비법을 익히고
마지 못하는 사이에 악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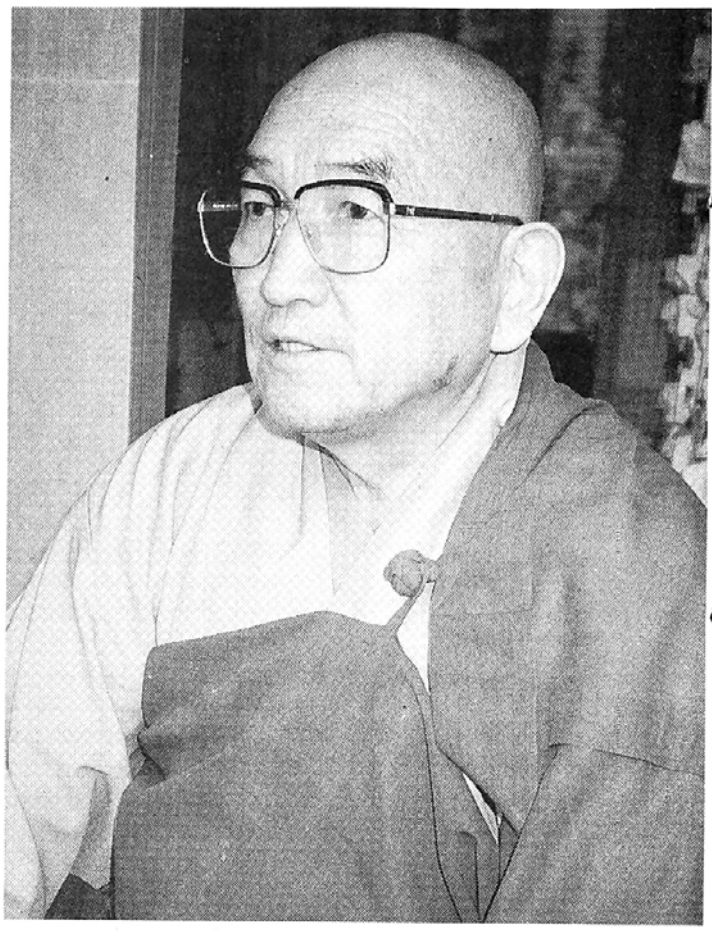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법흥스님 〈조계총림 동당〉

싯달타가 사문유관후 출가한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사문유관합니다 이웃보면 내모습 알수 있으니까요



내 속명이 주흥(柱興)입니다. 어릴 때 나이많은 분들이 빨리 부르다 보면 '중아' 라고 들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중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리웠나 봅니다. 내가 대학교(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나서 출가했지만 어릴때부터 불교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김용사 강사로 계셨어요. 한학자였던 아버지께서는 몸이 약해 수양을 위해 늘 절에 가 계셨고, 집에서도 평소 〈반야심경〉을 독송하곤 하셨습니다. 어릴때 아버지가 외우시던 〈반야심경〉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속가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지주였는데 흉년이나 수해 들면 기민(飢民)을 많이 했어요. 3대 적선해야 중이 하나 난다는데 내가 스님이 된 것은 불교를 신봉했던 집안 덕분인가 합니다. 나도 어릴때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절에만 가면 부처님께 절을 꾸벅꾸벅 하곤 했어요.

6.25 전쟁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인민군을 만나 의용군으로 끌려갈 위기도 몇번 맞닥뜨렸지요. 그러나 우리 집이 마을사람들에게 적선을 많이 해 덕을 쌓아서인지 마을사람들이 감싸주고 늘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위기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청주에서 중학교 다닐때도 학교 갈 때 관세음보살, 올 때 관세음보살을 늘 염송했어요. 고려대 근처에 개운사가 있어요. 학교문 들어가며 개운사 향해 절하고, 나올 때 절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젊은 사람이 무슨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흉보더라고요. 시내 다니다가도 절만 보이면 들어가서 절했어요.

1959년에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어요. 효봉스님 권속들이 날 효봉스님에게 데려가자 스님이 대뜸 "어허, 얼굴이 중 상(像)인데 어째 이제까지 속가에 있었느냐" 하십디다. 또 생년월일을 물으시더군요. 신미생 유월입니다 했더니, "옳다 됐다. 신미생 유월달이면 사주에 불도(佛道)가 들었다"고 하시면서 쾌히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곳에 다녔고 많은 스님들을 만나 보았지만 효봉스님만한 대 근기가 없습니다. 스님은 "중이 됐으면 참선해야지 이 길밖에 더 있냐. 강사(講師)가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 하셨어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고 바로 외봤자 생사해탈 하느냐, 기도와 주력은 모두 제 욕심때문에 한다, 수좌는 모름지기 화두를 들어야 한다, 참선하다 죽으면 절대 지옥가지 않으니 힘써 정진하라,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계정혜 3학을 닦아서 계행을 청정히 지키는데서 정력(定力)이 생기고 정(定)중에 지혜가 밝아져서 상생(上生)할텐데 계정혜 3학을 닦아서 생사해탈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효봉스님은 워낙 원만하고 대인이라 남이 다투는 것을 보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또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초가 탈 때 생기는 촛농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어요. 긁어서 모아 접시에 담아 심지를 박아 불을 밝힙니다. 걸레도 너무 짜면 떨어진다고 꼭 짜지 말라고 하셨지요.

불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절을 많이 짓고 법문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고불고조사가 다 말씀하시길 정혜쌍수 되지 않으면 죽을 때 생사해탈되지 않는다. 그 스님이 아무리 이름이 나고 큰스님이라도 마지막의 열반성정을 보아야 한다. 근래에 열반성정은 방한암스님이 가장 낫다"고 늘 말씀 하셨지요.

서산스님의 〈선가구감〉에도 이렇게 가르치셨죠.

총명한 지혜가 업의 힘을 능히 막을 수 없고 마른 지혜만 갖고는 윤회의 고통을 면할 수 없다. 말을 잘 지껄이거나 설법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길해도 경계에 부닥치면 탁 막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사가 없는 이치를 알더라도 공부가 덜 되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허스님도 문자만 깨달아서는 생사해탈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송광사 수련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내가 〈법구경〉을 강의하는데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고 예술인은 예술의 미를 창조하고 정치가는 정치하고 다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이런 일상사만 갖고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모르고 무지의 일생을 살게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깨쳐야 생사의 근원을 알게되고 선악의 근본을 알게되고 고(苦)와 낙(樂)이 없어져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생사가 해탈되어 영원히 사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요새는 서양인들도 절에 와 참선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세기 들어 인류가 서로 경쟁하듯이 발명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핵무기로 인해 전율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자꾸 핵무기같은 것을 발명해

- 약 력
- 31년 충북 괴산 生
- 58년 고려대 국문과 졸
-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 74~77년 송광사 주지 역임
- 80~81년 불교정화중흥회의 사무총장
-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망월사 김용사 묘관음사 등 제방선원 안거
- 저서 〈禪의 세계〉 〈戒律綱要〉 등
- 현재 송광사 화엄전에 주석

"부부·형제·이웃·동족은 몇천겁 인연의 결과이니 서로돕고 사는것은 당연지사"

생활 속의 불교 (125)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한 생각의 힘

"마음 도리를 모르면 백 보를 뛰어도 종종걸음에 불과하고 이 도리를 알면 앉은 자리에서 한생각에 천만리를 드나들 수 있다.

마음이 주인이자 부처이므로 한생각 일으키면 문수요 움직이면 보현인 것이니 한마음 자리에서는 부처·문수·보현이 따로 없다.

한생각이 곧 법이라 마음의 중심을 쥐고 한 생각 낼 때는 우주법계가 들썩들썩하는 이치가 있다. 마음 도리를 알면 우주 방방곡곡이 내 앉은 방석이라 손 발이 두루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저 하늘 어디 머나먼 별이 우주의 중심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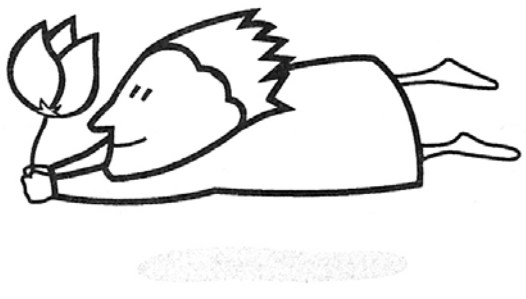
아니, 중심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이다.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 불가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한다. 전체와 하나는 둘이 아니라고 한다. 바닷물을 다 마셔보지 않고 단 한방울로도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

형상으로 보면 나와 우주가 같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도리에서 보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자 우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고로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해도 몸이 아닌 마음으로는 앉은 방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내 마음 안에 다 집어넣고도 빈 자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 세계에서 형상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커도 다 안을 수 있고 아무리 작아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역시 거리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멀다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가깝다고 더 빠르지도 않다. 그냥 찰나 간에 다 포섭할 수가 있다.

그러니 어찌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를 말하겠는가. 다만 한생각 일어나는 그 찰나에 두루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할 뿐이다. 그것도 빛보다 빠르게, 그리고 굳이 시간으로 말한다면 동시에 우주 구석구석까지 한생각의 파동을 전한다고 말해진다.

둥근 공의 표면에 아무데고 한 점을 찍어보자. 그 점으로부터 공의 표면을 따라 사방 아무 방향으로든 선을 그으면 그 거리는 언제나 같다. 그와같이 나는 언제나 우주의 중심점이 된다.



또 우주는 내가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 본질에 있어서는 그림자같고 물거품 같은 세계이지만 우주는 나의 인식세계에서 내가 인식하는 동안에만 하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내가 눈을 감으면 우주는 사라진다. 내가 없다면 우주는 다 무엇이겠는가. 고로 나는 우주의 중심점이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인다. 그 파동은 수면을 타고 호수 전체로 퍼져 나간다. 돌이 떨어진 그 자리가 파문의 중심점이다.

나의 한 생각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우주 법계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 파동은 나를 중심점으로하여 전 법계로 퍼져간다. 찰나에 빛보다 빠르게 전개된다. 내 한 생각에 우주가 들썩거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 우주를 떠받친다고 한다. 내 한생각이 그대로 법이라고 한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요 내가 곧 우주의 주인임을 믿는가. 아니면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일찍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치셨다. 내가 곧 중심이요 내가 곧 주인임을 설하신 것이다. 내 한 생각이 곧 법이요 내 한생각의 힘이 우주를 들썩거리게 한다는 법문을 하신 것이다.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중심임을 갈파하셨고 땅을 가리키며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셨다.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이 육신에 갇힌 왜소한 존재로 생각하고 만다. 믿음이 약한 탓이다. 마음의 도리, 마음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임을 믿지 못하면 고작 하인 노릇밖에 할 게 없다. 경계에 짓눌리고 운명에 끌려다니는 종 노릇밖에 못한다.

한 생각이 곧 법임을 믿지 못하면 기껏해야 남에게 의지하고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내가 주인임을 굳게 믿자. 내가 중심임을 굳게 믿자. 그러면 나의 한생각은 바윗돌처럼 우주라는 호수에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협찬 : 유화순

큰 스님 수행한 담

영원히 사는 이치얻어요"



◇ 1965년 (음) 5월 28일 효봉스님(가운데) 생신날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효봉스님은 촛농을 귀어 접시에 담고 심지를 박아 불을 밝혔고, 걸레도 꼭 짜면 빨리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근검절약했다. 효봉스님 바로 뒤가 법흥스님이다.

인류는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물질과 도덕의 부조화가 원인
해결책은 오직하나 불교의 지혜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를 개발해서야 되겠느냐 반성이 나오고 이제는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하는 위기론이 대두됐지만 서양의 물질문명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 것이지요. 동양의 정신문화로 해야 하는데 동양의 정신문화는 유불선(儒佛仙) 3교인데 그중 불교가 가장 심오하고 진리가 깊어요. 그래서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30여년전 일본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물질의 힘과 정신적 도덕의 부조화가 현대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차원적인 종교의 힘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서양에서 실존철학이 나온 것도 자기네 문명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노예가 되고 종속됐기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지요. 실존철학은 불안의 철학이고 위기의 철학이고 초월의 철학이고 반역의 철학으로 비본래적인 것에서 본래적인 나를 찾자는 철학으로 20세기 사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은 의심입니다. 의심을 한군데로 집중하다보면 번뇌가 끊어집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간고를 해탈해 자력으로 피안에 도달하려는 것이지요. 불교는 생멸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종교입니다.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것을 존중하고 자력으로 피안에 이르는 종교지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실존자가 내 마음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치며 객관세계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자기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지 남을 의지하거나 남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지요. 자작자수(自作自授)- 인간 스스로가 지어 인간 스스로가 지옥 천당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불교가 생겨난 바탕도 곰곰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싯달타태자가 사문유관후 출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싯달타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늘 사문유관을 하는 셈입니다. 앞에 가는 등이 굽고 주름이 깊은 할머니를 보면 그것이 내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옆집에 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은 우리집에도 닥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육신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써 부모의 인연속에 태어나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숙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것, 언제 죽을지 모르며 지금 곧 죽을 지도 모른다는 것. 나라는 존재는 영구히 살 것같은 느낌이지만 풀잎과도 같은 인생이지요. 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가아(假我)입니다. 실아(實我)는 무어냐, 마음이고 넋이고 정신이고 육체를 끌고다니는 주인공입니다. 육신은 나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청정한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입니다. 해인사에 가면 일주문에 함허스님의 〈금강경오가해〉에 나오는 설법구절이 있어요. '청정한 이 마음자리는 천겁을 지내도 옛이 아니고 만세를 뻗쳐도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멸이 원래 없는 것이다'라고요.

모든 법은 인연을 좇아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멸하니 우리 인생은 부모인연속에 생겨 살아있으면서 일초일초 시간이 감에 따라 죽음으로 접근하고 있지요. 현실에서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또 부단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며 모순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죽음에서 단절되고 맙니다.

싯달타태자는 설산에서 6년동안 고행해서 드디어 우주만상 진리를 깨닫게 되자 첫 일성이 "인간의 자성(自性)은 청정한 것이고 청정한 자성은 만고에 불멸이다"고 선언하셨어요. '멸도'라는 것도 싯달타태자의 마음가운데 불타고 있던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견성도 싯달타태자가 부처가 되어 본래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고 정각도 싯달타가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또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생에 8천겁 인연이라야 금생에 부부가 되고, 9천겁 인연이면 금생에 형제간으로 태어나고 10천겁 인연이면 모자나 부녀간이라는 혈육의 인연이 되고, 7천겁 인연이면 한집안 식구로 태어나고, 1천겁 인연이면 한 나라에 태어나고 6천겁 인연이면 베개를 맞대고 하룻밤 잘 수 있고 한마을에 사는 인연은 5천겁 인연입니다.

이렇게 지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이들에게 냉혹하게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때 서로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 오는데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냐고요. 마음이란 형상과 모양과 빛깔과 무게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의 명령에 움직이게 마련이라 그 작용따라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요.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청정한 마음, 광명정대한 마음 일월같고 청풍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임제스님은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지요.

두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부처님에 대해, 국가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그리고 중생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번째는 용맹심이 중요합니다. 효봉스님이 38세에 늦깎이로 출가하자마자 금강산 신계사에서 8년동안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으로 도를 깨치셨지요. 한번 용맹정진하면 어찌나 움직이지 않았는지 한번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엉덩이에 좌복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엉덩이가 짓물렀는지도 모르고 화두일념으로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한 용맹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맨날 피동적으로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항상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도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것이지요.

내가 제자들에게 늘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계정혜 삼학을 잘 닦아 늘 청정히 수행하고 계율을 생명같이 여기라는 것이지요. 계율을 지키면 지혜가 밝아지지요. 또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내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으라고 강조합니다. 제자들 뿐 아니라 참선선방 수좌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40에 득력(得力)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득력이란 일체 선악 시비에 내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득력을 못하고 일평생 부처님밥만 축내지 않은가 경계해야 합니다. 또 독살이를 하지말라고 합니다. 다생겁에 익힌 습기가 사람이건 짐승이건 남의 눈이 보지 않으면 욕(慾)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계(破戒)는 파기(破器)입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퍼부어봤자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계율을 어기면 결코 성불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파계는 깨진 그릇" 계 어기면 성불 못해
"청정·감사·용맹심으로 정진합시다"

생활 禪에 대해 일러 주세요

문 불법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 보고 나름대로 수행도 해 보았습니다.

생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원중·충남 천안시 광덕면〉

답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니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찰나 찰나에 우주의 진리 속에서 시공을 초월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행선(行禪)이자 과학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찰나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시공을 넘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을 때 나가 했다고 하겠느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찰나 찰나 돌아가니까 꼭 집어서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냥 공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질 않겠습니까? 그러니 생활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 선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잠자고 밥먹고 움직이는게 다 선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 하는 것은 모두가 공했다!, 그래서 주인공!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것은 참선이고 저것은 행선이다라고 할 것없이 주인공에 다가 일임하면 그대로 여여하면서 참선도 되고 행선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상 속에서 일하고 밥먹고 똥누면서 행선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것이지요. '나'라고 고정할게 없으며 찰나 찰나에, 전체가 공하여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괴로운 일 외로운 일, 고달프든 즐겁든 그 모두가 찰나 찰나에 돌고 돌면서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나온곳에 되놓고는 걸림없이 여여히 걸어가시란 말입니다. 그게 더할 나위 없는 생활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놓아버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연방 돌아가는 맷돌에 연방 되넣지 않고서 무엇이 갈아져 나오겠습니까? 괴롭다고 붙잡고 매달리고 좋다고 놓지 않으려 한다면 연방 돌아가는 맷돌이 빈 맷돌이 될게 아닙니까?

나는 공이다, 그러니 내가 했다고 할게 없다, 모든게 내가 있음으로써 비롯되는 것이지만 찰나에도 고정된 것은 없다,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슬프든 괴롭든 그것까지도 놓고 돌아가는 거기에 놓고 맡기자, 이렇게 하신다면 맷돌에 콩이 갈려 나오듯이 업장도 녹아진다 이겁니다. 그게 생활선이고 와선이고 입선이고 좌선입니다.

누구나 '나'라는 이 거죽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면 부처님의 속내도 알게 됩니다. 생활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큰 회사의 공장장을 한다는 분이 찾아와서 곧 파업이 일어날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인공 있잖아!'하고 말입니다.

주인공이란 꼭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체(體)가 없는 마음 전체이기에 수만명이라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인공! 할 때는 바로 우주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전체와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다해도 같이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실적도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심으로 공생 공용하고 공식하는 공체로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돌아가는 줄로 알뿐 아니라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갈라 놓습니다. 기독교다 불교다 가톨릭이다 하고 편가르기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폭을 더 넓혀서 너와 내가 같이 돌아가고 좀 더 넓혀서는 모든 인간,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고 해 보십시오. 우주 전체가 인간 마음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만 근본이 결부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믿고 마음공부를 해나가시는 분은 봄 소식을 들겠다고 산 넘어 먼 데로 찾아다닐 것도 없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으려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나 앉은 자리가 법당이고 내 생활이 참선인 줄 아실 겁니다.

그렇게만 되신다면 문자 그대로 자유인이고 그런 생활이라면 그렇게 쫓을 수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옛날 육조스님께서 자성이 본래 청정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다는데 '아,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몸이 내 몸이니 어찌 거룩하다고 말로 하리까!'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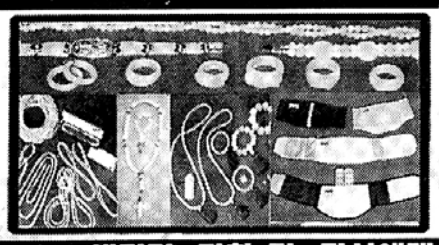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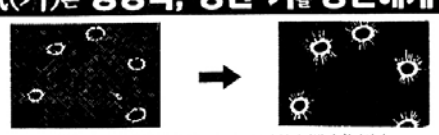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민을 복찜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도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아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학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수무백病에 신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원장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法名 이 영 숙



'이자임결혼연구원'을
「현대정보결혼연구원」으로
명칭을 새롭게 改名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새로운 각오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자임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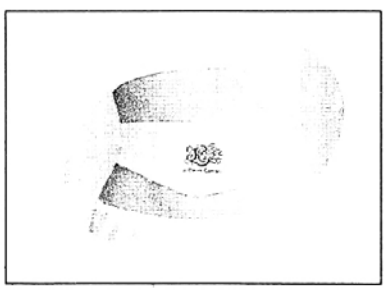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추 억

얼마전 무욕도에 나타난 뜻밖의 앵무새는 그 뒤로 다시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그 새는 한 쌍도 아닌 수컷 한마리였다.

그 흠아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남겨놓고 다시 육지 쪽으로 떠났던 것이다. 도무지 생시의 일 같지 않았다.

우녀는 그때 그 새의 직전(直前) 전생은 두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무욕도와 인연이 있는 어떤 생명이었을까? 수행하던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 다른 종류의 중생이었을까? 아니 그 새의 유창한 음악적인 말투로 보아 직전은 아니지만 전전생의 시인 임춘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임춘의 후신이었던 김종무, 그러니까 불이스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 앵무새가 전혀 기억에도 없게된 지금 다시 섬의 아래쪽 늙은 소나무의 가지에 숨은듯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우녀는 그 새의 꼬리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하고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져 있었다.

바다는 원일로 잠잠하였다. 마치 야당수(夜塘水)인 것처럼.

물고기기 이미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른 뒤의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밤의 물기슭이 그것이거니와 그것은 진여가 없는 연구(緣句)의 겉껍데기에 집착함을 비유함이기도 하다.

그런 어두운 바다의 기나긴 고요를 그 새는 밤새도록 내린 푸짐한 이슬에도 젖을줄 모르는 깃털을 이따금씩 치켜세워 바람을 들이고 있었다.

앵무새의 부리는 열리지 않았다. 숫제 벙어리라도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새는 고즈넉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인간. 인간세계. 인간이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 이외의 것인가.

아마도 그런 것을 마치 먹이를 먹고 난 뒤 충분히 소화시키는 내장 속의 과정과 그 새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에 차 있으면서 굳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성 부른다.

저 욕계, 6천 도리천의 제석천 궁전 위에 친 하늘 그물인 인다라망(因陀羅網)이라도 내려와 그런 어둠 속의 조용한 앵무새소리를 뒤덮을 것인가. 그것이 이슬이겠는가.

"아무튼 이 섬에 나 혼자 있지 않게 됐으니… 저 새도 내 도반이지"라고 우녀는 입안에 덜 씹은 것을 씹는 것 같은 중얼거림을 담고 그의 바위굴로 들어갔다.

우녀는 밤 입정(入定)을 하지 않고 앞 구리를 밑으로 누워서 곧 잠들었다. 꿈도 들어오는 일이 없다.



넓은 바다 나무토막 띄워주니
밤과도에 떠다니는 눈먼 거북 만나리
(曾向滄溟下浮木
夜潭相共接盲龜)

이런 우녀의 잠과는 달리 밤새도록 앵무새는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눈을 감지 않고 있었다.

그 새는 저혼자 몸 속의 여러 내장이 점점 비어감에 따라 출출해지는 동안을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메웠다.

"흐음… 인간이란 족속은 인간을 잘 안다고 장담하겠지. 아니 섬부주에서만 사는 인간은 섬부주 인간에만 낯설지 않고 있겠지."

"… 섬부주 인간 말고 승신주 우화주 구로주 인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인간세계의 여러 종류도 끝내는 그 인간계의 생사를 거쳐 하늘이나 땅속의 지옥과 아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등의 중생으로 태어나 그 세상의 업고(業苦)로부터 조금도 피할 수 없게 되었지…."

"그런데 섬주부 인간만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진실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인간계가 흑인종 황인종 홍인종 백인종 따위 피부색 분류말고도 수많은 인간의 종류로 나뉘어져 그것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의 삼라만상이거늘… 어찌 안다 하겠는가. 어디 그것만인가. 인간의 내면 깊숙히 박혀있는 여러 현상들이나 앞으로 있게 될 현상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문자답도 될 수 없는 독백의 생각을 그 앵무새는 밤새도록 이어가고 있었다.

"아 제발덕분 지옥에나 떨어지자꾸나. 이 천상을 떠날 바에는 차라리 무간지옥에 떨어져 이제까지 누린 즐거움과는 전혀 반대인 끝없는 괴로움 속에 갇혀버리자꾸나. 아아… 아아."

만화는 그 동료의 가지막에서 그 자신의 마지막을 보고 있었다. 그도 언젠가는 지금 천상을 다함으로써 어디론가 가야하는 동료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천인의 다섯가지 쇠망(五衰亡)에 의한 시드는 꽃과 더러운 몸, 빛을 잃어버리는 일 따위를 치루어내다가 그 하늘나라를 끝장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동료는 유난히 천상계의 욕정에 깊이 빠져 있었다. 천상계에는 환희원이라는 유흥장이 있어 그곳에서 천인 남녀들은 욕망의 불을 잠재우지 못하는 환희로 세월을 보내는데 바로 거기에서 앞장섰던 자가 바로 그 동료였다.

그는 늘 말하였다.

"나는 다음에 도리천의 여섯살, 야마천의 일곱살, 도솔천 여덟살, 타화자재천 아홉살의 아이로 태어나서 빨리 자라나 야마천에서의 포옹 한번으로 무지막지한 음락을 누리고 싶어. 아니 서로 웃음만 나누어도 음락의 절정에 도달하는 곳에 태어나고 싶어.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 하늘도 있다니… 그런 곳 두루두루 태어나고 싶어…."

마침내 만화는 동료가 마지막 오열을 남긴 채 그동안 살던 하늘을 떠나버린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되었다. 동료가 있던 그 즐거움 가득한 방에는 안개 비슷한 것이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져 텅 비었다.

그나마 하현달이 빈 하늘에 남아서 그런 새 한 마리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경멸을 돕고 있었다. 달빛이야말로 그런 생각처럼 하염없었다.

바로 그 무렵 천상계에서 다시 머물러 있는 만화는 그의 동료 가운데서 우화주 인간계에서 올라온, 알소리가 항상 황소울음처럼 우렁찬 천인이 있었는데 그의 천인 생명이 다할 무렵이 되어 우울한 날을 보내는 것에 동정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의 탄식을 들어주고 있는 것 밖에는 다른 도움은 줄 수 없었다.

"… 아 이제 내 천인노릇은 다하였도다. 이제 천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이 한 목숨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지 말라고 누가 말하였던가. 아무리 태어나지 않으려 해도 태어나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늘…."

"그렇게도 나를 따르던 아리따운 천녀들은 이제 나를 시든 잡초처럼 내버리는구나… 아 그렇게도 행복했던 이 선견성(善見城) 자체가 나에게는 없어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구나."

"저 잡림원(雜林苑)의 환락이 넘치는 잔치에 이제는 내가 끼어들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실컷 마실 수 있는 내 층류의 천상 감로(천상주)도 이제 내 입에서 멀어졌구나."

"천상의 다섯가지 음악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도 남의 것이 되어 이미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구나…."

보살이 된 합두와 불이의 대화는 청정하고 영롱한 음악 같았다
"아니 이 분이 누구신가 … 무전보살님"

바로 그 무렵 저 섬부주 돈황의 암굴에 있던 불이와 합두는 어느덧 그들의 오랜 수행이 쌓은 공덕으로 보살을 이루어 불이보살 합두보살로 여섯 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나타나 그 중생들의 괴로움 속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둘로 짝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면서 중생들을 위한 위로와 구제에 대하여 오래동안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실로 아름다웠다. 그 대화의 내용이 듣기에 따라 별다른 것이 아님에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자의 보살행에 있다가 함께 만나는 일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인지도 모른다. 밤새도록 떠 있는 달빛이 지상의 벌레들과 어우러져 합주하는 그 청정한 음악이거나 대낮의 눈부신 햇빛에 빛나는 푸른 나무잎새들이 바람부는 날 서로 부딪쳐 내는 그런 영롱한 음악이기도 하였다.

"합두보살이여… 저는 과거 구원겁전의 연등불계 석가모니부처님 전신인 어린 유동보살로서 연꽃 일곱송이를 바친 일을 따르고저 합니다."

"불이보살이여… 저도 그런 유동보살이고자 합니다. 연등불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진흙길에 그 자신의 몸을 엎드려 밟고 지나가시게 하셨지요… 아니 그 어린 유동보살이 소끔장난하던 깨어진 기왓장에 모래 한 줌을 담아 연등불께 바쳤더니 연등불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며 장차 너는 큰 서원을 세운 사바세계의 주재불이 되겠구나 하고 수기(授記)하신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런 수기를 받고 싶습니다."

"합두보살이여… 제가 보살이 가지고 노시는 기왓장이 되고 싶습니다."

"불이보살이여, 제가 그 기왓장에 담긴 모래 한 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동화와도 같은 겸양을 나누며 그들은 그동안 괴로움 속의 중생과 함께 지낸 일이나 그런 중생들의 갖가지 괴로움에 대한 것을 다정하게 나누었다.

"일체 부처님과 보살님이 그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타끌 세상에 내려가 여러가지 방편을 보이며 진리를 알려주는 일이야 우리에게는 벅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비를 위해서 풀더미로 떨어지는 일(慈悲落草)이 얼마나 어려운 경계이겠습니까."

이렇듯이 겸양하는 그들의 대화에 뜻밖에 끼어드는 다른 보살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무전이었다.

무전도 어느덧 무전보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욕도의 삶을 마친 뒤 바다 밑 고기의 내장에 늘어붙은 벌레가 되었다가 고기 밖으로 나와 자라가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다가를 되풀이하는 그 중생노릇의 선업들이 쌓이고 쌓여 이윽고 보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보살께서 그리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니 이제는 문 밖의 은행나무 두 그루인냥 말을 주고 받으시는구료."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무전스님! 아니! 무전보살님!"

"어머나 어머나 무전보살님!"

"허허허 합두보살님! 그리고 불이보살님! 이 얼마만이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들 세 보살의 추억에 의해서 지난 전생의 무욕도가 방금 물속에서 얼굴을 씻고 나온 아침해처럼 찬란하게 떠올랐다. 세 보살의 마음 속에 동시에….



세 보살의 마음속에 전생의 무욕도가 아침해 처럼 찬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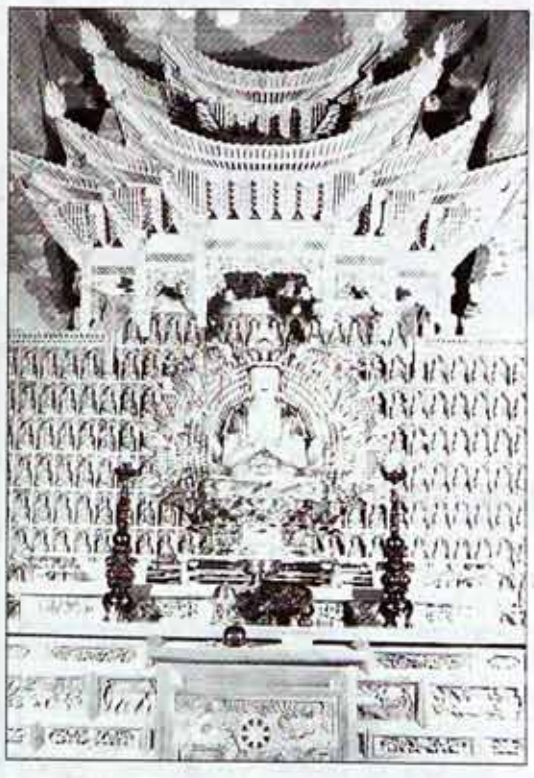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독일 함부르크 9월15일~10월19일 '한국의 달'

독일포교 '열린마당'

교불련 문화사절단 파견…세미나·영산재등 기획 다채

북돋기 캠페인도

우리 전통문화를 이끌어온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예술이 오는 9월 독일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알려져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한국불교의 홍포에 새로운 계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는 불교문화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세계불교문화사절단(증명법사 혜암)을 만들어 오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국불교문화예술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독일 함부르크 주정부가 제정한 '한국의 달'(9월15일~10월19일 한달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이번 행사에는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장)이 설법하는 대법회(9월 16일)를 시작으로 '21세기와 한국불교의 역할' 주제의 국제불교학술회의, 영산재, 다례 시연, 찬불가, 선무(禪舞)등 문화공연, 사찰음식소개, 불교전시회 등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일주일간 마련된다.

함부르크大 대강의실에서 9월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세미나는 첫날인 17일에는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과)의 '한국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웨너 사쎄교수(함부르크대 한국학)가 '독일인이 본 민족종교로서의 한국불교'를 기조발제로 선정문화, 조형, 차문화, 불교설화, 불교음악,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게된다. 18일에는 한국불교와 제반 사회과학과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주제발표가, 19일에는 범주스님의 '선예술의 현대적 의의'를 기조발제로 민화 의상 선무 그래픽 상징마크 등 문화예술관련 세미나가 준비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타 여연스님, 고준환 홍윤식 이준 류종민 연기영교수 등 한국과 독일의 학자·스님 총 20여명이 참여할 예정.

15일과 16일에는 한국불교문화예술단에 의해 화려하고도 장엄한 문화예술 각 분야가 집중 소개돼, 독일인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인 마일운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10여명이 참여하는 영산재 시연, 찬불가 공연, 가야금 병창및 연주와, 이선옥씨의 선무와 범주스님의 선묵화, 박찬수씨의 불상제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도 이색 볼거리. 불화이미지를 현대의상에 접합시킨 불교의상패션(이기향)쇼도 갈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주스님 선묵전, 한국화전, 관조·선암 스님·안장헌씨 등의 사진전, 시각디자인전 등 각 불교관련 전시회와 차례(茶禮), 사찰음식, 발우공양 시연 등의 문화행사가 열리며 현지인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도 실시된다.

이번 한국불교문화예술제 행사에서는 북한동포돕기 캠페인도 함께 벌어질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일면스님 염불 CD 발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한 일면스님(불암사 주지)이 독경 테이프와 CD를 펴 냈다. 청아하고 장중한 염불소리가 일품인 일면스님의 經 테이프와 CD에는 〈천수경〉〈예불〉〈반야심경〉〈화엄경약찬게〉 등이 실렸다. 특히 〈불설아미타경〉은 종인·보명스님이 합송해 이채롭다.

"문화재는 공유할때 가치 더해"

금속공예전 연 대호고미술전시관 대표 **주기상**씨



"문화재란 비록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만인이 공유해야 더욱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개인 화랑 단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속공예종합전'을 연 대호고미술전시관 대표 주기상씨(46·고미술협회 부회장). 14일까지 서울 답십리 대호고미술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그가 25년간 수집해온 불상, 불교의식구, 청동기 등 유물 500여점이 선보인다. 이 중에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특수한 양식의 미술품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불상을 비롯, 통일신라시대의 이불병립상, 고려시대의 청동탑, 청동탁, 청동향로 등 보물급으로 평가되는 희귀한 공예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주씨는 "불교미술품이 주류를 이루는 금속공예품은 다른 미술품에 비해 현존하는 유물이 적고, 산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 독자적인 전시회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전시회는 우리의 금속공예 수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주씨는 전시회와 함께 소장품을 도록으로 발간해 한 개인의 힘으로는 드물게 우리의 금속공예를 집성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수집하기 어려운 금동불상과 함께 그에 따르는 불기(佛器), 불구(佛具)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 295점을 칼라로 실었다.

윤기석 기자



◇통일신라시대 '금동약사보살입상'(높이 15㎝). 이번 금속공예전에 나오는 대표적 불상이다.

불교문학 정의·유형 분석

홍기삼교수 '불교문학연구' 펴내



"불교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많지만 과연 불교문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준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책은 문학이라는 심미적 추구의 세계와 불교라는 종교적 엄숙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불교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와 다른 문학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습니다"

문학평론가인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한국문학연구소장)가 불교문학의 심미적 형성원리를 모색한 논문들과 대표적 불교문학인 삼국유사의 향가관련 설화를 주축으로 불교적 성격을 밝힌 〈불교문학연구〉를 펴 냈다(집문당刊). 불교문학의 원리를 밝힌 책으로는 처음 발간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제 1부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에서는 불교문학의 정의와 근본원리를 밝혔고 헷세 니체 슐레겔 등 훌륭한 불교문학자를 배출해온 독일불교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또 서정주 한용운 조지훈 등으로부터 김광섭까지 불교적 정서로 창작한 한국 현대 시의 세계도 훑어보았다.

2부 향가설화의 불교적 양상에서는 지금까지 향가자체에만 치우쳐왔던 분석을 보다 확대해 향가가 자리해 있는 설화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향가만을 따로 살필 것이 아니라 설화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읽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 "기존의 향가 해석도 부분적으로 많이 수정했다"고 밝힌다.

"불교문학이 시대에 뒤진 관념적이고 비생산적인 문학인가, 진부한 인식의 산물인가 하는 선입견을 뛰어넘어 불교문학의 세계성도 검토했다"고 말하는 홍기삼교수는 일본 법정대에서 '한일문화기금'의 지원으로 '재일 한국인문학에 미친 전후 일본문학의 영향' 주제의 연구를 위해 지난 3일 일본으로 떠났다. 〈경〉

문화 소식

김영임씨 '회심곡' 발표

국악인 김영임씨가 '97 김영임 회심곡'이라는 앨범을 제작하고 발매기념 발표회를 21일 호암아트홀에서 갖는다. 이번 회심곡 앨범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는 등 한글세대에 맞게 기획 제작됐다.

12·13일 홍성 만해제

만해스님을 기리는 지역문화축제인 제3회 만해제가 12·13일 양일간 충남 홍성에서 열린다.

전야제인 만해문학의 밤과 고유제 추모법회, 농악경연대회, 만해어린이 사생대회, 서예휘호대회, 백일장, 만해특별기획전 등이 개최된다. (0451)32-3613

고영을씨 탱화 40점 전시

고영을씨(광주여고 교사)의 탱화 전시회가 14일까지 대구갤러리 실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씨 특유의 탱화기법을 이용해 그린 '화엄경 이야기' '연'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053)426-8912

불심시심 〈89〉

나를 위해 늦봄에 핀 꽃

默對青山坐 (묵대청산좌) 조용히 푸른 산 마주하고 앉으니
山嫌白髮來 (산혐백발래) 산은 백발이 왔다고 싫어하나
巖前一朶花 (암전일타화) 바위 앞 한 떨기 꽃은
慰我晩春開 (위아만춘개) 나를 위로하려 늦봄에 피었구나

천경대사의 시이다. '괴정에서 우연히 읊다(槐亭偶吟)'라 한 시이다. 늙은 괴목 앞에서 우연히 대하게 된 한 순간의 광경을 그저 버릇처럼 사진기를 들이대는 한 풍경화 촬영사처럼 다가가고 있다. 전편에서 아무 꾸밈이 없는 그저 소박함이 넘쳐난다. 시의 소재라야 나와 청산 그리고 꽃 뿐이다. 지나던 나그네가 정자에 올랐을 때의 한 순간으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상의 풍경들이다.

정자에 오르면 산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정자가 있는 위치의 일상적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정자의 속성이라기보다도 사람의 거처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앞을 바라보다라는 말 자체가 산 아니면 물이다. 정자가 물가나 산 언덕에 세워지는 것이 정석이라 한다면 거기에 머무는 나그네의 시선은 아래로 보면 물이요 마주 보거나 위로 보면 산이다. 지금 이 시의 첫 구에서 조용히 청산을 보고 앉았다 함은 이러한 나그네의 일상성이다. 다만 조용히 앉았다 함이 의도적 묵상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용히라는 한 마디가 이 시의 꾸밈없는 소박함을 전제로 아주 중요한 한 자이다.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산이다. 그저 무심인데, 이 무심을 유심의 의도로 대해 주는 청산이다. 백발이 왔다 하여 싫어한다는 것이다. 유정의 나는 무심이 되어 있고, 무정의 산이 오히려 유심한 주체가 되었으니 이 또한 역설의 극치다. 이런 광경을 연민스럽게 여기는 한 떨기의 꽃이 나를 위로하고 나섰다. 이미 봄이 다 지나 모든 꽃이 사라지는 계절인데, 철 늦음을 잊고 피어있는 것이다. 꽃으로서야 늦다 이르다는 생각없이 피어 있는 것이지만, 산에게 푸대접을 받은 나로서는 이 철 늦은 꽃이 어느 때보다 반가웠고 그 반가움으로 바로 지금 이 산의 푸대접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저 피어 있음으로 해서 꽃일 수밖에 없는 저 무정물을 이제는 내가 나의 서글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괴수나무 정자라 하였으니 여기의 꽃이 괴수나무꽃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이 꽃은 늦봄보다는 초여름에 피는 것이 당연하니 그런 점에서 이 꽃 또한 일상의 개화이다. 이렇듯 일상의 평범함을 순간의 유의적 각별한 순간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선사들의 평상심이 진리라는 깨우침의 자세요, 시인의 안목으로는 일상사 모든 것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환형시키는 예술적 솜씨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미술강좌모임 **불교문화 배움터**

"유산에 깃든 불교정신 탐구"

회원 40여명 동참
격주실시…전문강사 초청

문화 기행을 가면 갈수록 불교미술에 대한 갈증은 점점 심해지고… 이 갈증을 원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의 불교문화기행팀이 불교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자발적으로 미술강좌모임 '불교문화의 배움터'를 만들어 화제다.

5월2일 발기인모임을 갖고 6월5일 대학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처음 가진 '한국의 불화' 강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회원들이 박도화씨(동국대 박물관 연구원)의 '불화(佛畵)' 강의를 놓칠세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필기를 하고 있다.

"답사를 다니면서 개론적인 설명을 듣다보면 그 문화재에 대해 더 알고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져 미술공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장 구춘서씨의 말이다.

강좌의 목적은 현학적 해설보다는 그 문화재에 스며있는 불교정신을 세세하게 탐구하며 체계적으로 공부하자는 것. 격주로 개최되는 이 강좌는 첫번째 목요일(오후7시)은 불교미술전문가 초청강의, 세번째 목요일은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원장이 사찰속에 깃든 의미를 자세히 안내한다. '불화'강좌는 3개월간 실시될 예정.

'불교문화의 배움터' 회원중에는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여럿이다. 당장이라도 답사팀을 이끌고 안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배움에의 열기는 무엇보다도 뜨겁다.

이동은(동국대 자료실) 회원은 "우리 불교미술에 나타난 조형정신을 제대로 아는 것은 현대를 사는 불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한다. 〈숙〉

도서출판 남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
이 책을 읽는 순간 내가 한국인 임이 자랑스럽다!

「일본의 천황이 된 가야의 응신왕자와 인덕왕자!」

일본을 정복한 한국인 이야기



프랭크호소노/신동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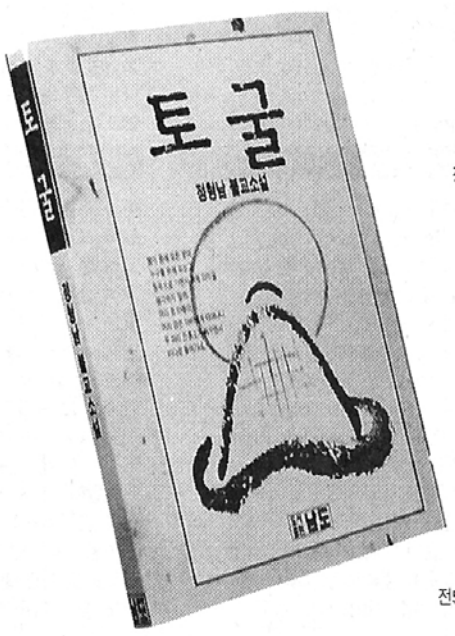
미국 인류학자 프랑크 호소노가 정확한 고증으로 쓴 장편소설!
14년간 한.일간을 오가며 고대사를 연구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이 발굴을 금지한 응신고분과 인덕고분의 비밀을 풀어준다!

가야의 신왕에게는 용감한 응신과 인덕 두 왕자가 있었다.
신라의 대군에 가야가 멸망하자 응신과 인덕왕자는 가야의
철기문화와 정예 기마군단을 이끌고 원시 석기시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가야의 속국인 동쪽 섬나라를 정벌하여
토요우라, 이즈모, 여마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에 나라를 세워
천황으로 등극,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된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정가 7,000원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

도서출판 남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정형남장편소설



한국불교의 위대한 선각자인 금강산 도인의 일대기!

정형남 불교소설 정가 7,000원

토굴

큰 두상을 갖고 황소울음을 울며 태어난 스님은 일제의 강점기에 시달리며 헐벗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비분강개, 군인이 되려하나 여의치 않아 승문으로 들어간다.
불교계의 거목인 스님의 행적은 민족을 걱정하는 한 인간으로, 해탈자로 우리 민족사상의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자비로움이 가득한 금강도인의 숨겨진 행보를 찾아!

1,000일 밤을 지새우게 하는 은밀한 책-한국판 천일야화!

정형남 장편소설 전5권 각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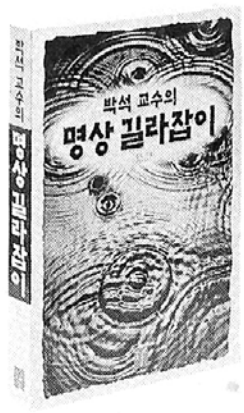
여인의 새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라"



박석교수 '명상길라잡이' 펴내



"당신은 명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날로 늘어나는 명상인구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물음에 대해 박석교수(상명대 중문과)가 한권의 책으로 그 해답을 담아냈다. 지난 17년 동안 자신이 터득해 온 명상 체험을 바탕으로 〈명상길라잡이〉(도솔刊)를 펴낸 것.

박교수는 이 책에서 "명상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모든 명상은 '마음 닦기'로 귀결된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이 책은 단순히 명상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박교수가 직접 체험한 개별명상법과 더불어 요가와 탄트라, 단학과 도교, 유식과 선종, 사마타와 비파사나, 유가와 도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6장으로 나눠 명상법을 살피고 있다.

17년 체험 바탕 세계 명상법 총정리

이를 통해 박교수는 기존 명상법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한계는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명상입문자들을 위한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박교수는 요가를 통해 명상의 세계에 입문했지만 불경을 접하면서 깨달음의 깊이 면에서 요가보다는 불교가 더 수승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화두선의 핵심은 의심에 있지만 처음부터 신심이 없다면 화두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장난이나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박교수의 지적은 철저한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박교수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자기의 마음과 이 세계의 실상을 바로 보는 비파사나 명상법이 지금까지의 명상법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비파사나가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적절한 명상법으로서 각광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인식의 허상을 타파하는 유식은 실제적인 수련에 의해 성립된 불교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선종이 지나치게 논리를 무시하는데 비해 유식은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면서 자신 또한 명상수행이 깊어지면서 유식이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이밖에 중국불교의 종착역으로써의 선종과 그 명상법 등, 이 책에는 전세계의 명상법에 대한 해박한 설명과 체험이 담겨 있다.

반면에 박교수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만의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명상을 통해 실현되는 최고의 목표인 깨달음과 윤회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법을 만나 제대로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은 우주의 섭리에 맞지 않다. 윤회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나선형적이다. 원은 단순한 순환이지만 나선형은 순환인 동시에 발전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같은 박교수의 지론에 대해 호진스님(동국대 교수)은 "개인의 체험론적 견해로서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엄격히 말해 불교의 윤회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병약해져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극복방법으로 명상의 생활화를 권유한다.

"몸과 마음을 닦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속에서 공생하는 삶을 지향하고, 균형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출판화제



'신부와 반야심경'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 가톨릭신부가 나름대로 〈반야심경〉을 번역해 〈가자 가자 함께 가자!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화제의 저자는 바로 80년대 가톨릭 농민회 지도 신부로 활동했고, 지금은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정호경 신부(57). 정신부는 올해 초 불현듯 '비움(空)'에 대한 단상을 하던 중 불교를 떠올리고, 팔만사천법문의 엑기스라는 〈반야심경〉을 꺼내 읽었다고 한다. 정신부는 "어려운 뜻글자로 쓰여진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 없어 수행자적 입장에서 소리글자인 우리말로 반야심경을 쉽게, 그리고 '제멋대로' 번역했다"고 밝혔다.

정신부가 본 반야심경의 핵심은 '인연을 깨달아 영원히 사는 길'.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은 아는 것, 인연과 '비움'의 신비를 깨달아 사는 것이라고 반야심경의 사상을 관조해 낸다.

특히 반야심경의 끝부분인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진언을 '왔구나! 왔구나! 깨달음의 이 언덕에 다함께 왔구나! 더불어 훨훨 날게 되었구나! 새 부처님들 만세!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고 번역해 눈길을 끈다.

〈가자 가자 함께 가자!…〉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종교간 화합 분위기 속에서 발간돼 이 책에 대한 불교계와 가톨릭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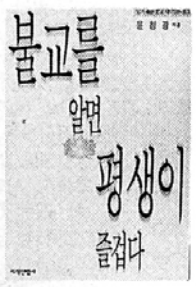
신부가 반야심경 번역

"인연 깨달아 영원히 사는 길"

화제의 책

불자로서 얻은 세상사는 지혜 담아

불교를 알면… 윤청광 지음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을 맡아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는 일에 힘쓰면서 15권에 이르는 〈고승열전〉시리즈를 펴내기도 한 윤청광씨의 불교적 인생론이다.

그동안 발표해 온 글 중 41편을 모아 엮은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삶에 대한 고민으로 절망하고 방황하던 시절,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서 체득한 진한 감동과 지혜를 맛본 기쁨을,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불교진리가 특이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상적이며 보편적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새삼 확인시켜 준다.

〈지식산업사 6천원〉

곡선의 미학으로 배우는 민족문화

우리문화 이웃문화 신영훈 지음



날렵하고 입체적인 기와지붕 곡선에서 우리민족의 미학을 읽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조상들은 서까래 끝을 기계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길이와 위치에 따라 달리 놓아 중국, 일본과는 비교도 안되는 아름다운 처마곡선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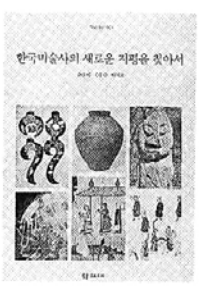
이 책은 사진작가 김대벽씨의 큼직한 칼라사진과 함께 우리것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문화기행서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목수 신영훈씨가 쓴 이 책은 우리의 불상·불화를 외국의 것과 비교하고, 사찰의 정원, 담, 지붕, 창살 등 건축물과 생활용품에 깃들어 있는 고유한 멋과 미를 감칠맛 나는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학수첩 1만3천원〉

미술사 연구 풍토 반성 새지평 모색

한국미술사의… 윤용이 外 지음



우리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중견학자 윤용이(원광대 박물관장), 유홍준(영남대 박물관장), 이태호(전남대 미술교육과)교수등 3명이 우리 미술사 연구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연구서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를 펴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그동안 제대로 조사 연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술사 서술에서 소외된 것들의 실상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조선후기 장승의 미술사적 규명', '조선시대 목판화 연구', '민화 문자도 연구', '고려 조선시대의 녹청자 흑자' 등의 논문을 통해 그동안의 한국미술사 연구과정을 반성하고,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이고 있다.〈학고재 1만5천원〉

서구출판가 티벳불교 열풍

채식을 즐기고 인과응보와 윤회를 믿는 서구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佛·美 출판가와 헐리우드를 강타하고 있는 티벳불교 바람이 거세다.

프랑스에서 티벳서적은 97년도 상반기에 벌써 28권이나 출간돼 종교관련 서적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와 장-클로드 카리에르가 공저한 〈불교의 힘〉(라퐁사)은 이미 베스트셀러이다. 또한 프랑스의 '불교신자연합'이 신도수를 60만여명으로 추산해 불교열풍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수는 지난 94년 〈르 피가로〉지가 발표한 수만명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이다.

佛 올 상반기 28권 출간
美 달라이라마 자서전 인기

티벳불교에 쏟는 서구인의 열광은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80년대초부터 달라이 라마와 티벳독립을 후원한 리처드 기어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티벳독립을 이해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한 해리슨 포드를 비롯해 알렉 볼드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맥 라이언, 골디 혼 등의 스타들도 '티벳에 자유를!'이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미국의 출판가도 달라이 라마의 자서전 〈망명 중의 자유〉를 비롯 〈티벳 문화사〉 〈세계의 지붕 티벳 비밀탐험〉 등 10여권이나 출간돼 미국의 티벳 열풍을 짐작케 한다.

오증욱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2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5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6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7	한국사찰의 주련2	권 영 한	전원문화사
8	불교대전	이 원 섭	현 암 사
9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유 필 화	한 언
10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 현 종	들 녘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떠도는 어린 넋들을 위하여=대원사 현장스님이 태아령 천도에 대한 참회와 발원, 기도법을 담았다. 〈연지문 3천원〉

▲두번째 출가=〈삭발하는 날〉이라는 산문집으로 불자들과 가까워진 현진스님이 젊은 수행자의 원초적인 번민과 갈등, 수행의 뒷이야기를 엮어낸 책이다. 스님들의 생활모습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불교와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새날 6천5백원〉

▲일주문=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불교입문서. 이 책은 제1장불교와 부처님의 깨달음, 제2장 일주문에 기대서서, 제3장 참된 불자의 길, 제4장 불교경전, 제5장 불교와 우리로 각각 나눠 연기와 삼법인등 불교의 기본교리와 기도하는 법등 신행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흥기획 5천원〉

▲손지압으로 병을 고친다=손바닥 지압을 통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책. 제1부는 손바닥으로 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2부에서는 각 내장별 손바닥 자극 및 안마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3부에서는 손바닥 첩방술로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여래 6천8백원〉

▲황금털 사자=시인 최승호씨가 펴낸 우화집. '거울의 분노' '물위에 쓰는 우화' '황금털사자'등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인간의 삶을 질타하는 짧은 우화 94편이 실려있다. 〈해냄 6천원〉

책방 여시아문이 마련한 6월 불서 특선 코너 사찰·불교 문화 관련서

사찰 안내·사지

갓바위 부처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보문사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용주사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강원의 전통사찰 1, 2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각 7,500원
서울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전남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2,000원
경기도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경주 남산 열화당/ 강운구/ 120,000원
관음성지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정만스님/ 5,000원
돌부처 여시아문/ 이근후/ 6,500원
명찰 한국문원/ 편집부/ 15,000원
북한 불교 답사기 민족사/ 정태혁/ 5,500원
겨레의 땅, 부처님 땅 불지사/ 윤경렬/ 18,000원
NAMSAN(남산) 영문·일어 불지사/ 40,000원
직지사(본사편) 불지사/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35,000원
직지사(말사편) 불지사/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35,000원
금산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낙산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대흥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범어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법주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부석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불국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석굴암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송광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신륵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월정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전등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통도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해인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화엄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입문서·개론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박은순/ 20,000원
달마도의 세계 학문사/ 최순택/ 15,000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대원사/ 최광남/ 6,000원
북한의 사찰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불상의 탄생 예경산업사/ 다카다오사무/ 7,000원
세계의 불교 미술 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13,000원
원융과 조화 열화당/ 강우방/ 40,000원
인도 미술사 예경산업사/ 벤자민로울랜드/ 15,000원
전통사찰의 창건 설화 창/ 서문성/ 6,800원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김정희/ 20,000원
조선 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미술문화/김영숙/20,000원
종교와 예술 열화당/ 게라두스반데르레우후/ 4,500원
중국 석굴과 문화 예술(상) 경인문화사/ 배진달/ 22,000원
중국 석굴과 문화 예술(하) 경인문화사/ 배진달/ 65,000원
한국 고고학 개설 일지사/ 김원용/ 7,000원
한국 금석유문 일지사/ 황수영/ 25,000원
한국 사찰에 얽힌 이야기 보문경문화사/ 전영진/ 6,500원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출판부/ 염빙하/ 25,000원
한국 종교 복식 아세아문화사/ 이창세/ 6,000원
화엄연기 민족사/ 민족사편집부/ 45,000원
화엄연기 우인각/ 안광석/ 100,000원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효형/ 이원복/ 10,000원
옛그림 감상법 대원사/ 한정희/ 3,500원

서예·회화

한국 사찰의 주련 1 전원문화사/ 권영한/ 10,000원
한국 사찰의 주련 2 전원문화사/ 권영한/ 10,000원
고려 불화(한국의 미 7) 중앙일보사/ 이해범/ 20,000원
고려 불화 열화당/ 문명대/ 4,500원
꽃문 미술문화/ 관조 스님/ 25,000원
단청 보성문화사/ 장기인 외/ 15,000원
대웅전 미술문화/ 관조 스님/ 18,000원
벽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해인사출판부/ 해인사출판부/ 12,000원
벽화 이야기 전원문화사/ 권영한/ 12,000원
선묵달마 학문사/ 범주/ 15,000원
선화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최순택/ 12,000원
선화의 세계 학문사/ 최순택/ 12,000원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권영필/ 40,000원
인도 종교 미술 동문선/ 아지트무케르지/ 14,000원
조선 불화(한국의 미16) 중앙일보사/ 김병수/ 20,000원
조선 후기 그림 글씨 학고재/ 이태호/ 20,000원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 정신 학고재/ 이태호/ 15,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민족사/ 장충식/ 7,000원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서울대출판부/ 6,000원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산업사/ 장경희 외/ 14,000원
한국 미술사 서울대출판부/ 김원용 외/ 28,000원
한국 불교 미술사 솔/ 김영주/ 20,000원
한국 불교 미술사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문명대/ 18,000원
한국 불교 미술의 형식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문명대/ 14,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대원정사/ 홍윤식/ 8,500원
한국의 불화 열화당/ 문명대/ 5,000원
화기집 가람사연구소/ 홍윤식/ 12,000원

건축·조각·불상·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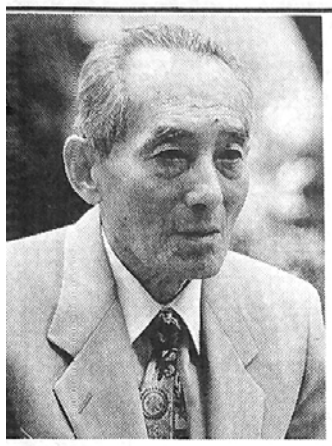
목조 보성문화사/ 장기인/ 12,000원
불상(한국의 미 10) 중앙일보사/ 이해범/ 20,000원
서역 불교 조각사 일지사/ 임영애/ 14,000원
신라 석탑 연구 일지사/ 장충식/ 6,000원
신라의 폐사1, 2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각 2,500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윤용이/ 12,000원
우리 건축을 찾아서 1 발언/ 편집부/ 6,000원
우리 건축을 찾아서 2 발언/ 편집부/ 6,000원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강우방/ 20,000원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 일조각/ 김이방/ 20,000원
한국 석등 양식 동화문화사/ 김기웅/ 6,500원
한국의 건축 서울대출판부/ 윤장섭/ 36,000원
한국의 목공예(상) 열화당/ 이종석/ 9,000원
한국의 목공예(하) 열화당/ 이종석/ 9,000원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황수영/ 20,000원
한국의 불상 일지사/ 진홍섭/ 10,000원
한국의 석조 미술 문예출판사/ 황수영/ 25,000원
한국의 탑 일지사/ 장충식/ 4,500원
한국 조각사 열화당/ 문명대/ 11,000원
불교 의식구 신유/ 동국대박물관/ 9,000원
성철 큰스님 만장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9,000원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강우방/ 4,500원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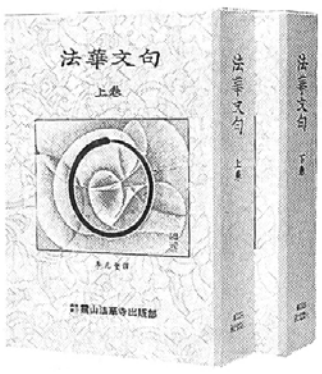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불교학자 이원섭씨 5년작업

'法華文句' 첫 완역 "법화경 이해 돕는다"



"〈법화문구〉는 〈법화경〉이 일승묘법(一乘妙法)임을 밝힌 법화경의 해석서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한글 완역본이 없던 차에 영산법화사 법주 행산스님이 입적한 법화조사 法華祖師)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천태삼부의 번역출판을 발원해 10년만에 〈법화문구〉를 완역 발간하게 된 것이죠"

한문본 10권의 〈법화문구〉를 상하 2권의 우리나라 최초의 완역본으로 펴낸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이원섭선생(73)의 말이다.

〈법화경〉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주석서라 할 〈법화문구〉〈법화현의〉〈마하지관〉등 천태3부는 워낙 난해하고 그 양이 방대해 그동안 부분 부분이 단편적으로 인용되거나 소개되었을 뿐이다.

〈법화문구〉는 중국 수나라(587년) 금릉 광택사에서 천태지의스님이 강설한 것을 제자 장안관정이 필기한 것으로 〈법화경〉의 문구마다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다.

이선생은 "신라시대부터 우리불교 신앙관의 저변을 흐르는 큰 맥이 법화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화문구〉 완역은 대승경전의 최고봉으로 일컬어 지는 〈법화경〉의 정신을 공부하는 중요한 근본자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법화문구〉는 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총 2,198쪽에 이르는 방대한 이 책은 이선생이 5년여에 걸쳐 원고지 1만6천장에 일일이 번역을 했고, 제작에 또 5년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글번역을 앞에 놓고, 한문 원문은 뒤에 배치해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이들도 어려움없이 볼수 있게 했다.

깊은 뜻 이해 쉽도록 문구마다 주석 달아

이선생은 특히 이 책의 각 문구마다 나오는 주요어구의 뜻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후학들의 〈법화경〉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직접 역주를 달았다"고 말해 후학을 걱정하는 마음을 엿볼수 있게 하고 있다.

이원섭선생은 "이번 〈법화문구〉에 이어 〈법화현의〉 번역도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 조만간 〈법화현의〉도 발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실크로드 문화와 한국문화'

충남대 인문과학硏, 논문 41편 수록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사재동)가 최근 〈실크로드문화와 한국문화〉(2권)를 발간했다. 실크로드 문화를 연원으로 형성 발전해 온 한국의 제반문화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가진 현지답사와 한·중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엮은 이 책에는 연구사를 비롯 고고·미술·종교 등 8개 분야, 총 41편의 국내외 논문이 수록돼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고고학·미술사연구'(권영필), '원과 고려후기에 나타나는 라마도상의 불교조각'(정은우), '신라승 혜초와 그의 활동'(최원식) 등이 대표적.

"불교는 한국문화 발전 견인차"

길희성 교수, 종교인평화회의 세미나서 주장



종교의 세속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다가올 21세기의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과연 종교는 정신적 삶을 주도하며 문화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가 6월12·13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와 문화'란 주제로 '97 종교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문화의 발전과 쇠퇴를 종교로 조명해 보고 제사, 장례문화 등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간·집단간 갈등과 다종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중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의 '종교가 한국 사회의 문화에 끼친 영향' 주제발표를 먼저 살펴본다.

길교수는 "인류의 문화는 대부분 성스러운 기반을 가진 종교적 문화"라며 "불교도 한국의 문화를 원시문화에서 고등문화로 고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부처님의 초세간적 가르침은 한국의 문화 속에서 세속적 질서를 초월한 자유인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길교수는 "한국사회와 문화는 해방 이후 서구의 세속화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예전의 종교적 문화전통에서 벗어나 세속적 이념과 가치를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길교수는 "한국의 전통종교가 세속화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수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자산을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추구하는 사상·정신적 자산으로 살리고 한국 근대사를 주도해온 서구 사상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편견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욱〉

"日 백봉시대 신라와 유관"

김영애씨 '신라불상 日 영향' 논문 발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린 제40회 역사학대회에서 한국미술사학회(회장 이성미)는 대회기간 중 '7세기 후반 신라불교조각이 일본 백봉불교조각에 미친 영향'(김영애), '19세기의 화승 금암당 천여에 대하여'(김정희) 등 논문 5편을 발표했다.

김영애씨(동국대)는 신라와 일본의 불상을 비교 검토한 논문에서 7세기 후반 일본조각의 양식을 당 조각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신라불상은 일본 백봉(白鳳)시대 불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백봉이라는 시기구분은 신라조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씨는 7세기 후반 신라와 백봉시대의 공통된 특징으로 △소조불과 전불의 유행 △아미타삼존불과 사천왕상의 조성 △십일면관음상의 등장 등을 제시했다. 또 양식적 측면에서도 △동안(童顔)에서 미소년형으로의 변화 △위엄을 갖춘 괴체감의 형상 △사실적 이상주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윤〉

뉴스레터·기고문·단체색인 등 정보 다채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말레시아 청년불자연맹

인터넷을 즐기는 젊은 불자들이 한 번쯤 방문해 해외 청년불자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곳은 다름아닌 '말레시아 청년불자연맹' 사이트.

말레시아 청년불자연맹(이하 YBAM)은 지난 1970년 말레시아의 청년불자들이 사회 속에서 지혜·자비·보은 등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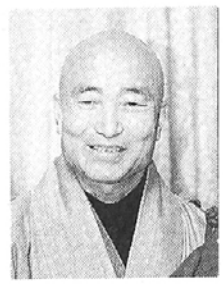
이 사이트는 YBAM의 '97 활동계획서를 비롯해 뉴스레터, 기고문, 불교단체 색인, 회원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말레시아 불교관련 연구서를 제공하는 '포커스'가 가장 주목된다. '말레시아 청년불자 운동' '과거의 유산에서 온 미래의 깨달음' '현대사회 청년불자의 위상' 등 논문 일곱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뉴스레터'에는 YBAM이 그동안 발행한 뉴스레터 총 85권중 10권의 기사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말레시아 불교계 소식을 소상히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원과 단체 색인자료는 말레시아를 비롯해 대만 홍콩 태국 일본 싱가폴 등지에서 활동하는 YBAM 회원 240여명과 유관 단체의 이름 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founder.net.my/ybam/

나와 경전 10

원각경



설 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은 참으로 묘하고 신기해서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삼라만상의 생성소멸이 모두가 인연소치속에서 천태만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나는 일제시대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농가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수덕사에 불공하러 가실때마다 어린 나를 데리고 가셨다. 병약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공덕을 쌓으라는 바람이셨던것 같다. 신심 깊은 부친의 영향으로 나는 1955년 부친의 생일 불공에 따라갔다가 출가했다.

사람의 성장단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책과 사람이라 한다. 특히 한참 배움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는 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학창시절 또한 그사람의 격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시기이다.

사미시절 수덕사는 벽초스님께서 주지이셨는데 가풍을 따르는데 엄격하신 어른이셔서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만을 가르쳐 책을 본다는 것은 엄두도 못냈다.

내가 최초로 읽은 불서는 보조스님의 〈수심결(修心訣)〉이다. 강원에 가기전, 수덕사에서 한 철 선방에서 지내던 수좌 한 분이 한문으로 된 다 떨어진 책 한 권을 두고 가신 덕택에 접할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강원에 가서야 경전을 접할 수 있었다.

학창시절인 해인사 강원 사교과때 배운 〈원각경(圓覺經)〉이었다. 당시 강당에서 수업받았는데 〈원각경〉에 나타난 12보살들과 문답하듯 몰입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각각의 보살들과 문답을 통해 대원각의 묘리와 그 관행을 설하신 내용은 성불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내게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를 만난 것과 같은 감동과 환희심 그 자체였다.

〈원각경〉의 원래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다.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내용을 가진 원각을 가르침에 모든 수다라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경이라는 뜻이다. 전체 1권이 12장으로 짜여졌으며, 각 장마다 보살들이 부처님과 대화한다.

1장부터 12장까지 문수 보현 보안 금강장 미륵 청정혜 위덕자재 변음 정제업장 보각 원각 현선수 보살들이 출현한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수보살장에서는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각의 자리를 밝히기만 하면 생사가 곧 열반이고 윤회가 곧 해탈임을 가르치고 있다. 제2 보현보살장부터 제11 원각보살장까지는 원각을 닦고 증득하는데 필요한 실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 12장에 출현한 현선수보살에게 부처님은 〈원각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총 12장 가운데 나를 사로잡은 부분은 '보안장(普眼章)'이다. 일체 여래의 근본 인지(因地)는 청정원각을 원만히 비춤으로써 무명을 영원히 끊은 뒤에 불도를 이룬다는 첫째 문수장과, 중생의 근본적인 병폐인 무명은 실체가 없는 환(幻)과 같아 허망하다는 둘째 보현장에 입각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한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거든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달을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이 지혜로운 관찰입니까."

강원시절 12보살과 문답하듯 심취

삼라만상 차별없음 알게하는 내용

본래 망념이 없어 성불이라고 보는 것을 하나하나 실수행을 거쳐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어려서 큰스님들께 들은 법문을 다시 확연히 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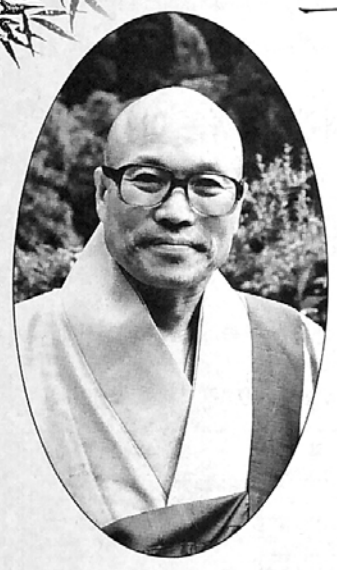
내 몸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 어떤 법을 얻은 바가 있노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해준다. 심성이란 허공과 같아서 삼라만상은 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 또한 없다.

중생이 바라보는 세계는 차별과 대립의 세계이다. 그러나 원각에서 관조된 세계는 평등부동(平等不動)이다. 부처님은 바로 이 청정원각으로 무명을 단절하신 도인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인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인가 목표를 찾아 헤맨다. 이 과정에서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 사대를 본신으로 착각하고 육신의 그림자를 본성인 양 집착한다. 부처님은 바로 이 환상을 깨뜨리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바르게 머물러 지혜롭게 생각하되 방편없는 방편을 써야 한다. 머물 곳은 계와 정이요, 생각할 것이란 지혜로운 관찰이다. 이것은 나의 수행생활을 일깨우며 탄탄한 바탕이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엄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화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주·五四三·七三一六 야·七一一·四三七〇
院長 張三沫 압구정역

암자 적합한 땅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지번 (1-1, 1-2, 1-3, 1-4)-감만중학교 후문쪽
▶ 평 수 : 280평 ▶ 가 격 : 평당 70만원
연락처 : 051)441-3377
012)520-2424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5-124-6334
02-511-4632(조법사)

- 복터도량(대지 760평, 건평 120평) -
조용하며 맑은공기, 편리한 교통(서울 2시간 20분, 제천·영월 각20분), 크고 건고한 대웅전·산신각 45평), 요사채·보일러시설 완비(객실10개), 현대식주방, 수세식화장실, 대형석불, 석탑등
'최적의 기도처'
연락처 0373)374-7417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 대 지 : 434평
■ 건 평 : 법당 30평, 요사 90평 (3채)
■ 범종각, 산신각 기타 시설 완비
■ 비 용 : 대지 1억 5천만원
■ 시 설 : 기증
※ 보살님도 입주가능
연락처 0395)41-2886

■ 위 치 : 경북 읍소재지 인접지역
■ 평 수 : 480평
- 법당 21평(목조중축 2년,기둥 1자 2치)
- 요사채 20평(산신각)
■ 가 격 : 2억 9천만원
※사정에 따라 절충가능
연락처 0578)83-5250

포교당 안내
▶ 위 치 : 안양시내(전철 5분거리)
▶ 평 수 : 3층 건물 3층, 실평수 50평
▶ 법당,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 보증금 : 1천 5백만원, 월 50만원
▶ 서실비 : 2,100만원
연락처 : 0342)42-0108
015)8447-1147

※ 포교당 7년 운영 후 큰도량으로 옮기므로 부득이 양도함
▶ 위 치 : 마산시 석전1동 (도심지 대로변 위치, 빌딩 3층 30평)
▶ 전 세 : 3천 (월세 없음)
▶ 경전 및 장엄물 : 1천 5백
▶ 가격 : 문의후 절충
연락처 : 0551)99-2584

기타정보내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기도
▶ 유아교육과 : 음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음아지도자, 창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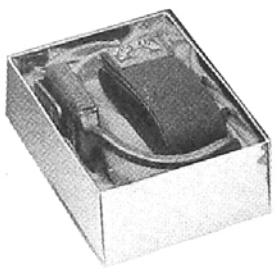
바로보인 T:597-2460
깨달음의 정수를 바로 보이다
대원 문재현 역저

간경화·완치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 울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천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王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병.
● 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노보살님 모십니다(노부부도 가능)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011-453-861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엑)와 장식초회에 10여종의 천가루를 3년간 발효시킨 장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뿌려 날 정도로 건강이 회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재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아무것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병,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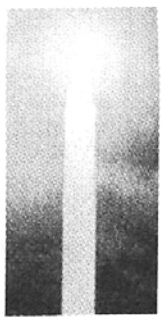
신바람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예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과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과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韓國傳統氣健康硏究會
Tel. 02)455-6944(代)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모 십 니 다
1. 부전스님
2. 사무장
● 급여 70만원, 보너스 200%
● 컴퓨터 사용자·사무경력자 우대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24-3
대한불교 조계종 법 륜 왕 사
주 지 석 선 혜
연락처 (02)934-86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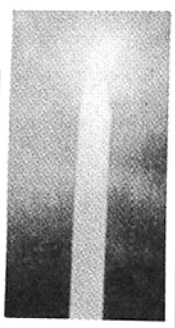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사랑 · · · **감 로 심 장 회** *· · · 삶을 나누는 사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 자 접 수 서 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환자 증명사진 2매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추천서
● 수 술 현 황 ●
97년 4월 현재 심장 수술자 140명
백내장 10명
안면기형 2명
장기기증 2명-11명 기증 받음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 (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 원 회 비 송 금 안 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우체국 : 610774-0243181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1997년 6월 현대불교신문 진주지사장 김 용 필 합장

"부처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약 경전의 가름침과 세속의 문건을 보시하면
해박한 지혜의 과보를 받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눈이 밝아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 육취윤회경 -

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군부대·경찰·교도소·양로원·中高불교학생회·도서관·가까운 이웃···**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 보낼곳
▷ 국내 : 군부대(법당, 포교당, 군승, 불자장병)
: 경찰(법당, 포교당, 경승, 불자경찰, 개인)
: 교도소(재소자중 불자, 교도관)
: 복지회관(전국 시·도·군·읍면 소재 회관)
: 대학(불교학생회 및 도서관)
: 도서관(전국 시·군·구립 및 사립도서관 열람용)
: 개인불자(시주자가 지정하는 분:지정법보시)
▷ 국외 : 해외의 한국 사찰·포교당
: 각국 불교 관련 단체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 보시방법
▶ 법보시
본사 소정 구좌에 1,000원 이상 송금하시면 모아서 신문사가 군부대등 필요한 곳에 보내드립니다.
▶ 해외 법보시
지정법보시와 동일
1부 80,000원(우편료 포함)
▶ 지정법보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기관에 신문을 보시하는 경우로서 보낼 곳의 주소·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1부당 40,000원(1년분)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본사 지로 이용 입금
※ 계좌 : 국민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 정기구독자 추천
친지·이웃등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정성껏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1년 정기구독자 4만원, 6개월 22,000원, 1개월 4,000원

● 법보시양식


구 독 신 청 서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02)732-1522, 737-8881 F. (02)737-0697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굶주리는 북한동포 이유불문 도와줘야

동포의 굶주림을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량미로 쓰인다느니, 주민은 굶어죽는데 축제를 벌인다느니 하며 아직은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이다. 영원히 선 굿고 살아갈 남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굳이 종교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동포의 굶주림을 놓고 현재 우리나라 식량차원의 창구인 적십자사를 돌이켜보자. 적십자사가 무엇인가? 총부리를 마주대고 싸우는 전쟁 중에도 적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상자는 치료해 주는게 적십자사가 아니던가.

이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앞에 두고 1년에 8조원의 음식쓰레기를 버리면서 오늘도 살빼기 경쟁에 땀 흘리며, 여전히 군량미 정신을 차려야 한다느니 하며 바라보기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지원〈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수익위한 고압행정 장성군수 작태 한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년을 맞이하면서 지자체의 수익을 위한 개발위주의 행정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진안 마이산 탑사에 이어 올해 불거진 장성 백양사건을 보며 실로 장성군의 막무가내식 고압행정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올바른 묘지문화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납골사업을 혐오시설로 비하하여 사찰에 막대 행정을 펼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종단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혁〈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독자사진

훼손 방치된 석불 불두(佛頭)가 없어지고 신체 일부가 파손된 채 아무렇게 버려진듯 구덩이 속에 묻혀있는 어둔리사지 석불좌상(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부근에는 석불상을 비롯해 불두, 팔각연화대좌, 비석 등 대부분이 훼손된 채 내버려져 있어 찾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안상빈〈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조선족 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보상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한국의 무관심에 조선족 피해자들은 한 번 더 상처를 입는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던 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자 대책협의회 회장 이영숙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듯 하다.

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자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자가 1만8천명에 그 피해액만도 7백50억원, 실제 피해자는 3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액 보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조선족 피해자 대책협의회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 조선족도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나갈 또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준희〈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독자 시 ●

道의 한 경지

여인이여! 아름다움 하나로 천하를 얻겠는가?
용사여! 힘센 용기 하나로 생사고해를 건너겠는가?
아름다움과 용맹으로 자신을 정복한 자 없다네
줄리어서 시저처럼 용기 있는자는 한번 죽는다지만
홀로 우뚝 서 있는 도인에겐 생로병사가 없다오
대인(對人) 대물(對物) 대사(對事)에 선도 악도 일으킴이 없고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발할 필요조차 없어
나홀로 우뚝 서 있으니 윤회도가 웬 말인가?
천당에도 지옥에도 거리낌이 없으니 이 시간이 안락이어라
잘난 것은 잘나 좋고 못난 것도 그대로 있어 훌륭하다
기쁨도 슬픔도 바람처럼 지나가 흑백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도 옛 것도 곧 지나가니 생로병사도 지나갔네
할일들이 없어졌어, 갖고 싶은 것도 없어졌어,
애욕도 사라졌어, 인연의 새끼줄도 사라졌어,
이제 집착이 없어지고 매임에서 풀려나니
종의 수준을 뛰어넘어 나홀로 우뚝 서 있네
오가되 오가는 것 없고 생사에 속해 있으나
마음이 주인이 되어 대자유를 누리니
지금 이 마음이 열반이어라….

고당 전도석〈상도디회 회장〉

현대불교를 읽고

김성렬 검사 강의법문 실어줬으면

얼마전 현대불교신문에 '현직 대구지검 김성렬 검사의 〈능엄경〉 강의'라는 기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나와 실망스러워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틈틈히 공부해 올 8월이면 불교통신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불교공부 때문에 보는 현대불교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고, 함께 있는 불자들끼리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스님이나 포교사 1백명보다 김검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검사님께서 동화사 포교원에서 매주 한차례씩 3개월간 〈능엄경〉 강의를 하신다는데 그 귀한 법문을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해 주시어 불교를 공부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환우〈경북 안동시 풍산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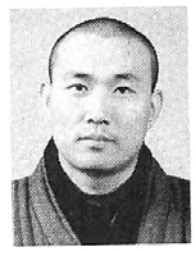
◇이태녕박사의 '건강과식품'은 필자사정으로 마칩니다. 129호 기사 중 '캡사틴과 캡솔루빈'은 '캡산틴과 캡소루빈'으로 바로 잡습니다.

제언

역경원칙 세우자

불교의 앞날은 부처님 가르침인 대장경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교계의 역경사업은 3대 불사의 하나이며,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좌표를 잡고 추진해야 마땅하기에 문제를 제기해 본다.

현재 역경사업은 한문경전의 번역인 까닭에 용어의 통일된 해석이나 문장의 구성에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용은 같아도 역경하는 분들에 따라 토씨가 다르고 조사를 달리 사용해 읽는 이들에게 명확한 전달이 쉽지 않다. 요근래 〈화엄경〉 십행품에 나오는 '보살에게 열가지 몸이 있다'는 법문을 찾아본 일이 있다.



해월스님
〈공주 불광한의원장〉

한문으로 보면 몇줄 안되는 구절임에도 번역하고 풀이해 놓은 여러 한글로된 〈화엄경〉은 10인 10색의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예로 불망신(不妄身)의 경우 '몸'의 설명에서 "무지를 멀리한" "우치와 허망을 떠난" "망령되지 아니한" "우치를 떠난" 등으로 풀이돼 있다. 이것이 불교의 다양성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오히려 신자나 비신자들로 하여금 불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난해함 때문에 숲을 보고 산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마라즙스님은 각종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수백의 역경사가 안을 내고 그 안을 서로 검토하여 다시 수십인의 고덕들이 종합하고 필경에는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될 문장으로 만들기위해 여러번의 회합을 가지며 경전의 한구절 한구절을 번역했다. 또 대당서역기를 쓴 현장법사는 대·소승경전 6백57권을 가지고 돌아와 황제의 조칙을 받아 역경했다. 경전의 취지를 그대로 존중해서 문장에 꾸밈을 가함이 없었고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방언은 그대로 사용하는 등 원전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전의 말과 뜻은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부처님가르침을 찬탄하게 하고 원문에 충실하여 비로서 여래가 권하는 최상의 경전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글경전의 다양함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된 문체로의 역경작업에 밑거름이 된다고 자위해 볼수 있겠으나 한번 인쇄되어 나온 경전은 수백 내지 수천년을 간다고 볼 때 좀더 진중하고 종합적인 경전번역의 대원칙이 수립돼야 하리라 생각된다.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번역상의 오류가 요즘 얘기하는 저작권법등의 문제로 인한 시비의 소지를 줄이기위해 조금씩 토씨와 글자를 바꾸어 사용하다보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전의 번역과 통일작업에 중지와 중의를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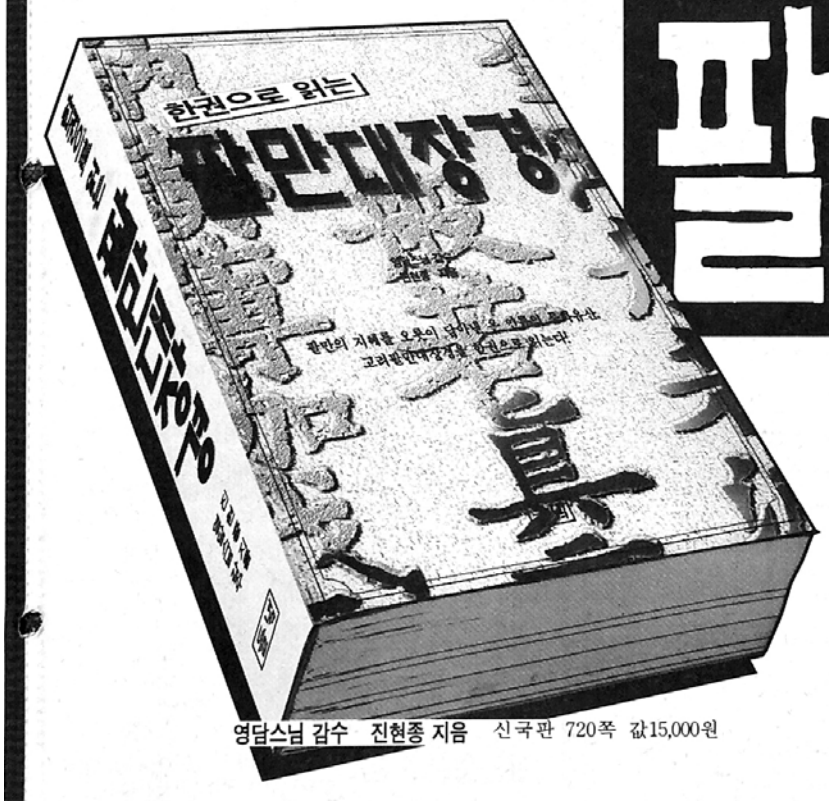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들녘 TEL:337-0296 FAX:338-964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영담스님 감수 진현종 지음 신국판 720쪽 값15,000원

팔만의 지혜를 담아낸 온 인류의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읽는다!

팔만사천 번뇌의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들 중생을 위해
팔만사천 법문을 연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자한자 뜨거운 호국의 염원으로 빚어냈기에
팔백년의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흠결 하나 없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려팔만대장경.
해서 세계는 전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확정하였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교사상의 결집체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전불굴의 기개와 뛰어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으며
오묘한 우리 전통과학의 정수가 체현되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하고 중요한 팔만대장경의 구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의 향기와 자긍심을 듬뿍 안겨줄 것이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낱낱이 읽는다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는 500여년간의 왕조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조선의 역사에 관한 입문서다. 각 왕통의 가계도와 함께 조선의 과학지식,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당파싸움 등 조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64쪽 값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 역사의 허리에 해당되는 고려왕조. 그러나 고려의 진면목은 질은 안개에 가려 있다. 외세의 힘을 빌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소상히 알아본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88쪽 값 10,000 원

종단소식

조계종

일각스님 1주기 추모법회

승주 송광사(주지 현고)는 12일 오전 11시 대웅보전에서 회광당 일각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이날 문도회는 정혜사에서 회의를 갖는다. 안건은 일각 대종사 사리탑건립 및 유지 계승과 조계총림 현안에 대한 문도의견 수렴 등이다.

봉선사 월초스님 다례식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4일 청풍루에서 월초스님 다례식을 봉행했다. 한편 봉선사 신도회는 18일 오후 3시 운하당에서 신도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원 5명 임명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5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학성스님(봉원사)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임명 발령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거관리위원에는 만화스님(서울 남부교구종무원장) 운봉스님(원주 용덕사 주지) 혜암스님(안정사) 월해스님(백련사)이 각각 임명됐다.

법륜사 철화스님 진산식



서울 법륜사 제10대 철화스님〈사진〉 주지 취임식이 1일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철화스님은 취임사에서 "대륜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법륜사 중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범종불사 및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법륜사를 젊게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인곡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서돈각 불교방송 사장, 법흥 원효종 종정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종무원장 남파스님

전북교구지방종회는 5월27일 임시종회를 열고 제13대 종무원장에 남파스님(중앙종회부의장)을 선출했다.

종회의원 25명중 22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은 종무원장 후보로 단일 출마한 남파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천태종

상월조사 23주기 열반대재

총무원(원장 윤덕)은 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상월원각조사 2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열반대재는 헌화 및 분향, 윤덕 총무원장의 추모사, 금강불교합창단의 추모가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와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보인 원융종 총무원장, 조성준 정한용 권오을 의원, 주병덕 충북도지사, 정하모 단양군수 등 사부대중 2만5천여명이 참석했다.

총화종

잠실서 국제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남정)은 7월1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만5천여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스리랑카, 미얀마, 일본 등 3개국 스님과 불교관계자들이 초청된다.

대한불교법화종

서울교구 중앙종회의원 선출

서울교구(종무원장 팔봉)는 5월27일 팔봉사에서 교구종회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원으로 운경·홍파·해암스님 등 3명을 선출했다.

일붕선교종

일붕스님 부도탑 제막

일붕존자열반 1주기 추모대법회 봉행위원회(대법주 서암)는 13일 오후 1시 법왕청 대법당에서 추모대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봉행위원회는 또 같은 날 오전 10시 경남 의령 일붕사에서 1주기 추모재 및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서경보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참여 불자들의 업장을 소멸하게 된다.

대원사 진신사리 친견법회

인천 대원사(주지 해월)는 16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친견법회는 미얀마 국무성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기증받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제 2석굴암은 옥상옥"

석굴암 모형건립 추진에 이견제기

장소선정·건축공법등 난제 많아
불국사·학계 반대의견 만만찮아

불국사가 석굴암과 크기 및 모양이 같은 제2석굴암 건립을 추진중이나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128호 19면 참조〉

우선 불국사와 석굴암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관리국의 현상변경절차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이와 관련 석굴암주지 법달스님은 "석굴암이 자연의 형세와 조화롭게 지어진 만큼 장소선정에 문제가 많다"며 "불국사 경내에 건립하면 석굴암의 분위기가 나지 않고 석굴암 인근에 건립하면 일출이나 본존불의 방향 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석굴암의 고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라역사과학관 석우일 관장은 "석굴암은 광창의 존재여부와 감실공기구멍의 용도, 무지개문의 형태와 전실의 굴곡여부 등 역사적 고증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 형태로 제2석굴암을 건립한다면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축공법결정과 예산확보문제 등이 가로놓여 있어 제2석굴암 건립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국사내부의 반대의견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소임을 맡고 있는 한 스님은 "모형이 건립되면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원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하나의 산중에 똑같은 부처님이 두 분 존재하게 되면 신앙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석굴암 건립과 관련 불국사측과 몇몇 문화재위원들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0년대 중반 경주고도개발계획이 시행중이던 당시에도 제2석굴암 건립이 논의됐으나 불국사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의 모형만 조성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뒤뜰에 세워져 있는 상태. 내부 돔의 균열현상과 석질의 풍화현상으로 보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석굴암은 현재 대한건축학회에 의한 안전진단검사가 실시중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범어사 토지매각 결정

3천6백평…종토·초토세 체납액 정산위해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사찰 경외지에 부과된 택지초과부담금과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찰소유 일부 토지를 공개 매각키로 결정 총무원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다. 또 범어사는 현재 매입요청서를 받아 검토중이며 늦어도 이날 내로 매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정구 청룡동 23번지 일대 6필지와 금정구 남산동 16의2 일대 15필지 등 21필지 1만1천56㎡(3천5백92평)를 공개 매각키로 한 것은 92년부터 96년 8월까지 사찰 경외지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46억7천3백만원의 체납액과 종합토지세 8억6천여만원을 정산하기 위해서이다.

범어사측은 이번 공개매각을 통해 21필지 전부가 매각될 경우 매각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1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지매각에 따른 양도세와 체납된 택지초과부담금과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모두 정산할 수 있을것 이라고 예상했다.

징효대사 탑비 훼손 풍화로 글자 지워져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중 하나이며 선문9산 중 사자산문의 중심도량이었던 법흥사(강원 영월군 수주면) 경내의 흥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보물612호)가 관리부실로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이 비는 비신 일부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뿐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주목을 받아왔으나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풍화작용이 일어나 청태가 끼고, 무분별한 탁본으로 마모, 훼손돼 상당부분의 글자를 알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반영, 노출방지를 위한 보존대책을 마련해 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음 담아두지 말라

우리들의 살얼음이는 흐르는 물과 같다. 도도하게 흘러가니 닦아 둘것이 없다. 그대로 여여할 뿐이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입이 닥쳐서 겪었으면 그로써 흘러가버려 아무것도 없게 된다. 발자국 걷으면서 내가 얼마를 걸어왔노라고 하지 않듯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놓고온 발걸음을 못내 아쉬워 하고 집착한다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고 업이 되는 것이다.

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방|송|계

영담스님 사퇴요구
불교방송 범대위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4일 영담스님의 불교방송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재단수습대책위 위원장영담스님이 지난해 불교방송 당좌개설시 직접 간여했으며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범대위는 종하스님 조해형씨, 송병욱씨를 고발한데 이어 조만간 이번 사고의 관련된 불교방송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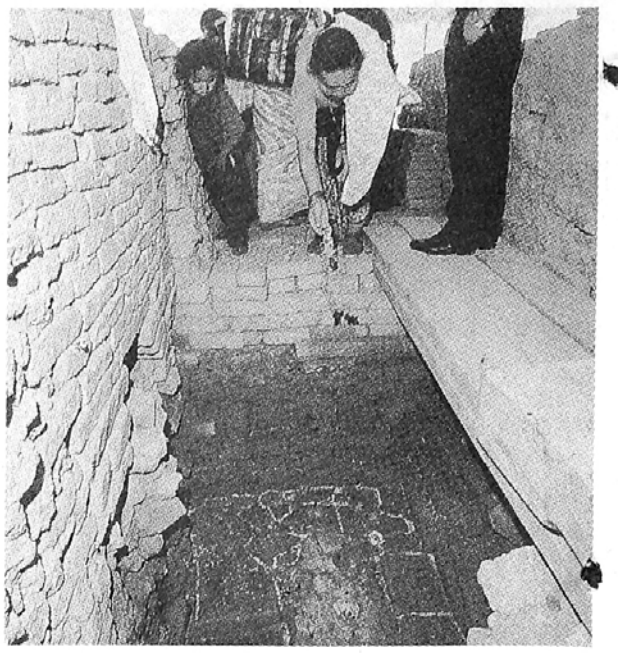
불교방송 사장 공채
진흥원, 인재 확보위해

불교방송 사장이 공채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불교진흥원은 사장선임의 투명성과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공채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측은 사장추천은 진흥원의 고유권한이고 추천 전의 과정은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한 간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불교방송 창사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사장 공채의 향후 전개에 교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발굴중인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주춧돌 발견이 알려지자 순례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네팔정부는 최근 발표했다.

석가모니탄생지 주춧돌 순례발길 급증
한국·일본·태국 등서 6천여명 다녀가

석가모니의 탄생지로 알려진 히말라야 기슭의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의 정확한 출생장소를 뒷받침할만한 돌이 발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국 불교도들의 순례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룸비니 지역의 기후 특성상 관광이 절정을 이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이곳을 찾았던 한국·일본·태국·대만 등지의 참배객은 룸비니 역사상 가장 많은 6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는 불교신도들이 얼마나 몰렸던지 시주함을 예년보다 4개월이나 앞서 개봉할 정도다.

네팔 발굴팀은 2년전 이 지역의 절터에서 방 15개를 발굴한데 이어 지난 2월엔 석주를 받쳤던 주춧돌을 발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터넷 가상묘지 개설
日 관음원, 다마고치 안치

히로시마의 396년 된 사찰 관음원이 최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 죽은 다마고치를 안장할 가상묘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1일 현재 15명의 고객이 '다마고치 묘지'에 무덤을 지었으며 5천개의 위패가 사이버스페이스에 안치됐다. 관음원은 '가상묘지'에는 컬러 사진과 고인의 약력을 올릴 수도 있으며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제2의 무덤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어판과 영어판 두 가지로 마련된 '다마고치 묘지'에는 지금까지 4만명이 방문했다.

재활용 알뜰시장 엽니다
28~29일, 삼성동 봉은사서

현대불교신문과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맑고향기롭게모임은 28~29일 양일간 삼성동 봉은사에서 재활용 알뜰시장을 엽니다.

알뜰시장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아나바다 운동)' 과정을 통해 무절제한 소비를 지양하고 검소하며 건강한 소비문화를 창출해내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자 공동체정신을 부흥하자는 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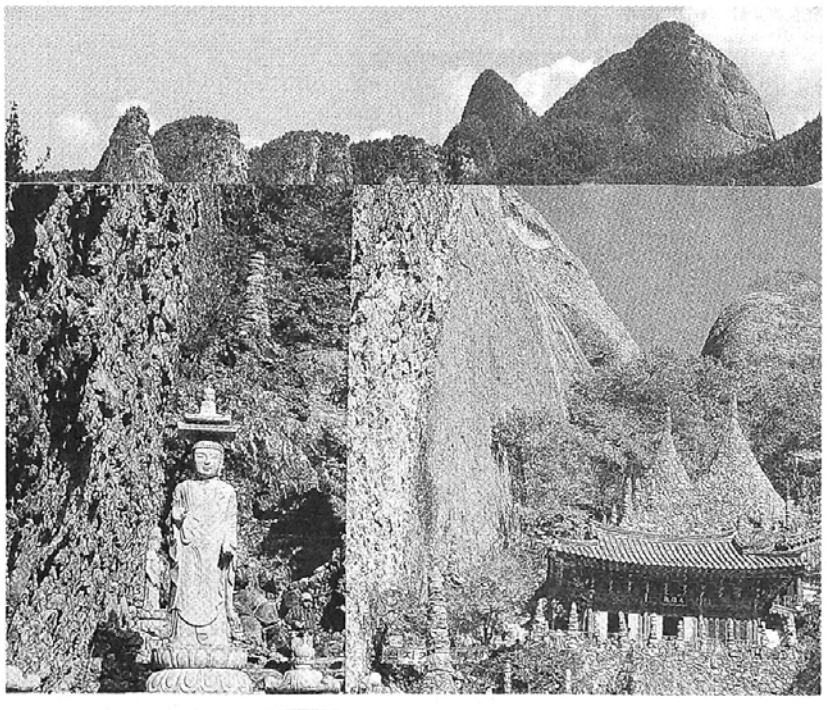
재활용 가능한 불교용품 및 생활용품(헌옷, 탈수기, 장난감, 시계…)과 환경용품(세제류, 화장품, 먹거리…), 우리옷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될 알뜰시장에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6월 28(토)~29일(일) 오전 10시~5시
- 장소: 삼성동 봉은사 (02)511-6070
-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도보로 10분거리

현대불교신문사·소비자위·'맑고향기롭게 모임'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관음출판사

관음 역서시리즈 8
古典 풍수학 설심부



수년간의 연구과정에서 탄생한 풍수학의 정통.

申 坪 지음
값 18,000원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사주학 핵심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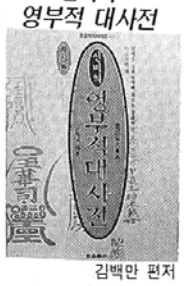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 929~3470

인천 청교련 '청소년쉼터'

개원 두달…휴관 위기

예산지원 미뤄…위탁운영 자율권 억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청소년쉼터가 인천시(시장 최기선)의 늑장행정과 현실성 없는 규정이 행 강요로 휴관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청소년쉼터는 9명의 가출 청소년 부식비와 지도교사 월급, 기타 운영비를 더 이상 마련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원 두달이 지나도록 인천시가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1억원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채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악화됐다. 더구나 인천시는 상의없이 실장과 지도교사를 채용했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청교련 인천지부장 선일스님은 "인천시 담당공무원이 외상으로라도 미리 기본 물품들을 들여놓으라고 해 그 말을 믿고 들여온 사무용품의 값을 치르지 못해 업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시의 어처구니없는 늑장행정을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준수의무사항인 인천시의 직원채용기준으로는 실장과 지도교사를 구하기 힘든 형편"이라며 규정상의 모순을 지적했다.

인천시 규정에 따르면 자격기준과 보수는 실장의 경우 청소년 육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40세이상 50세미만에 급여는 상여금없이 월 78만원. 지도교사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이상의 경력에 월급은 상여금없이 72만원.

이같은 규정은 서울 부산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쉼터와 비교해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부산쉼터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보수와 대우는 더높고 자격조건은 완화돼 융통성과 자율성의 폭이 넓다. 현재 인천쉼터는 4명의 지도교사 중 2명이 퇴직했고 가출청소년들도 더 이상 받지 못해 단 한명만 있다.

한편 인천시는 청소년쉼터 운영이 5일 현재까지 시의 요구돼로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 당초 지원비 1억원을 사전통보없이 3천만원 삭감하는 등 쉼터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인천시의 경직된 탁상행정은 청소년선도에 앞장서 온 청교련 인천지부의 사기를 꺾어 놓았을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전법도량 축소지정키로

조계종 당초 10곳서 2곳으로

조계종이 올해를 전법의 해로 선포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전법도량 지정이 예산부족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 총무원장)는 최근 전법도량을 시범사찰 1곳, 거점사찰 1곳 등 두 곳만 지정키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시범 5곳, 거점 5곳 등 모두 10개 사찰을 전법도량으로 지정키로 하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논란이 일며 예산마련이 어려워 축소해 추진키로 했다.

그나마 전법도량 관련 예산 5천만원 가운데는 간사인건비와 전법5개년 계획수립 세미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예산은 2천5백만원 수준이다.

조계종은 전법의 해 사업계획을 지난 1월 확정, 지난해 11월 열렸던 정기종회에 예산을 상정하지 못해 전법의 해 관련사업 예산을 선본사 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했었다. 이에따라 전법도량 지정과 함께 전법의 해 사업으로 계획했던 10개 사업 가운데 △문화재사찰 안내프로그램 실시 △전국 불교지도자대회 △포교대상 강화 등은 예산마련의 어려움으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낙태허용 검토 교계 "생명존엄 위배"

보건복지부는 4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인 허용범위를 현행 '결혼한 여자'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허용범위가 현행보다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산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임신상태를 지속하기 힘들 경우 임신중절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클 전망이다.

이에대해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수태의 순간부터 생명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생명문제를 인간이 법제도적으로 속단해서도 안되며, 낙태는 살생문제인 만큼 사회윤리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실무자는 "임신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유산사유가 될 수 있다는 여성학계의 의견도 있다"며 "낙태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달말까지 TV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법개정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노씨 사면서명 '확산'

조계사·총화종등 청와대에 청원서

지난 5월초 백담사(주지 마근)와 동화사(주지 무공)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된데 이어 최근 조계사 신행단체와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5월말 중앙승가대 학생회가 전개한 서명운동이 학인스님들의 반대로 1달만에 중단된 가운데 시작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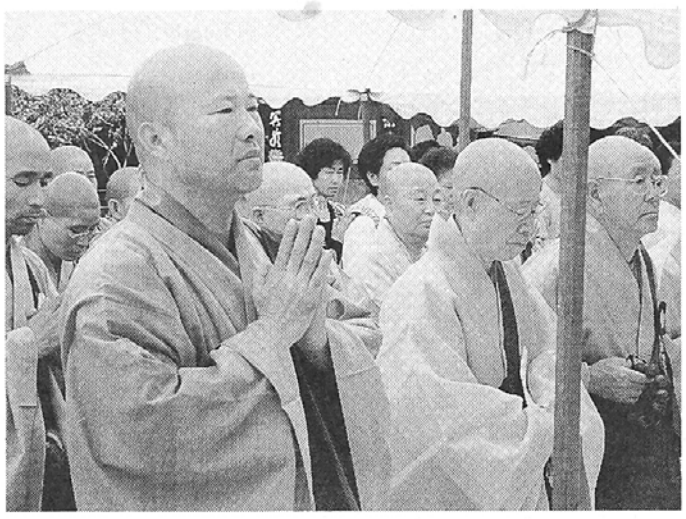
조계사신도회 관음회 대승불자회 청년회 원심회 불교대학총동문회 등 조계사 산하 11개 신행단체들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사면 서명운동 운동본부'(본부장 김채식 신도회 수석부회장)를 발족시키고 5월27일 청와대에 '김영삼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이 청원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종교에 귀의해 지난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하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만큼, 나머지 삶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화종도 지난달 말부터 전국 9백여 종단사찰별로 서명운동을 전개, 탄원인 서명명부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1달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백담사와 오세암(주지 홍천)은 5일현재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동화사는 5백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지난달 14일 서명운동을 중단했다. 한편 해인사 입구에서는 1일부터 합천지역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채식 서명운동본부장은 "인간방생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명운동을 순수하게 봐달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반들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호국영령 추모

국가를 위해 산화한 충혼들이 이 땅에 다시 빛으로 회향하기를 바라는 호국영령추모법회가 은평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삼천사 주지) 주최로 4일 진관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주일 기자〉

광흥사 금사경 제자리로

문화재털이범 잡아

지난해 9월 문화재 전문털이범에 의해 도난당해 1억3천여만원에 팔렸던 고려시대의 금사경이 원래의 자리인 안동 광흥사(주지 일현)로 5월23일 돌아왔다.

표지에 범망금강보문합부(梵網金剛普門合部)라고 씌여져 있는 이 사경은 50쪽을 양면으로 접은 책자형태로 이를 모두 펼치면 7m가 넘는다. 범망 금강 보문경을 비롯 나옹화상과 영가화상의 발원문 및 법망경보살계품변상도 등이 수록돼 있다. 제작은 고려말로 추정되며, 감색 종이에 금가루를 아교에 녹여 정교하게 필사해 불상의 복장유물로 넣어 둔 것이라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한편, 이 사경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하종택(41세), 하종구(35세)씨는 경북 주요사찰을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고서적과 탱화, 화집 등을 전문적으로 털어왔으며, 지난2월 경주 기림사 복장유물과 94년 4월 포항시 남구 오어사 탱화 및 경판 도난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3군수지원사 법당

삼마사 기공

두송건설 3억5천만원 기부…9월말 완공

인천 3군수지원사령부 법당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연세)는 8일 오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 인천 보각사 주지 송산,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과 부대관계자,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내 삼마사에서 법당기공법회를 봉행했다.

부대장병의 종교적 정서함양을 통한 정신교육장으로 활용될 삼마사 법당은 두송건설대표인 이연세씨가 3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기부체납형태로 지원, 9월말 완공예정이다. 대웅전 52평, 요사채 30평, 종각 4평 등 86평 규모로 건립되는 이 법당은 지도법사 겸 법당건립추진위원장인 이연세 석왕사 신도회장의 발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뉴스 & 뉴스

경승·포교사 연수 잇따라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경승연수회와 포교사연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경승연수는 20~21일 경기도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된다. '지역공동사업 방안' '지역경승 친목도모 방안' 주제의 분과토론, 경승활동 모범사례 발표(서울 성동경찰서 성덕스님), 경찰조직과 행정업무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기 포교사 연수는 서울 부산 대구지역은 22일 종로구청강당과 범어사 동화사에서, 대전 광주 전주지역은 29일 화엄불교대학과 호남불교대학 대전불교대학에서 각각 열린다.

종교인협 북돕기 국토순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4일부터 10일까지 '북녘동포돕기 국토순례' 행사를 개최했다.

효림스님(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장) 외 각 종교대표 10여명이 참가한 순례단은 4일 제주도에서 출발, 부산·대구·광주 등을 순례하고 10일 서울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각 도착지에서 종교인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북녘동포돕기 바자회, 모금운동 등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5일 모자세대가족 야유회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15일 설악산 한화리조트내 프라자랜드에서 모자세대 60~70 가족을 초청하여 야유회를 개최한다.

결손가정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극복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날 행사는 모자세대가족 사진찍기, 즐거운가족 장기자랑, 사랑의 편지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28일~29일 구룡사에서 제1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목탁소리

부산불교청년회 결별

천 미 희 〈부산주재 기자〉

내분의 진통을 겪던 부산지역 불교청년회가 마침내 결별구도로 가고 있어 지역불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흥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불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론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논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사퇴라는 입장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여왔다.

현재 대각사청년회 외 13개지회가 소속된 대불청과 범어사청년회의 9개지회가 가입된 조계종청년회는 저마다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하다.

따라서 지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양분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이같은 부산지역 두청년회의 활동을 두고 교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과 내부적 갈등의 고리를 끊지 못한 형식적 통합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부른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관되게 지켜온 바탕은 하나된 청년회를 향한 기대이리라.

분규와 불화로 얼룩진 해방후 현대 한국불교사를 돌이켜 볼 때 청년불자마저 불화와 갈등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역 청년불자들은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중 중요한 하나가 화합정신임을 되새겨야 한다.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국반판(10.5cm×14.8cm) 356p·고급비닐커버 정가 2,500원
▲ 국반판(10.5cm×14.8cm) 256p·고급비닐커버 정가 2,000원

♣ 법보시 하실 사람 환영합니다. ♣

우리말 지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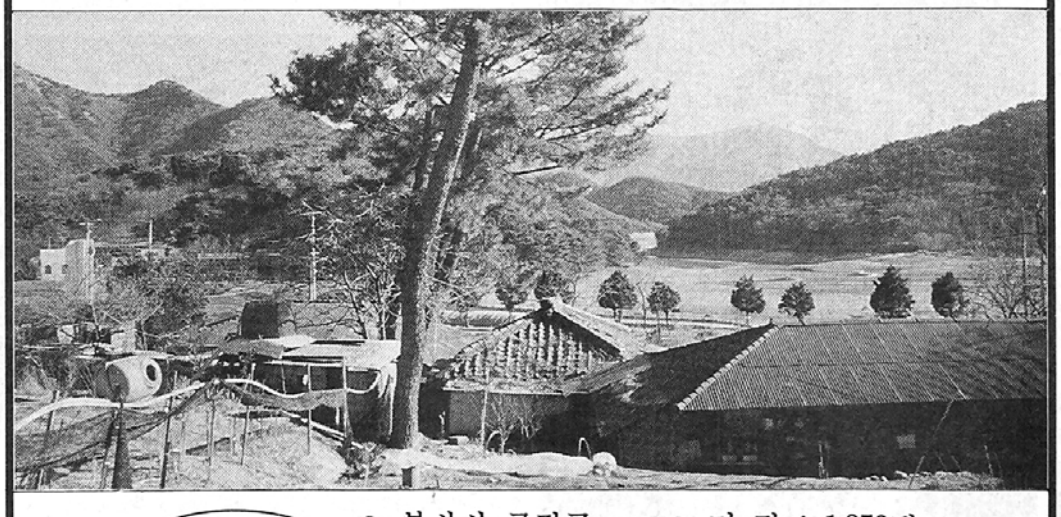
혜련 일화 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지장경을
우리말로 쉽게
해설한 필독서!!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금장 비닐커버
◈법보시가격/4,500원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영험록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723-4307 팩스:(02)738-8682

사찰·수련원·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 면 적 : 1,352평
● 건 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상담문의 : (051)516-9997

"마마, 방하착 하소서"

사극 '용의눈물' 불교소재 곁들여 흥미배가

무학대사 이성계에 권력무상론 설법
경순공주 골육상쟁 슬픔 출가로 승화

"모든 것을 버리소서. 불법에는 '방하착(放下着)'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하착하소서. 이제는 떠나셔야 합니다. 일체 괴로움을 버리고 욕좌에 연연해 하지 마옵소서. 권력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소유의 안온함을 얻으소서."

사찰에서의 법담인가. 아니다. 근래 우리사회의 정치현실과 맞물려 인기를 얻고있는 KBS TV 대하사극 '용의 눈물'(PD 김재형)의 최근 방영분에서 아들들의 골육상잔 등 처절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태조에게 진언한 무학대사의 말이다. 이 드라마는 경순공주 역을 맡은 배우의 삭발, 무학대사의 진언 등으로 회를 거듭하며 불교적 사상을 녹여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무학대사의 진언으로 인생무상을 느낀 태조 이성계는 옥좌를 버릴 결심을 하고 자신의 딸 경순공주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주며 출가를 허락한다. 드라마 속에서 경순공주는 이처럼 자신의 의지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도 일치해 출가를 한다. 경순공주는 이복 오라버니 이방원의 칼에 남편과 친동생을 뺏기고 비구니가 된 조선역사상의 비련의 여인이다. 극중에 드러나는 공주의 성격은 불심이 돈독하고 효심이 지극하다. 어머니 강비의 환후 중에 매일 3천배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는 경순공주의 역할은 불자 탤런트 김나우씨가 맡아 선암사에서 삭발식을 환영했다.

친형육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욕을 보며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왕위를 물려나는 아버지와 출가하는 딸. 개인의 고통을 불교적인 승화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연기가 시청자들을 감동시킨다.

시청율 30%를 웃도는 인기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무학대사의 절절한 가르침은 대선을 향해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정치계는 물론 일반 시청자에게도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고 있다.

강지연 기자



◇탤런트 김나우씨가 분장한 경순공주. 출가해 비구니가 된 모습.

육락스님 '참선이야기' 불교방송 테이프 출시

불교방송 사업부는 인기리에 방송됐던 불교방송의 '참선이야기'를 '참선 명상이야기'로 제작, 출시했다.

45개 1질로 출시된 참선 명상이야기 강의 테이프는 언어도단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등으로 표현되는 선(禪)에 대한 육락스님의 강의내용이 담겨있다.

BBS 프로그램개편 한달 차별화 역부족
진행자 전문성 미흡

불교방송이 5월1일 봄개편을 단행한지 1개월을 넘겼다. 그러나 불교방송은 '돌을거리' 중심의 소폭 안정개편에 그쳐 원래 목표했던 포교프로그램 강화와 음악교양 오락프로그램의 차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방송관계자들과 불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인연의 길'(오후2시10분에 방송)은 진행자의 미숙한 방송경험 탓인지 자주 호흡이 끊기는등 부드럽지 못하다는 평을 듣고있다. 신설된 몇몇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전문성 결여와 미흡한 방송운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교방송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진행자의 부재를 다시 한번 노출시켰다.

김흥국씨를 내세워 제2의 전성기를 시도했던 '백팔가요'(PD 유병직)는 김흥국씨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청취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제작팀은 92년 미스코리아 출신이며 현재 음악전문채널 M·Net에서 비디오 자키를 맡고 있는 구나현씨를 급히 새 진행자로 내세웠다. 첫 여성 MC를 내세운 제작팀은 실추된 방송이미지 되살리기에 한창이지만 과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조건없는 삶 ① 〈특별상〉

미국 중국 동부아프리카 여러나라들과 수출입을 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세계를 무대로 뛰어 다닌지 2년여째. 참선수행을 생활의 지표로 삼으면서 하루하루 후회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행(行)이 있는 선(禪) 구현을 위해 회사 식구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일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년 전 불가(佛家) 인연이 닿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 모습은 없을 지 모른다. 나는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자이신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친구들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생활고라는 인생의 난관에 부딪쳐야 했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일찍 축산업에 손을 대게 되었고, 젊은 사업가로 촉망받았었다.

서른 중반이 되었을 때 나는 타의에 의해 분에 넘치는 사업을 벌였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사업이 운명의 발목을 잡는 늪이 됐고, 나는 깊은 질곡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재판하는등 1년 반동안 재기의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심 소송 중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법원 문을 나섰다. 내가 설 곳은 어느 곳에도 없는 듯했다. 아무런 기약없이 무작정 떠났다. 그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고만 싶었다. 생각없이 지프차를 몰고 달리다보니 밀양 표충사가 보여 핸들을 돌려 그 길을 찾아 들었다. 그러나 사찰에는 들어갈 생각도 못했다. 눈앞에 일주문이 보였지만 범의 소굴 피하듯이 사찰 옆 가물가물 보이는 길을 따라 기어오르듯 차를 몰고 갔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은 삼대째 가족 모두가 성당에 나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니 절의 모든 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다. 법당에 모셔져 있는 금칠한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모두를 좀 덜 떨어진 무식한 미신쟁이로 여길 때였다. 불법이란 그때의 나에게는 돼지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갈투성이 길을 더듬어 깎아지르듯 펼쳐져 있는 수십길 낭떠러지 수직절벽에 이르러서야 차를 세우고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절벽위서 유서를 쓰려는데
웬 할머니가 소리쳤다
"젊은이 왜이래, 아직 할일이…"



그림 · 이준석

양복저고리를 벗어놓고 유서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웬 할머니와 아저씨가 나타나 내 인생의 또다른 국면을 예고했다. 이런 황량한 산중에 이상한 차림의 노인은 웬말이고 또 이 장년의 사내는 누구인가. 나는 본능적으로 그 할머니에게 머리숙여 꾸벅 절을 했다. 유서를 쓰려고 품잡고 앉은 처지에 무슨 놈의 예의범절이 필요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인연이라는 것이 작용한 것 같다.

꾸벅 인사를 하고 양손에 필기도구를 들고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던 그 할머니는 "젊은이 왜 이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같은데 왜 죽으려 하는가?" 벽력같은 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서 저리시나. 저 외소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천둥 벽력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어 의아해 하면서도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 약초 캐러 가는 중이니 저 아래 초가집에 가 있게"라며 간곡한 한마디만을 남기고 가버리셨다.

1백m 정도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초라한 암자를 찾아 갔다. 야트막한 슬래브 지붕밑에 창호지가 붙여진 출입문 위쪽에 법당이라고 쓰여진 글귀가 보여 문을 당겨보았다. 불상 하나없이 벽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부처님 모습(탱화)과 그 앞에 놓여진 불전함만이 시야에 들어올 뿐이었다. 무슨 마음이 발동을 했는지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넙죽했다. 불가(佛家)와의 인연은 이렇게 재약산 아래 움막처럼 지어진 사자암에서 시작됐다.

삼배를 끝내고 일어서서 두리번거리다 앉아 기다릴 곳도 마땅찮고 쑥스러워 법당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문밖 역시 마음 붙여 앉을 곳도 없거니와 스스로에게 겸연쩍어 겝싸게 개울을 건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낭떠러지 황량한 절벽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장명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67)

♦ Indolence is defilement; by earnestness and knowledge let one pull out his arrow of passion.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욕망의 화살을 뽑으라.

♦ Having abandoned the objects of the five sense, the beautiful, the charming, and gone out from thy house with faith, do thou put and end to pain.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오욕(五欲)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괴로움(苦)의 종지부를 찍어라.

♦ Cultivate virtuous friends and a distant dwelling-place, secluded and quiet; be moderate in food.

덕이 높은 사람과 사귀어라. 인가(人家)를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 Avoid signs, what is pleasant and is accompanied with passion.

turn thy mind undisturbed and weel composed to what is not pleasant.

애욕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겉모양을 떠나서 생각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 Cherish what is signless, leave the inclinations for pride; then by sacrificing thy pride thou shalt wander calm.

마음에 자취(相)를 두지 말라. 자만심을 버려라. 자만심을 없앤 너는 마음 편안한 나날을 보내리라.

*indolence (n) 게으름, 나태
*defilement (n) 더럽힘, 오염, 때
*pull out ~을 뽑다
*abandon (v) (사람 자위 등을) 버리다
*virtuous (a) 덕 있는, 고결한
*dwell (v) 살다 거주하다
*secluded (v) 차단하다 격리하다
*moderate in 절제있는 온건한
*cherish (v) (추억을) 고이 간직하다, 품다
*inclination (n) 기질, 경향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형태 / 규격(폭×높이)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9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